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오른금리로 내릴때는 약정금리로!
*교육자금, 주택자금, 장조사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6월 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상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의
공덕은 한량없이 크다
〈금강경〉

법회 안내

성룡사 (02)336-2052

일반법회 매주 토 오전8시30분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염불사 (02)938-9395

신중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백룡사 (02)738-2806

정기법회 오전10시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대전 대승심인당(042)282-591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저녁불사법회 매주 일 오후7시

전남 송광사 포교당 857-2328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30분
청년법회 매월 첫째 일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열린교육 불자교사가 맡겠다"

중앙불교교육원·송광사등서 수행법회…인성개발 주력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성남동中의 한 교실 뒷편에는 '이런 삶'이라는 화보와 함께 이런 글귀가 새겨 있다.

불교의 오계가운데 살생을 금하는 이 내용은 담임 박정현 교사가 실천행이 담긴 그림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박교사는 매주 '이런 삶'의 내용을 바꾼다. 어린 학생들의 심성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불교경전을 현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교사가 경전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한 것은 교사불자들의 모임인 교사수행법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중앙불교교육원(원장 법륜스님)이 3년전부터 주관하는 수행법회는 교육의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전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모인 법회다.

정년퇴임을 앞둔 교사부터 신임교사에 이르기까지 50여명의 교사들이 동참하는 수행법회는 교사가 아닌 교육생이 되어 참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된다. 지난 2일, 서초정토법당에서 열린 수행법회는 동료교사의 지도로 집단상담인 촛불의식이 거행됐다. 학생으로 돌아간 교사들은 한사람씩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았다. 불자교사들은 이렇게 체득한 체험을 바탕으로 교육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학생들의 고민을 부담없이 들어주고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할 예정이다.

교사수행법회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참선 명상 훈화자료집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능력계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방안을 찾곤 한다.

지난달 31일 교육개혁위원회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전인교육으로 바꾸는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뒤늦은 조치이지만 불자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불자교사들이 법회에서 펼쳐왔던 것을 이제야 인정을 받은 듯 하여 보람도 느끼며 개혁에 다한 기대가 크다.

교사수행법회를 지도하는 덕생법사는 "불교적 소양을 갖춘 교사 한명은 수많은 청소년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교사수행법회는 종교를 내세우지 않는 가운데 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교사들이 경전속에서 열린 교육을 찾는 곳은 중앙불교교육원뿐만이 아니다. 시한부 출가로 일반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송광사 여름수련법회는 특별히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송광사는 금년에도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26회째 교사수련법회를 개최한다. 또한 경주 고불선원도 교사불자회를 운영, 어린이 청소년 등의 인성교육을 위해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속에 충만해 있는 불교개혁을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불자교사들의 열기가 뜨겁다. 〈김중근 기자〉



◇지난 1일 이택순 종로경찰서장이 조계사를 재방문, 한통노조간부들에 대한 법집행 의사를 밝혔으나 조계종 호법부장 혜창스님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사진=박재완 기자〉

"정부·노사 대화로 풀어야"

조계종, 한통사태 중재에 적극 나서

조계종이 한국통신 노조문제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낮 12시와 오후 3시 시현스님(조계종 문화사회부장)과 중앙종회의원 46명은 '한통사태에 대한 조계종의 중재결과 중간발표' 기자회견과 성명을 각각 발표하고 노사 양측과 정부당국의 성의있는 대화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시현스님과 중앙종회의원들은 "지금까지 조계종은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앞으로도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 30분 시현, 혜창스님은 진념 노동부장관을 방문하고 종단과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진념 장관은 법절차의 원칙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으며, 오후 8시 이택순 종로경찰서장이 조계사를 재방문 법집행 의지를 재삼 밝힘에 따라 조계사와 명동성당에 언제 공권력이 투입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월주스님 청와대 방문 '북경회의' 결과 등 논의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달 29일 정오 청와대 김영삼대통령을 단독 예방 오찬을 함께 하며 불교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오찬회동에서 월주 총무원장은 남북한 방북합의 및 한·중·일 3국 불교우호교류회의 결과, 지난달 4일 청와대에서 전달한 불교계 대정부 건의 10개항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능 선수촌 한마음 법당에도 '불자가정' 스티커가 붙었다. 좌측에서부터 임동헌(배구) 이은경(양궁) 배상일(유도) 심권호(레스링)등 국가대표 선수.

'불자 가정' 관심고조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 붙이기 운동이 각 사찰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더욱 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1천매 이상 주문에 대해 각 사찰, 단체의 이름을 스티커 전면에 인쇄해 제작하기로 한데 따른 대량주문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1천매 제작 보시금은 1십만원입니다. 또한 낱장에 대한 주문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본사는 우편, 전화, 팩시밀리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붙이기 동참자 천매이상 : △영산불원(주지 해성) △부산불교산악회 △서울 용천사 △청량사(주지 지현) 천매이하 : △부산 법륜사 △충남 봉흥사 △반야포교원(주지 원오) △법장사(주지 법경) △인천 일광사 △인천 청학사 △영각사(주지 청운) △전남 홍천사 △불광출판사 △금선사(주지 성신) △금륜사(주지 보문) △(주)한국CTS △제주 북성사 △경기 심전사 △대성사(주지 보각) △전용식 △이은주 △김종(승가불교서점) △장래덕 △정원국(현대약국) △배영숙 △신선자 △윤성한 △박관용 △김정묵 △김찬우 △김장자 〈무순〉

동참금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 023-25-0007-617
예 금 주 : 현대불교신문
전 화 : 737-8881, 722-4162
팩 시 : 737-0698

현대불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대한불교진흥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목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교계에서 열리는 만찬 또는 기념행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경이다.

먼저 원로 중진비구 스님들과 단체장 거사들이 소개되고 여성인사들도 호명된다. 그런 자리에서 원로 비구니스님들의 법명이 잘 챙겨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요즘 교계에는 '팔경계법'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비구니가 비구에 대해 지켜야 할 8가지 법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1백세의 비구니라도 새로 계를 받은 비구를 보면 일어나서 정좌(淨座)에 앉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 법이 부처님 말씀이든 아니든 우리나라 비구니스님들은 '그러려니' 하는 자세로 임해 왔다. 어느 자리든 비구스님들과 함께 하는 곳이면 으레 한발 뒤로 물러선다. 설사 행사중의 내빈 명단에서 제외돼도 '그런가 보다' 싶어선지 섭섭한 내색을 하지 않고 여여한 모습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그러나 수행하고 포교하는데 있어 비구스님들과 한치도 다름없다.

비구니 스님들의 자리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는 비구·비구니가 동등한 수행인이고 성직자임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런데 팔경계법에 '젖은 관습때문에 재가인사들까지 호명되는 명단에서 원로비구니스님들이 비껴서야 한다면 이는 누가 보아도 격이 아니다.

팔경계법의 제정 배경을 고찰하고 오늘에 와서 어떻게 지켜져야 할 것인가 등은 교계의 공식기구 또는 학자들이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얼마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이 문제에 대해 '찬찬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기에 앞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곳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자리는 어디일까.

북녘에 부처님 말씀 띄운다 18면

금주 20면 발행

머리숙여 사죄합니다

폐사는 현대불교신문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매주 '현대불교'를 애독자 여러분께 우송해드리는 우편발송 대행 업체입니다. 하온데 지난 5월31일자 '현대불교' 30호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우편번호 100-) 독자님들께 엉뚱한 내용물을 우송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로인해 현대불교신문사의 명예를 더럽히게 되었고 애독자에게도 누를 끼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폐사는 이번 실수를 교훈삼아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성의를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정 포장DM 대표 양순철 올림

커졌다



KIA 기아자동차

뉴-세피아 탄생!

이제 중형의 느낌으로 타십시오.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놀랄만큼 달라진 스타일, 대폭 강화된 안전시스템으로 — 뉴세피아
'95년 부터 더욱 강화되는 新미연방안전기준(FMVSS)을 적용하여
무려 570여 가지를 혁신적으로 바꾸었습니다.
2년만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 차는 아직 없었습니다.

스타일이 더욱 커졌습니다.
- 품위있는 전면 스타일을 연출해 주는 본넬라인과 후론트 범퍼
- 국내최초로 안개등, 콤비 램프가 내장된 일체형 고광도 헤드램프
- 볼륨감이 돋보이는 라운드 감각의 리어 피니셔와 리어 콤비램프
- 여유롭고 편리한 드라이빙을 도와주는 일체형 대쉬보드
- 조작성을 향상시키고 도난방지 기능을 추가한 최고급 알파인 오디오(선택)
- 새로운 디자인의 로터리 절환 타입의 고성능 에어컨(선택)

안전이 더욱 커졌습니다.
- 충격에 대한 강도가 대폭 향상된 직선일체형 T형 버팀쇠
- 충돌시 1차 충격흡수 능력을 더욱 강화한 전면 판넬
-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까지 확대 적용한 도어 임팩트바
- 사용 비율을 월등히 높여 차체의 강성을 향상시킨 고장력 강판
- '95년부터 적용되는 新FMVSS 측면 안전기준(54km/h 측면 충돌시 안전도)을 만족시킨 특수 보강재, 시트하단 특수 프레임

성능이 더욱 커졌습니다.
- 2방향에서 연료를 분사, 가속 응답성을 향상시킨 2스프레이인젝터
- 최적의 연료량을 분사하여 고출력을 실현한 다중 연료분사기능
- 엔진고장시 즉시 그 내용을 알려주는 자체 고장진단기능
- 최첨단의 소음차단 설계로 쾌적함을 주는 NVH성능
- 엔진의 안전성을 극대화시킨 공회전 속도 자동제어 기능
- 진동을 대폭 줄이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는 新형상 타이어

NEW SEPHIA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세피아 1.5 DOHC MT 5단(1,498cc, 1,059g) 15.97km/ℓ 2.5등급(4년, 1,400~1,700cc)
• 세피아 1.5 DOHC AT 4단(1,498cc, 1,085g) 12.35km/ℓ 2.5등급(4년, 1,400~1,700cc)
• 세피아 1.5 SOHC MT 5단(1,498cc, 1,015g) 15.77km/ℓ 2.5등급(4년, 1,400~1,700cc)
• 세피아 1.5 SOHC AT 4단(1,498cc, 1,060g) 12.58km/ℓ 2.5등급(4년, 1,400~1,700cc)
• 효율적인 사용방법 급출발, 급제동을 하지 맙시다.

사 설

불교방송 이제 거듭나야

으늘날 방송이 일반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불교의 교리상 진리는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지만 오랫동안 그 마음을 전하는 수단은 말이었다. 대중매체로서의 방송과 불교적 가르침의 결합은 불교의 포교와 대중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불교방송이 창사 이래 5년동안에 우리의 생활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불교방송에서 일해 온 방송인들의 노력도 컸지만, 방송 그 자체가 갖는 현대사회적 의미가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종교에서는 일주일마다 한번 이상씩 정기적인 예배시간을 가져 모든 소속교인들이 함께 모여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나 불교인의 경우에는 대체로 정기적 종교활동보다는 개인적 신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송을 통한 종교문화의 형성은 오히려 다른 어느 종교보다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교방송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면서 나름대로 비불교적 요소를 거둬내고 불자들의 신행을 바르게 이끌어온 성과는 방송포교의 중요성과 역량을 가늠케 한다.

텔레비전의 출현과 더불어 그 존재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라디오 방송은 오히려 사회의 여론주도층으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는 매체가 되었다. TV시청에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계층이나, 수험생등 특수집단에서는 오히려 라디오를 주요한 방송매체로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여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불교방송은 올봄에 개국한 부산·광주국에 이어 대구·청주지방국 설립(5월19일 인가)을 눈앞에 둠으로써 전국적인 라디오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개국 5년만에 전국방송망을 구축하게 된 셈이다. 물론 기독교계 13개 채널에 비하면 불교의 5개 채널은 열세이다. 이점에 대해 월주스님은 정부의 편향정책 시정을 촉구하면서 당초 요구했던 대전·전주·춘천·창원·제주·강릉국 허가를 강력히 요청할 뜻을 밝혔다는 소식이다.

이같은 여건과 기반위에서 불교방송의 당면과제는 부산·광주국 개국을 거울삼아 대구·청주지방국 개국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방송의 질적향상에 매진하는 일이라고 본다.

최근 공개된 한 청취율조사에 의하면 BBS의 프로그램들이 일반 청취자들의 청취의욕을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교방송이 전문성과 대중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기도 하다.

BBS는 포교매체의 특성을 살리면서 불교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종교적 신심을 가지고 방송에 임하여야겠다. 방송을 하는 목적 자체가 불교적 메시지를 전파하는데에 있으므로 방송인 스스로 종교적 신심에 투철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정보사회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추세를 방송에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총아인 방송이 명실상부한 시대의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불교의 정보사회적 적응과 혁신을 선도해주길 바란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불교사회가 종교적 공동체로서 유대감을 가지고 도반의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불교인의 연결망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국5년에 전국망 구축. 여기서 BBS는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과제앞에 교계의 현안인 '불방사태'는 하루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그간의 경험을 도약의 발판대로 삼아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을 전국 방방곡곡에 전할 수 있다. 이 대작불사를 위해 BBS와 불교계는 세계최초의 불교방송 설립에 가슴 설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불민협 공명선거감시단은 5월30일 발대식 후 조계사를 들러 제일은행본점까지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한국운전불자회와 BBS교통통신원들은 차내에 부정선거 신고함과 각종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선거의 파수꾼으로 나섰다.



열 린 마 당

공명선거 감시

필연적 선택, 그러나 현명해야할 선택. 6·27 지방자치 선거를 20일 앞두고 불교계가 공명선거 파수꾼으로 나섰다.

불민협은 지난달 30일 '불교시민단체 캠페인 및 공명선거 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100여개의 감시수칙을 마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본지 30호 15면〉

또한 전국11개지역 한국운전기사 불자회와 서울 BBS 교통통신원들이 공명선거 감시운동 의지를 표명하며 차내에 선거부정 신고용 우편엽서와 공명선거홍보물을 비치, 참일꾼을 뽑는 선거혁명에 전 불자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대구불교청년회와 속초불교청년회도 깨끗한 선거의 감시자로 나섰다. 〈편집자 주〉

참일꾼을 뽑읍시다



덕심스님

앞으로 다가올 6·27지방자치 선거가 우리사회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자치 시대를 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올바른 일꾼을 뽑기 위한 우리 불교도들의 신중하고도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시민단체협의회는 우리 불교도들이 지방의 의정참여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지금까지 불교도들이 보였던 정치 무관심을 타파하고 올바른 공명선거를 이루고자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처해있는 분단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민주 복지사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를 통하여 민족 내부에 증폭되어 온 증오와 갈등은 6·27 공명선거를 통해서만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지역주의와 학연, 혈연, 금권, 관권에 의해 선거의 결과가 좌우된다면 우리 민족과 국가의 앞날은 지역감정과 끝없는 경쟁만이 계속되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정종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를 배척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할 일꾼을 가려내기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공명선거감시단을 만드는 것도 공명선거를 이룩하기 위한 자원봉사 참여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공명선거 달성을 위해 2천만 사부대중의 부릅뜬 두 눈이야 말로 우리의 진정한 주민자치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임을 불자들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민협 정책실장〉

감시단 발족 '사천왕' 다짐
자원봉사·연고주의 배격

공명선거감시단 발대선언문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사는 민주적인 정치·경제공동체가 인류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회체제라고 가르쳤다. 2천만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모든 정당과 입후보자들은 정책대안을 전폭 수용하여 공약할 것을 촉구합니다.
- 모든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을 최우선하여 지지, 투표합시다.
-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별, 분야별 정책캠페인과 공명선거감시에 적극 동참합시다.
- 불자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고 지방자치에 적극 참여합시다.
- 특정종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를 배척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할 일꾼을 뽑읍시다.

공명선거감시단 735-5558

감시수칙

연고주의 배격합시다
-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는 선거중립을 지킵시다
- 후보자를 초청하여 정책을 들어봅시다.
- 선거기간중 연고모임에 참석하지 않기로 합시다.

정책보고 선택합시다
- 후보의 경력을 볼 때 청책의 공적이나 실패의 경력을 살펴봅시다.
- 지역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공약을 적극적으로 요구합시다.

선거부정 고발합시다
- 향응제공은 무조건 신고합시다.
- 전화기 옆에 747-9898(공명선거감시위원회)를 적어둡시다
- 공명선거 스티카를 승용차나 대문앞에 붙이고 이웃에 권합시다.

자원봉사 참여합시다
- 자신의 선거구 후보자를 지정하여 모니터를 합시다.
- 우리정책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합시다.

이렇게 감시합시다



문영호 회장

이번 선거에는 광역, 기초의회의원과 단체장을 포함하여 5만여명의 후보가 난립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 가운데는 명예나 개인사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출마하는 등 자격이 의심스러운 이들도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옥석을 가리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부터 진행되어야 하겠다. 바로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활동이다.

불법 고발 엽서 차내 비치
옥석 가리는 일 불자의 몫

불자들도 공명선거감시활동에 앞장서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먼저 시민의 발인 불자택시기사들의 활동이 기대된다. 택시는 여론형성에 큰 역할을 할수 있고 곳곳을 운행하며 지역내 각종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국 운전기사연합회가 발행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법 타락 고발엽서를 차내에 비치, 운행중 목격되는 각종 불법사례를 그때그때 고발하도록 해야겠다. 또한 선관위에서 제작한 각종 공명선거 홍보물도 차내에 비치하여 승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불자들이 선거운동에 모범을 보이는 것은 불자된 도리이자 훌륭한 포교가 되기 때문이다.

공명선거 감시활동은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도덕성이 요구된다. 감시활동이 편협되어서는 안되겠다. 철저한 공명선거 감시활동이 졌을때 깨끗하고 유능한 인물이 당선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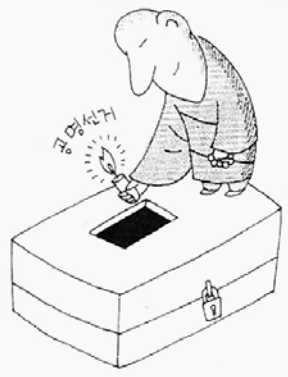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갖가지 사회적 비리와 권력형 행정부패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개혁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여법하게 치루어 지도록 불자 모두가 사천왕이 되자.

〈전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현대만평

박 구 원



감시

불교는 아름답다!

세계불교문화전

기간 : '95.5.2 – '96.1.31

고색창연한 3천년 불교의 역사 —
세계 속에 살아숨쉬는 찬란한 그 황금빛 문화가
고스란히 자연농원에 모여들었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중국, 네팔,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등
세계각국의 불교문화가 쉽고 재미있게 다가올
자연농원 세계불교문화전 —

부처님 진신사리에서부터 성철스님 유품에 이르기까지 –
황홀하고도 흥미진진한 불교문화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버너사용을 금지합니다
※도시락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드실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자연농원에 입장시킬 수 없으니, 집안 애견의 털, 예방주사에 주의 바랍니다
※주차는 표시된 곳에 주차하고 고장차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어시장 이용시나 입장료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7개국 국보급보물 3백여점이 한자리에 –

세계의 경전, 승복, 불교문화용품 및 생활용품, 불화, 불상, 고승유품, 불교유물 등 전세계 희귀불교문화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 인 도 : 석가모니 진신사리 5과, 사리함 외 9점
- 태 국 : 마하출라롱콘 성가대학박물관의 불상 외 20점
- 미얀마 : 쌍둥이불상, 마불상 외16점
- 대 만 : 키오송 불광사 박물관의 달마상 외 14점
- 티 벳 : 보드낫트사원 미니어처 외 30점
- 한 국 : 성철스님 유품, 서산·사명대사 유품 외 130여점 등

"경이로운 불교의 세계를 만난다!"
"석가모니 진신사리 최초공개!" 석가모니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성철스님 유품관
"한국불교의 진수를 맛보세요" 한국관
"대륙 불교문화의 장대함을 느낀다!" 중국관
"신비로운 남방불교가 다가옵니다" 미얀마, 태국관
"불교의 고향을 찾아서 –" 인도, 네팔관
"불교문화의 향기 속으로 떠나는 영상여행" 불교영상관
"옮겨올 수 없는 유적은 담아왔습니다!" 불교유적사진전시관
"사는 모습은 달라도 佛心은 하나!" 생활, 풍습관
"전세계 불교상품들이 한자리에 –" 상품관

자연농원
문의처 : 단체안내(02)745-0492 (0335)30-3002~6
일반안내(02)204-6171~4 (0335)30-3114

10,000여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국내최대 무료 주차장 완비
도로혼잡시 분당, 광주 경우 국도나 수원T/G경유 용인국도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서울지역〕 경남관광739-0011/금성관광741-2201/금호관광730-8811, 삼성동공항터미널551-3737/동양고속관광753-0011/대원관광764-7788/고오롱관광830-1345/스마일관광730-5111/천일고속관광735-1001/조원관광479-0301/티미널관광703-5858/현대관광762-5136/한남관광734-4141
강남고속터미널영동선, 남부시외버스터미널,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 수시출발 〔경기지역〕 인천 : 제진관광762-8000/부천 : 황룡관광664-6666/수원 : 은동선관광45-3700, 수원역600번좌석, 66번시내버스/성남, 분당 : 67번 시내버스

시 론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자

요즘 주한 미군병사의 범죄문제가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주한 미군병사들이 공무 이외에도 한국사회에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범법행위를 하거나 범죄행위 혹은 한국인에 대한 불법적 가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률적 처리에 관한 한국과 미국 두나라 사이의 국제협정으로 한미행정협정(1967)이 있다. 따라서 그에 따라 사안이 적절하게 처리되면 그만이라는 형식적인 논법도 있을 수 있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미 행협 개선 마땅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이 나라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자국민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그것이 누구에 의해 자행되던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미군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적법한 법적용과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미군의 주둔이 한국의 방위와 관계가 있고 안보에서 미국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협정 내용에 있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 혹은 필리핀과 같은 나라보다도 매우 불리한 점을 아직까지도 감수하고 있다. 특히 미군병사의 범죄에 대한 수사·소추와 재판, 처벌에 이르는 형사재판권의 행사에 있어 일방적으로 미국에 위임 내지 포기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그래서 그런지 미군병사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암적 요소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근자에 이를수록 더욱 흉폭해지고 있으며, 빈발하고 있다. 연일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며 비난해도 시원하게 처리한 사건이 없다.



한 상 범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자존을 지키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조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미국은 대국으로서 여타 국가의 경우처럼 상호호혜평등한 조약을 체결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전세기의 패권주의는 사라진 지 오래다. 각 국가는 상호간에 최대한 존중하면서 인류의 공존공영을 위한 노력에 합의하였다. 이것이 UN의 정신이며, 이러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미국 또한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유독 불평등조약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아니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약소국가라 하여 업수이 여기는 일이든지 극력을 앞세운 구시대의 식민제국주의 내지 패권주의의 향수를 즐기는 것이라 항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의 오랜 우정과 친교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이제는 미국이 앞장서서 작금의 불평등조약을 해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가슴 아픈 오늘의 현실은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열등감에서도 기인했다는 점을 또한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허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민족임을 자랑하면서도 미국 내지 서구문화에 대한 맹목적 동경만을 해왔으며, 그러한 결과 서구의 퇴폐문화가 마치 이나라의 새로운 대중문화인 것처럼 전도되어 있다. 자존과 주체성의 상실은 국적없는 대중문화를 양산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이민족의 압박과 멸시를 감수하게 된 것이다. 누구라도 이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녕 문화민족의 전통과 가치를 대중의 삶 속에서 잉태·발전시킬 때 세계 속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민족이 되리라 본다.

미군병사들이 주재국의 국법과 사회윤리를 무시하고 폭행·강간·절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약소국의 서러움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 이 나라에 입국하여 잘살아보겠다고 피땀 흘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학대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인간이 지닌 이중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우리들이 당하는 부당함만 외칠 것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입국하여 3D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대우할 수 있는 기풍을 조성하고 국민성을 바꿀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는 개방되어 특정한 인종과 종교, 이념에 지배당하지 않는 시기가 되었다. 민족도 국가도 공생과 공존의 대전제 앞에 녹아들고 있다. 인간의 지역, 집단이기주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뿐이다. 가치의 고저와 힘의 우열을 논하기에 앞서 인간이란 서로 불가분의 관계 속에 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세계는 하나의 꽃

따라서 지배와 피지배의 논리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전체주의 내지 패권주의의 사고에 다름 아니다. 온전한 지성 속에선 오직 형제애의 두터움 밖에 존재할 수 없다. 부처님 말씀처럼 세계는 하나의 꽃일 뿐이다. 역할에 따라 인연에 따라 각각 오늘의 모습을 향유할 뿐이다.

이제 우리는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나 국제관계의 개선이란 차원도 전제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민족적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면서 동등한 가치의 인간과 인간이라는 관계 속에서 한·미 행정협정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적어도 힘의 논리 보다는 이성의 논리가 앞서는 양식있는 국가들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교육 개혁 불교계 반응

불교이념과 부합…실천에 역점

종립학교 개성 살리는 교과목 개발해야

과열과외·치맛바람 잡기 다함께 동참을

국·공립대 본고사가 폐지되고 고교평준화가 사실상 해제 되는등 새로운 교육지표가 나왔다. 지난달 31일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은 기계적인 교육제도를 인성·전인교육의 차원에서 대폭 수정한 것으로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기능 자체를 개선한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종교가 신교육체제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교계의 교육학자, 일선 종립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 봤다. 〈편집자 주〉

▲설조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장〉=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동안 우리네 교육은 너무 지식위주 입시위주였다.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특별·봉사활동을 통해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겠다는 교육개혁 조치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길 바란다. 불교 종립학교들도 이번 대교육개혁에 맞추어 부처님이 일찍이 펴보이신 근기에 맞춘 다양하면서도 개성을 살리는 전인교육을 펼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일면스님〈광동학원 이사장〉=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 가운데는 자립형 사립학교에 대해 평준화를 해제, 학생선발권, 등록금책정권을 준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수익용재산을 확보하고 재단전입금 규모에 따라 자립형 사립학교가 될 수 있다. 아쉽게도 불교계는 자립형 사립학교가 없다. 건학이념을 살리기 위해 종립학교들도 자립형 사립학교가 되도록 방안을 모색해야겠다.

▲박선영교수〈등국대, 교육학〉=부처님 가르침의 방법론적 근본원리는 대기설법이다. 또 교육의 목표는 자신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도덕입법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개혁안의 큰 취지인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는 불교의 교육이념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혁안이 아무리 이상적인 것이어도 한 학급에 50명이나 되는 현실에서 그 이상을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 교육재원의 확보 우수교원의 유치는 여전히 쉽지 않을 과제로 남는다.

▲이근우교장〈평택 청담종고〉=전인교육·인성교육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래지향적으로 마련된 것은 늦게나마 잘 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청담종고는 이미 학교의 특색과 생활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어 왔었다. 종립학교로서 자비실천의 길을 가르치는 것은 전인교육과 다를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난사람' 보다는 '된사람' 만들기에 더 큰 비중을 둘 생각이다. 특히 효행과 봉사, 개인의 취미살리기등에 다각적인 프로그램의 개발도 계속해 왔었던 만큼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환〈전국교법사단 단장〉='열린 교육·평생학습사회의 교육복지국가 구현'을 목표로 한 이번 교육개혁은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불교의 인성교육 사상과 잘 조화될 것으로 본다.

종합생활기록부를 내신자료로 활용하는등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이번 개혁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식위주의 전문인양성 교육제도에 인성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을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익채〈부산 금정중 교법사〉=5·31 교육개혁안은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된 것 같다. 국·영·수의 비중이 여타의 과목과 비슷해져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개성있게 발전시킬 수 있고, 종합생활기록부를 통한 전반적 평가로 성적은 물론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증폭됐다. 이는 종립학교의 책임과 소임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현재 종립학교 특징적 프로그램인 명상의 시간과 수련회를 활성화해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기세찬〈장충중학교 교사〉=교육개혁이 자율과 개방에 뜻을 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의 현실적 여건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 실질적 효과는 의문시된다. 특히 한명의 교사가 많은 수의 학생들을 굉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다 더 신뢰성 있는 교육여건 개선이 선행되었다면 이번 교육개혁은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주선영〈학부모, 용산구 용산동〉=고3 수험생 아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올바른 교육개혁의 추진을 기대한다. 우리의 아이들은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수학공식과 영어단어만을 외우는 공부하는 기계처럼 생활하고 있다. 이번 교육개혁을 계기로 불법과외와 치맛바람이 근절되는 올바른 교육실현에 종교계도 관심을 기울여 종교활동을 통한 정서순화 등에 한 몫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한통노조 조계사 농성일지

개혁종단이 들어서면서 대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조계종이 종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통신 노조사태의 악화원인이 어디 있든 조계종 총무원은 보호를 요청하는 노동자를 '절집안'의 전통에 따라 농성장을 제공하고 나아가 적극 중재에 나섰다는 점에서 화해와 평화를 근간으로 하는 종교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8시 30분 한국통신 노조 양한웅 지도위원 등 간부 7명은 노조간부의 중징계방침 철회와 수배해제 등을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이 시작되면서 교계의 관심사는 조계종이 적극 보호 또는 중재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지난해 전국철도노동자 농성때처럼 소극적 대응을 할 것인가에 모아졌다.

조계사에서 한통사태가 시작된지 6일동안 불교인권위, 실천승가회,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 대불청, 대불련, 범불교재가연대회의, 경불련을 비롯한 각 불교단체는 일제히 공권력 투입반대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정부의 합법적 노동운동 탄압 중지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조백제 한국통신사장 등 정부 당국자들의 농성자 해산 요청이 잇따르는 등 정부의 강경방침과 한통노조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됐다.

사태초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던 조계종이 29일 상오 종무회의를 거쳐 공권력 투입에 적극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는 한편, 덕신스님(조계종 문화국장)이 조백제 사장을 방문, 모든 문제를 대화로 원만히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로 전환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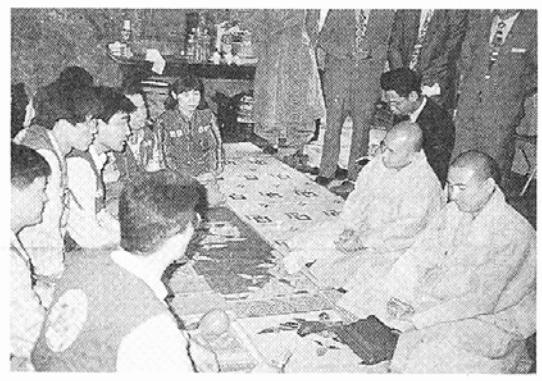
이와는 달리 같은 날 김도언 검찰총장이 불법쟁의에 대한 강경대처방침을 밝힌 특별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30일 이택순 종로경찰서장이 조계사를 방문, 사전구속영장과 긴급구속장을 제시하며 노조간부의 신병인도를 요청했으나 조계사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초읽기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5월안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던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31일 오전 11시 안병욱 서울경찰청장이 조계사를 방문, 월주 총무원장스님과의 면담을 통해 공권력 투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계종 종책개발연구회와 중앙종회의원 46명의 스님들도 공권력 투입 반대와 대화로써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 진념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원만한 사태해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계종의 노력은 계속됐다.

조계종의 이와 같은 확고한 태도와 일련의 중재노력은 지난해 전기협 노조사태때 몸을 사린 태도와는 달리 불교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결집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달라진 조계종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27일 간부 7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28일 불교단체 공권력투입 반대 성명
29일 조계종 한통사장 방문 대화 중재
30일 경찰 영장제시 신병인도 요청
31일 경찰 '공권력 투입 않겠다' 밝혀
1일 조계종 노동장관 면담·종회 성명



◇총무원 청사앞에서 단식농성중인 한국통신 노조간부들.

한명우 기자

공 고

불기 2539년도
대한불교 경승단 연수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는 경승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일부 결원된 경찰관서의 경승 충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승 연수교육을 실시하오니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회 일정** : 불기 2539년 6월 23일(금) ~ 6월 24일(토)
■ **연수회 장소** : 경기도 화성군 신흥사 ☎ (0339) 57-2695
■ **연수대상** : 전국 경찰관서 소속 경승, 신규 경승 지원자
■ **연수교육비** : 5만원(교육비, 교재비, 식비 등)
■ **연수교육후,** 경승활동이 미진한 곳은 해임하고 신규 경승을 위촉할 예정임

▷ 미리 접수받습니다 : 전화나 편지로 6월 17일까지(부득이한 경우, 당일 접수 가능)
Tel (02) 720-7060~4
Fax (02) 720-7065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참조 : 6월 23일 오전 10시까지 조계사에서 모여 함께 출발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화성 신흥사에 12시까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39년 6월 일

대한불교 경승단 총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 월 주

맑은 마음 / 좋은 벗 / 깨끗한 땅

정토수련원 '95여름수련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 1리 118번지
전화 : 0581)71-6031 전송 : 0581)71-6030

정토수련원은 매 순간마다 깨어 있고 자타가 둘이 아님을 알며 이웃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임원하는 맑은 마음을 지닌 미래사회의 새로운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토수련원은 자신을 잘 바라 보는 것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기쁨 속에서 서로를 나누며 교감하여 하나가 되는 좋은 벗을 지향합니다

모든 수련은 반드시 사전 접수합니다. 단체참여도 가능합니다

정토수련원은 일과 수행의 공동체로서 자신이 체험한 진리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현해 보려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능사를 지으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공동체로 깨끗한 땅을 일구어 가고자 합니다

정토수련원은 정신 집불 주력 간경 참회 등 불교의 각종 수행법에 따른 수행지도 및 점검받을 수 있는 불자들의 열려 있는 장이고자 합니다

모든 수련은 오후 4시에 시작하여 정오에 끝납니다

특별단체수련
● 어린이 환경캠프
제1차 7.24(월)- 27(목) 3박4일 국민학생
● 청소년 수련
제4차 7.27(목)- 30(일) 3박4일 중 고 생
● 대학생 수련
제1차 7. 7(금)- 8(토) 1박2일 대 학 생
제2차 7.12(수)- 13(목) 1박2일 대 학 생
● 청년 수련
제6차 8. 2(수)- 5(토) 3박4일 청 년
● 일반신도수련
제5차 8. 5(토)- 6(일) 1박2일 일반신도

깨달음의 장
제81차 6.21(수)- 25(일) 4박5일 일 반
제82.83차 7. 3(월)- 7(금) 4박5일 대학생
제84.85차 7. 8(토)- 12(수) 4박5일 대학생
제86차 7.13(목)- 17(월) 4박5일 일 반
제87차 7.14(금)- 17(월) 3박4일 직장인
제88차 7.19(수)- 23(일) 4박5일 일 반
제89차 7.24(월)- 28(금) 4박5일 중,고생
제90차 8. 2(수)- 6(일) 4박5일 일 반
제91.92차 8. 9(수)- 13(일) 4박5일 일 반
제93차 8.16(수)- 20(일) 4박5일 일 반
제94차 8.23(수)- 27(일) 4박5일 일 반

나눔의 장
제31차 6.13(화)- 18(일) 5박6일 일 반
제32.33차 7. 3(월)- 7(금) 4박5일 대학생
제34차 7. 8(토)- 12(수) 4박5일 대학생
제35차 7.18(화)- 23(일) 5박6일 일 반
제36차 8. 8(화)- 13(일) 5박6일 일 반
제37차 8.22(화)- 27(일) 5박6일 일 반

진언명상
제 7차 7.13(목)- 17(월) 4박5일 일 반
제 8차 8.16(수)- 20(일) 4박5일 일 반

염불수행
제 3차 7.25(화)- 29(토) 4박5일 일 반

접수 및 문의 : 정토수련원(전화 : 0581-71-6031) 중앙불교교육원(전화 : 02-522-2841, 02-582-1080)



천태종 상월 대조사 21주기 열반대재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지난 26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상월 원각대조사 제21주기 열반대재'를 2만5천여명의 승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했다.

총구부장 김도원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열반대재에서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대조사님의 숭고한 가르침을 되새겨 종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 종도들이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송월스님 칠순기념 선화 특별전

송월스님 칠순기념 사군자·선서화 특별전이 지난달 31일에서 6월6일까지 백상갤러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31일 열린 개막식에는 석주스님(칠보사 조실)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해인사 주지)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 법종스님(보문종 부원장) 송석구 총장(동국대)등과 문도회등 50여명이 참석 전시회 개최를 축하했다.



양천구민 체육센터 개관식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이 양천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는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상륜스님) 개관식이 지난 1일 체육센터 앞마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종회의장 설정스님, 혜춘스님, 광우스님, 법장스님, 종실스님, 김승규 양천구청장 등을 비롯 지역주민 1천여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에 이어 월주스님을 비롯 참석자들은 체육시설을 함께 시찰했다.



'동국대 동문연예인초청' 간담회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30일 오후6시 타워호텔 랙스홀에서 동문 연예인 초청, '동국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석구 총장 장한기 문화예술대학원장 김흥우 연극영화학과장을 비롯 동문 연예인 유현목, 박규채, 이덕화, 홍학표, 김형곤, 채시라, 신혜수 ,이경실, 김민희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동국대 연극영화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광주 수도사 대웅전 기공식

경기 광주 도척면 소재 정수산 수도사(주지 혜문스님)는 지난달 29일 오전11시 대웅전 중창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계종 전 사회부장 도각스님과 포교국장 화암스님을 비롯 목아불교박물관 박찬수관장, 동대 문화예술 대학원 총학생회장 신성일씨, 박혁규 도의원, 김학서 군의원, 여광혁 광주군수등 각급 기관장 및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공해없는 세상' 5집 출판기념회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은 지난달 29일 서울호텔에서 계간(공해없는 세상)5호 출판기념회 및 신임간부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덕심스님 목정배교수 월주스님 법타스님 정현스님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월주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사상과 환경보존에 대한 교리적 연구와 개발, 실천운동을 공추불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지속적인 환경운동을 당부했다.



동국대 불교미술전 · 학술 대회

동국대학교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개설기념으로 마련된 '제6회 불교미술전 및 제1회 학술대회'가 지난달 31일 인사동 백상갤러리에서 개최됐다. '현대불교미술의 진로'의 주제아래 학술대회를 겸해 열린 이번 제6회 불교미술전에는 도문스님, 송월스님, 덕신스님, 송석구총장(동국대), 장한기교수, 김성호관장(불교미술관)과 미술계 인사, 동대 미술과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교 차 로

사월회 조찬모임서 강연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월회 회장 주최 조찬토론회에서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주제로 강연했다.

사굴산문 유적지답사



홍선스님(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장)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고려 중·후기 선종사의 흐름을 찾는 사굴산문유적지(경북·전라지역)에 대한 제4차 정기 불적답사를 실시했다.

개금복지관 관장에 취임



범산스님(부산 영주암 주지)은 지난달 20일 개금사회복지관의 새 관장에 취임했다. 개금복지관은 관내에 치의료 시술용 기계를 설치, 지난달 28일 무료진료원 개원식을 가졌다.

종회 사무처장 서리



화범스님(봉선사 기획국장)이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서리로 임명받았다. 운산스님을 은사로 지난 1964년 득도한 화범스님은 부석사주지, 수덕사 총무, 총무원 사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보로보드르 불적 답사



황수영교수(전 동대총장), 이영배 명예교수(서울대 기계공학과), 안장헌교수(신구전문대 사진과), 이기선소장(조형불교연구소), 차차석 부장(본사 조사자료부)은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로 출국, 보로보드르등의 불적답사를 마치고 6일 귀국했다.

중국 학술원과 교류협의



서돈각이사장(대한불교 진흥원)은 지난 4일 중국 학술원과 한국학술원의 교류증진을 위해 중국 북경으로 출국했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상범 교수(동국대 법대)는 지난달 26일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새 회장으로 뽑혔다.

'사람의 건강은…' 출판



덕일정사(진각종 최정심인당 주교)는 최근 '사람의 건강은 배에 있다'를 번역, 미리언 출판사에서 펴냈다.

신라문화 학술회의 열어

김갑주교수(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장)는 지난 1일 '신라 상고기(上古期)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14회 신라문화학술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하대 서영대교수의 '신라 상고기의 종교'등 논문 4편이 발표됐으며, 경주 황성동고분의 발굴 설명회도 있었다.

국제난민대책 세미나 참석



김재일회장(불교기아도움기구 회장)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외무부 안보교육연구원에서 열린 국제난민대책 UN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12개 민간단체가 참석, 국제난민 규정과 UNHCR조약등을 논의했다.

통계청 부이사관 승진



김경복회장(대한불교 달마회)이 지난달 27일부로 통계청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종교사학회 학술발표회

류병덕교수(원광대 · 한국종교사학회장)는 지난 3일 충남대에서 '한국종교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춘계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정영근교수(서울산업대)의 '신라유식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등 모두 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현충일 맞아 독경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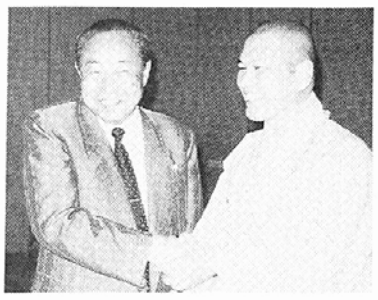
김재웅법사(금강경독송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일 현충일을 기해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독경행사를 개최한다.

소년가장에 운동화 전달

이호식회장(한국불교청년실업인회)은 18일 오전11시 관악산 관음사에서 관악구 관내 소년소녀가장 29명에게 운동화를 전달한다.

월주스님 訪北때 동행 희망

박태호 조불련 위원장 만난 지선 스님



월주스님이 이끈 한국참가대표단의 일원으로 지난달 22~23일 '한·중·일 3국 불교우호교류회의'에 참가했던 지선스님(전불련 의장, 백양사 주지)이 남북교류 실무접촉을 위해 북경에 온 박태호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불련 사무실에서 가진 교계 기자회견에서 스님은 "내가 묵고 있던 오주호텔로 찾아와 만났으며 공식방북 초청장을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지선 스님은 박태호위원장에게 "판문점에서의 행사를 고집하면 공동법회 개최는 힘들므로 다시 생각을 해 봐 달라"고 제안했다면서 "일체 정치적 사안을 뒤로 미루고 순수 종교행사로 해야 성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7월말 월주스님의 방북에 함께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민주주의 운동을 월주스님과 같이 하고 총무원장 당선에 일조한 사람으로서 원장스님이 적극 나서주고, 기독교·천주교 신부·목사 8명의 방북이 허가된 마당에 내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등행방북을 주장했다.

중국에 가보니 시장경제로 갈 수 밖에 없는 도도한 개방·개혁 분위기를 느꼈다는 지선스님은 북경대회가 끝난 후 곧바로 오대산에 가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올렸다고 전했다.

〈숙〉

이화 불교사 개업



박용근씨(이화불교사 대표)는 지난달 27일 오후5시 조계사 근처에 이화불교사를 새로 개업, 개업식을 가졌다.

스페인문학 강연회 마련



김호성법사(백화도량 상임법사)는 지난 9일 백화도량에서 문학평론가 김흥근씨를 초청, '스페인어 문학에 끼친 불교의 영향'을 주제로 학술강연회를 가졌다.

'서궁'에 스님역 특별출연

박용기씨(불교방송 방송위원)는 오는 7월 KBS 2TV 장녹수 후편으로 방송되는 '서궁'에 무불스님으로 특별출연한다.

'엄마는…' 연극 주연



김용림씨(탤런트)는 오는 7월9일까지 신촌 산울림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에 주연으로 출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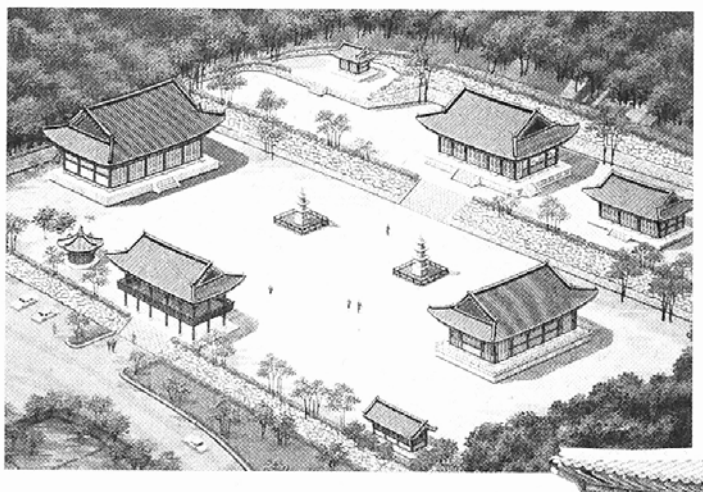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피할수 없는 묘지,지금 바로 영각사 극락 영묘전 회원으로 가입하십시오

『영각사 극락 영묘전(납골당)건립 기공식 행사』및 『BBS불교방송 백팔가요 특집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귀의 삼보 하옵고,
녹음이 짙어가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불자님들이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더욱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번 저희 영각사에서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장 장묘제도를 불교적 사회복지 차원에서 불교 전통의 장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고자 전국에서는 최초로 초 현대식 첨단 시설을 갖춘 극락 영묘전을 오는 6월 11일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큰스님을 비롯한 교계 대덕 큰스님과 내,외 귀빈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기공식을 갖게 되었읍니다.
아울러 『BBS불교방송 백팔가요 특집 공개방송』에 제방의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초대하오니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불기 2539년 6월11일(일요일) 오전11시
■ 장소:군자봉 영각사

제1부:기공식 행사
제2부:『BBS불교방송 백팔가요 특집 공개방송』
연출:유병직/구성:유재창/기술:진규삼
음악:BBS 박찬일 악단(12인조)
진행:김병조
출연:남진,김국환,편승엽,김영배,방실이,장미화,
김혜연,현숙,전미경,한서경,이청(총12명 출연)





■ 교통편안내
타지역 불자님들의 편의를 위해 안산역 광장에 안내원이 대기하고 있으며,차량은 오전9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수시로 운행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은 지하철 4호선 안산행 전철을 이용 하시면 됩니다.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신도님들은 종전과 같이 오전 9시40분부터 시내 전역을 운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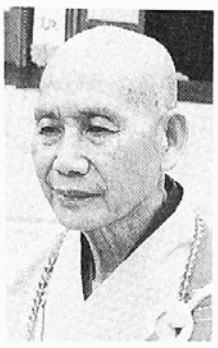
■ 참석하신 모든 사부 대중들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군자봉 영각사
주지 현 법 합장

●문의사항 주소: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산22-3번지, 전화:0345)498-7700~2, 팩스:0345)498-7703

육조혜능 주석한 남화사
주지 불원 스님 방한



육조혜능이 주석하며 법을 펼쳤던 중국 남화사 주지 불원(佛源)스님이 지난달 19일 화계사 보살계수계 법회에 증명법사로 참석키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남화사에는 혜능스님의 가사와 주장자 등 유품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전한 불원스님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육조스님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남화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조사스님의 진리를 이어받

"남종禪 살아있는 한국 불교에 감동"

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조스님의 등신불도 모시고 있습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불원스님은 통도사와 해인사 불국사를 참배했다.

"한국스님들의 투철한 수행정진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불교가 선불교의 정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불교의 친근함을 눈으로 볼 수 있어 기뻤다고 소감을 밝힌 불원스님은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한중불교가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지난달 27일 출국했다.

1941년 21세의 나이로 출가한 불원스님은 남화사와 운문사 주지를 비롯해 중국불교협회 상무이사 광동성정치협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운〉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보문지장회

"보살님 받으세요. 너무 고마워서 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수의 값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성의는 고맙습니다."

막무가내로 내미는 손님의 성의 표현에 끝끝내 수의값 외에는 받을 수 없다고 겸손해 하는 보살들.

요즈음 탄허불교문화재단 산하 신행단체인 보문지장회 회원들이 모여있는 삼일선원 뒷방에는 고마움을 표하려는 사람들과 그저 수행의 한 방편으로만 믿고 수의를 짓는 보살들과의 기분좋은 옥신각신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

"수의 만드는 공덕 이웃에 회향"

수익금은 스님 복지기금으로 활용



◇삼일선원 뒷방에는 수의 만들며 공덕 짓는 보문 지장회 보살들의 정성과 염원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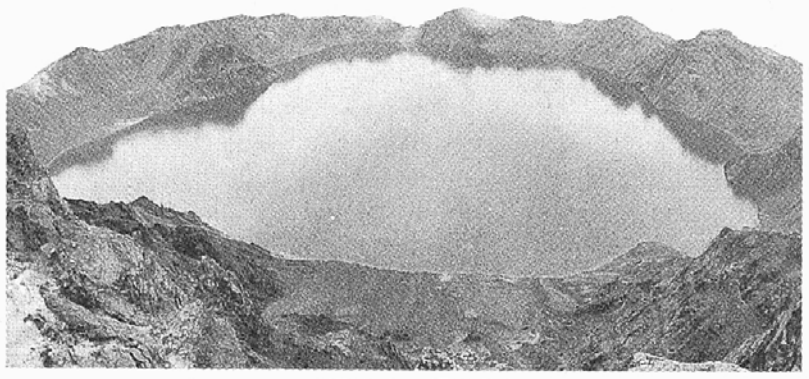
작년 10월부터 수의 만드는 공덕을 짓고 있는 10여명의 보살들은 매일 아침 9시면 나와 부처님전에 한결같이 합장하고 "일체의 잡념을 끊고, 지난날의 빚을 소멸토록 하여 주시며 오늘 지은 공덕은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소서"라며 간절한 예불발원을 올린다. 그리고선 보살들은 한땀 한땀 정성스레 수의를 짓기 시작한다.

수의를 만들기 위해 매일 어김없이 나오는 보살들은 일체의 댓가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이 먹을 쌀과 부식을 들고 나와 아플 겨를도 없이 일을 한다. 보살들이 하루 온 종일 만들어 내는 두건(모자), 면모(얼굴 가리개), 속바지, 속적삼, 겹바지, 겹저고리, 턱받이, 베개, 손톱·발톱·머리카락을 담을 주머니, 대님, 허리띠, 이불, 요, 버선, 두루마기, 그리고 이것들을 다 갖춰 입은 상태에서 시신을 싸는 장단에 이르기까지 20여개에 가까운 수의에는 보살들의 정성과 염원이 가득 담겨 있다. 한땀 한땀 정성을 실어 만든 수의는 일반 시중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미 1백50여벌이나 판매됐다. 수의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만도 1백여명이 넘는 실정이다. 그저 수의가 제 갈곳에 가기만을 바랄뿐 수의제작에 드는 실비외에는 일체의 대가를 마다하는 보살들은 어느 때인가는 자신들에게도 다가올 죽음을 오히려 기쁨으로 준비하고, 공덕을 나누며 그들의 노후를 스스로 아름답게 가꿔 간다.

눈이 어두워 바느질을 못하게 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보문지장회 박명혜회장은 "얻어지는 수익금은 지속적인 수의제작은 물론 스님들의 노후를 위한 시설마련 기금으로 쓸 예정이다"라며 무주상보시의 정성과 큰 사랑을 전했다. (02)238-5253

도필선 기자

신행수첩



◇민족의 성산 백두산 천지

자비로 꽃피는 호국불심 '군불교 후원회원 되자'

국토방위의 숭고한 사명을 띄고 정다운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젊은이들에게 종교가 주는 영향력은 일반 사회에서와는 비교할 수 조차 없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이는 평생에 걸쳐 이어진다. 60여만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군은 한국불교의 미래가 걸린 최우선 포교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군종법사 1인당 1만여명을 상대하는 턱없이 부족한 군종법사, 군법당, 군포교에 절실히 필요한 불교서적 염주 호신불의 부족 등 아직도 불교의 군포교는 어려운 실정이고 타종교에 비해 효과도 미약한 형편이다.

군포교의 제반활동을 지원하는 전문후원단체인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는 이같이 어려운 군포교의 현실을 극복, 궁극적으로 전 국군의 불자화를 위해 후원회원을 모집한다. 보람있는 불사를 위한 드러나지 않는 보시와 봉사의 참된 기쁨을 함께 할 불자들은 진흥회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후원회비 납부처=우체국 010025-0102390(예금주: 군불교진흥회), (02)749-8646.

전법에도 자격증시대 포교사 자격 고시 준비

현대사회는 자격증시대다. 즉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 우위시대인 것이다. 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오는 9월, 실시될 포교사(법사) 고시가 그것이다. 대중불교 생활불교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삼보사 부설 삼보학교에서는 금번 조계종 총무원에서 실시하는 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고등과(천수경, 반야심경)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오는 7일부터 7월28일까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며, 삼보사 주지 지원스님이 강의한다. (02)352-6406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월간정토 백두산기행

조상들의 얼이 살아 숨쉬는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월간 정토(발행인 법륜스님)는 7월23일부터 30일까지 '제2차 민족의 성산 백두산 및 발해 유적지 역사기행'을 마련한다.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이번 기행은 백두산 천지, 장백폭포, 고구려 환도산성, 국내성 광개토왕비, 발해 서고성등을 두루 돌아보게 된다.

한편 〈조선역사〉 〈고구려 발해 유적지 소개〉 〈반일투쟁 유적지 소개〉등 3권의 책이 답사기간에 발행돼 더욱 의미가 깊다. (02)573-0458

노인 우대하는 불국정토 '울타리 무료진료원' 개원

노인이 대접받는 사회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룩하고자 하는 불국정토가 아닐까.

지역복지사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범산스님)이 '울타리 무료진료원'을 개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건강을 살핀다.

개관이후 매주 일요일 노인들을 위한 무료진료활동을 펼쳐온 사단법인 불국토부설 무료의료봉사회인 울타리회의 전문의들과 함께 뜻을 모아 정식 개원한 울타리 무료진료원은 각종 치과질환과 노인질환 치료, 건강상담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051)893-5034

조계사 단오잔치 12일 민속놀이 다채

창포에 머리 감고, 오색치마 흩날리며 널 뛰는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가 그리운 때다.

조계사(주지 현근)는 오는 12일 단오절을 맞아 조계사 주변 어른들을 초청, 단오잔치를 연다. 조계사 신도회와 원심회, 청년회 후원으로 마련되는 이 행사는 1부 문화공연, 2부 민속놀이, 3부 대중공양으로 다채롭다. (02)732-2115



◇차밭기행단은 지리산 야생차밭에서 차잎 채취 요령을 듣고 차잎따기대회를 가졌다.

푸른차밭에서 속진 씻어내

본사 '지리산 차밭기행' 40여명 참가 성료

우리문화를 알고자하는 이들은 많다. 그러나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지난달 28일 현대불교신문 주관으로 우리 문화를 찾는 이들을 위한 작지만 의미깊은 자리가 마련됐었다. '지리산 차밭기행'.

전통차를 사랑하고 즐기는 40명의 차인들이 쌍계사참배와 함께 지리산 야생차밭을 방문했다. 차잎은 잎눈이 상처받지 않고 일창일기로 따야하는 것을 배웠다. 일일이 손으로 따야하는 엄청난 노동을 체험하며 그동안 마신 차가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지리산 차천지' 제다공장에서 직접 차잎을 덖어가며 제품으로 완성되는 것을 지켜봤다. 이렇게 제조된 차를 시음하다 보니 똑같은 차이건만 또다른 맛을 감지할 수가 있었다.

하루의 차밭체험기행은 차에 관한한 전문가가 되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우리문화체험기행은 새로운 기행문화로 신선하게 다가왔다.

게시판

▲자원봉사자 모집=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은 무의탁 노인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한 가사·반찬서비스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주 1회 3시간 봉사가 가능한 불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02)985-0161

인사 불교방송은 지난달 24일자로 일부 간부에 대한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강종훈 기획실장이 총무국장으로, 이광 보도국장이 보도위원으로, 최찬기 총무부차장이 기획심의실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화혼 이재숙 기자(법보신문사)가 오는 11일 정오 어린이대공원 A야외결혼식장에서 최중홍씨와 화촉을 밝힌다. (02)466-4978 (02)725-7010

금주의 주제

포교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불자의 의무' 가까운 이웃부터 교화

불퇴전의 신념으로 '부루나 존자' 돼야

불자들은 항상 포교를 해야한다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사실 성과적 측면에서 보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부처님께서는 성도후 깨달음의 즐거움을 혼자 간직하기보다는 모든 중생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운 후 갠지스강을 건너 녹야원에서 최초 설법, 5명의 불제자 교화를 시작으로 45년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하는 등 전법의 수레바퀴를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기독교의 경우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전도에 광적이다. 전도는 믿음의 실천이고 신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필수덕목으로 여겨 때와 장소에 구분없이 전도를 행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그러나 그만큼 전도가 곧 종교의 생명과 같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며, 극성일 정도의 전도가 기독교세의 급성장에 한몫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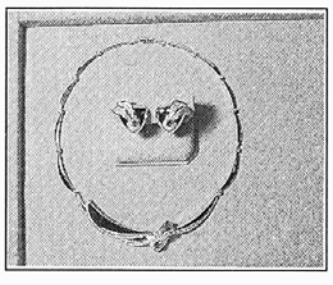
어린이 포교를 비롯 각종 지역 포교활동을 도맡아 하고 있는 진옥스님(여수 석천사주지)은 "현재 불교계는 몇몇 개인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대중의 요구에 비한다면 너무나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포교는 승속에 관계없이 불자라면 반드시 해야할 의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포교를 통해 한사람의 불자를 새로 만들 때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정법인화보살(보현사 신도)은 "포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포교에 있어 가장 큰 장애"라고 지적하고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포교의 대상이고 지금 있는 이곳이 포교의 도량이라고 여겨 먼저 따뜻한 손길을 펼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포교사다"라고 말한다.

포교활동을 '누가 하겠지'라고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해야 한다'라는 부루나 존자와 같은 포교에 대한 불퇴전의 신념을 지녀야 한다. 이처럼 포교가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것은 부처님의 무량무변한 법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깨달음(成佛)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더이상 불교가 한시대의 문화적 존재로 인식되거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포교로 치부되지 않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어우러져 '포교하기'라는 금강같은 원력을 세워 무소의 뿔처럼 용맹정진해 보자.

J·E·W·E·L·R·Y • 청 우 • C·H·U·N·G·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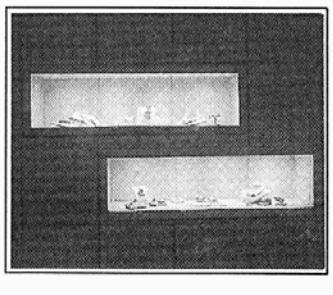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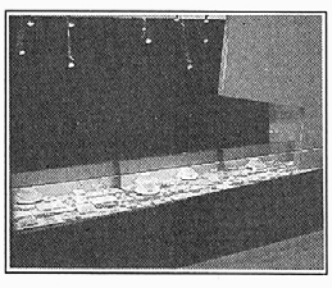
정보가 다양해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진 현대에 와서 사람들의 미에 대한 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석 디자인도 지니고 있는 사람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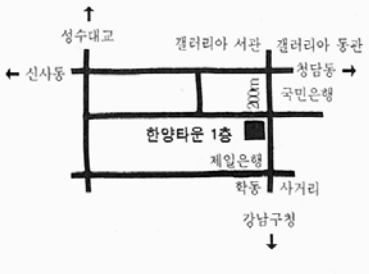
세련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청우'의 제품들은 서정적인 주제의 디자인과 독특한 예술적 감성표현이 그 특징입니다.

각 개개인마다의 독특한 스타일 캐치, 보석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 이것이 '청우'가 연출하는 이미지 창출방법입니다.





녹음이 짙어져가는 계절, 클래식한 우아함과 세련된 현대감각이 함께 어우러진 곳 청우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찾아보십시오.



'청우' 유자야 씨 전시경력

1971-1972 국전 사양화 부문 입선 20, 21회
1976 파리 니델재산 공모전 입상
1977 파리 Cite International des arts 주최 전람회 출품
1978 불란서 건국 사진 공모전 출품
1979 파리 프리마그 로지에 공모전 입상
1980 파리 화랑 전람회 출품
1977 불란서 예술원 공인 미술작가
1980.6 제1회 개인전(신세계 백화점 화랑)
1982 한국 공예가회 출품
1983 한국 공예가회 출품
1984 한국 공예가회 출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5-1, 2 한양타운 107호 / 우편번호 135-120 / TEL 3442-4434~5 1F, 7 Hanyang Town, Sinsa-Dong 665-1, 2 Kangnam-Ku, Seoul 135-120, KOREA

개발에 따른 유적훼손·재산권침해 예방

"古都보존법 제정 시급"

역사학대회서 발표…서명운동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문화유적을 보호하고, 경주 부여 등 고도(古都)거주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도보존법' 제정과 '문화재보호법'의 대폭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미술사학회(회장 강경숙)와 한국고고학회(회장 김병모)는 전국 10개 역사·고고학 관련 학회들이 '사료와 실증'이라는 주제로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한양대에서 개최한 전국역사학대회에서 '고도보존세미나'를 열고 개발로 예상되는 유적파괴를 막기위한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고도보존세미나'가 일부 경주시민들의 방해로 중단된 후 두달만에 재개된 것.

27일 열린 세미나에서 계명대 김종철교수는 '경주의 개발과 유적보존'이란 논문을 통해 일대 29만평은 경주지표조사 결과 고분군 7개소, 토기요지군 2개소 등 막대한 양의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신라시대의 대규모 취락지"라며, "데저와 오락을 즐기기 위한 경마장 건설 때문에 민족의 문화유산이 희생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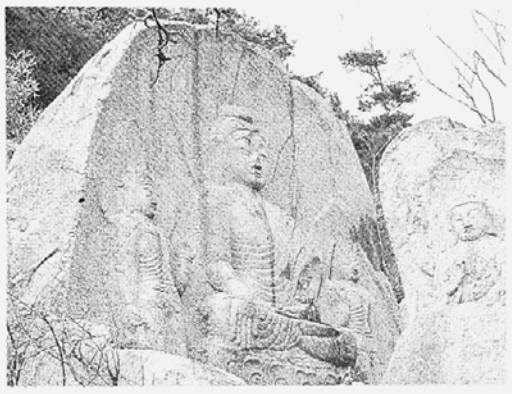
김교수는 또한 고속전철 경주구간(연장 7.3km)의 경우 경주시내 북서쪽~금장리·석장리(동국대 경주분교~선도산기슭~북녘들(경주驛舍 예정지)에 걸쳐 터널과 고가교(高架橋)가 지나게 돼 있어 신라의 성산(聖山)인 선도산과 남산의 유적경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노선에는 발굴이 불가피한 유적이 13곳,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유적이 29곳에 이르러 문화재의 대대적인 파괴가 예상되기에 경주노선의 도심통과는 피해야 한다는 것.

김교수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위해서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기능이 미약한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대폭 개정과 개발제한에 따른 시민의 불이익을 해소해주기 위한 세제혜택, 각종 보조금지급이 가능한 고도보존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남대 이강승교수도 '부여의 개발과 보존'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부여공설운동장 부지조성과 백제문화권개발계획은 능산리 고분군, 부소산 등 부여의 문화재 경관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경주나 부여 등의 고도지역에서는 광역개념으로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고도보존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38회 역사학대회에서 16개 관련 학회는 공동으로 고도보존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관련기사 17면〉

김재경 기자



◇경주 東南山의 칠불암 마애불 전경. 고속전철 건설로 남산과 선도산의 유적경관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경주 고속철·경마장 부여 공운건설 문제점 지적

"17세기 사원재건 왕실서 주도"

이강근교수 주장 억불정책 위배 소문없이 진행



"고려 수월관음도의 白衣 중국과 다른 독창적 표현"

경주대 이강근교수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열린 전국역사학대회 미술사부 세미나에서 '17세기 불교사원의 재건설'이란 논문을 통해 "양란후 17세기에 재건된 불전(佛殿)들은 소실되기 이전의 옛모습으로 복구해야 한다는 목표와 함께 불교의례, 장엄법식(莊嚴法式) 등 동시대적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야 했다"고 밝혔다.



◇이강근 교수

김교수는 이 시기 대규모 사원 재건역(再建役)의 주체는 왕실과 지방관료였지만, 숭유억불(崇儒抑佛)이라는 정부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실 외척과 집권 관료들의 주도하에 소문없이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선조대의 법주사 팔상전 재건, 광해군대의 해인사 장경판고 중영 등은 왕손의 창성을, 숙종대의 금산사 대적광전 창건 및 화엄사 장육전 중건 등은 세자의 탄생을 빌 목적으로 이룩됐다는 것이 이교수의 설명.

'불교환경운동' 세미나
8일, 조계사 불교회관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제23회 환경의 날(6월5일)을 기념하여 오는 8일 조계사불교회관 1층에서 '지방자치시대의 국립공원관리와 불교의 환경운동'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연다. (02)765-6324.

'21C 불교복지' 조명
9일, 사회복지재단

(사)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오는 9일 오후 1시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불교계 사회복지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위한 '지방화시대, 21세기를 대비한 불교계 사회복지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연다.

독립운동사硏 김순석씨 최초 규명

"조선불교단은 친일 단체"

日 재가자들 한인정신 동화 위해 조직

조동·정토종 관장, 친일파 거두들 외호

"1920년에 발족하여 1940년까지 활동한 조선불교단은 3.1운동 직후 일제의 친일파 양성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인들의 정신적인 동화(同化)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본인 재가불교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친일파들을 대거 망라해 조직한 친일단체였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김순석 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동 연구소 월례연구발표회서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친일 불교단체인 '조선불교단'의 전모와 성격을 최초로 규명한 '조선불교團 연구'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논문을 통해 "당시 한일 불교계의 거물들이 두루 망라되어 조직된 불교 외호(外護)단체인 조선불교단에는 일본 불교계의 조동종 정토종 등 각宗의 관장(管長)들과 친일 거두인 박영효 이완용 권중현 등이 고문으로 추대되어 있었으며, 최남선 이능화 한창수 한상룡 등 다수의 유력한 조선인들이 상담역(相談役), 이사, 평의원들로 참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선불교단은 한국인의 정신적 동화에 그 목적을 두고 각종 사업을 전개했으며, 특히 우수한 한국 학생들을 선발하여 일본에 유학시킴으로써 그들을 친일세력의 선봉에 세우려 했다는 것이 김씨의 분석이다.

조선불교단의 전신인 조선불교대회(1929년 10월11일 열린 조선불교대회와는 다름)는 1920년 9월에 출범, 같은 해 11월10일 경성 코심사(妙心寺)에서 이사회를 열고 동년 11월20일 경성호텔에서 발회식을 가졌다. 회장에 권중현, 부회장에 이원석, 총무에 고무라(少林源六), 이사에 나까무라(中村健太郎) 등을 선임했다.

김씨는 "1920년대 조선불교단의 활동상황을 고찰하면 일제강점 시기 불교계 뿐만아니라 한국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단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그들의 긍정적인 활동으로서 △지속적인 유학생 파견을 통한 교육기회 부여 △명사들의 순회강연을 통한 민중들의 의식계도 △을축년(1925) 대홍수 때 수많은 인명을 구제한 사실 등을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베풀었던 많은 혜택의 이면에는 식민지 총독정치를 찬양하는 매개자로서 한국인을 정신적으로 동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기사넘쳐 '한국사찰의 주련' 쉽니다.

아미타불·관세음보살 찾는 뜻은

문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으레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염송하고 귀의하는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수많은 제불보살 가운데 특히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 귀의해 온 데는 어떤 까닭이 있는지요? 그리고 마음공부와는 어떻게 다른지요?

〈이동일·인천 남구 학익동〉

답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때에 따라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들이 되고 사위가 되고 그러듯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도 다 이름입니다. 부처의 나툼인 것이죠. 그러기에 '한마음'할 때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 다 포함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다면서 아미타불 따로 찾고 관세음보살을 따로 찾는다면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아미타불은 서방극락세계의 부처님으로 무량수불·광명불의 의미가 있고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를 근본 서원으로 하는 보살의 명호로서 그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구제의 손길을 뻗친다고 합니다만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바깥으로 찾으면 그것은 공덕도 없고 마음공부도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참 나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둘 아닌 도리를 알고 그 나툼까지도 체득하라는 것이니 밖으로 찾고 밖으로 의지한데서야 가르침을 바로 따르는 길이라 할 수 없죠.

아미타불·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귀의하더라도 내마음 안으로, 근본의 한마음 자리로 귀의·귀영해야 할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몸없는 조상이 천도되는 까닭

문 사람의 육신이 떨어지면 그때의 의식수준에 따라 윤회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육신이 없으니 더이상 공부할 수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몸이 무너지고 없는 조상님들에 대한 천도의식이란 무엇을 뜻하는지요. 그 천도식을 통해 조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요?

〈김승동·카나다 토론토시〉

답 콩심은 데 콩나고 팥심은 데 팥난다고 하듯이 사람이 살면서 지은 업은 터럭만큼의 에누리도 없이 그대로 과보로 나타납니다. 인과의 철칙은 살아서도 못 벗어나고 죽어서도 못 멸하는데 사람이 몸 떨어지고 나면 살았을 때의 차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을 때 무서워 한 것은 죽어서도 무섭고 살았을 때 악한 마음 먹었으면 죽어서도 악한 마음 버리질 못합니다. 마치 마음이라는 거대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있어서 죽으나 사나 입력된 것이 어디로 안가고 그냥 솔솔 풀려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어디에고 걸림없이 통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끼리 마음과 마음이 통하듯이 산 자와 죽은 자 간에도 마음은 통합니다. 깨달은 사람이 영혼을 본다고 함은 어떤 고정된 모습을 보는게 아니라 살아 생전의 마음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도란 그 마음자리를 보고 보다 밝은 차원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육신이 떨어져 더이상 추가 입력이 안되는 영식은 장님인 셈인데 그런 장님을 눈 뜬 사람이 이끌어 주는 게 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도의식은 마음도리를 깨우친 분, 바로 눈뜬 분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한 마음으로 나와 조상, 나와 부처가 하나임을 믿고 마음 속에 밝은 인등 하나 켜놓는다면 그 간절한 마음이 조상님과 통하지 않을 리 없지요.

그런데 흔히들 천도재를 지내려면 상은 어떻게 차려야하고 돈은 얼마를 놓아야 한다는 둥 그런 것부터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일체를 한마음 자리에 맡겨 놓는다면 통근 떡하나, 촛불 하나라도 좋고 참으로 마음도리를 믿는다면 촛불하나 안 켜 놓아도 마음의 촛불 속에서 천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도재를 할 때 제도해 주는 부처님이나 인도해 주는 스님이나 조상님이나 내가 모두 한마음인 줄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만큼 거리가 멀어집니다.

말하는 이의 정체를 알고 싶은데

문 말하는 건 누가 하는가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생각으로 알아냈다는 것이 또 생각이고 그 생각위에 또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말하는 놈의 정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정동순·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답 그렇게 따지고 들면 진정으로 죽지 못합니다. 그렇게 영리해서야 어느 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나를 봅니다. 그러니 좀 쉬셔야 하겠군요. 아는 것이든 모르는 것이든 일체를 놓고 쉬어보세요. 좀 바보가 되어보란 말입니다. 바보가 되란다고 일도 않고 우두커니 앉아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를 굴려서 분별하고 사량해 보았자 마음의 샘물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거기, 영리하게 머리 굴려 알아냈다고 하는 것도 거기, 바로 나를 형성케 했고 끌고 다니는 공한 그 자리 주인공에서 나온 것이니 다시 되놓으세요. 놓고 또 놓으면 알 때가 있습니다.

신행과 수행심이 발현되는 〈대중불교〉를 만난다

지령 151호

북한불교는 살아있다 남북불교, 어떻게 합장할 것인가?
특별기획 지방자치시대, 어떻게 활용할까?
쇠북소리 시대착오병의 줄줄이 참사
시사 조계종 개혁 한돌을 돌아본다

생활불교 바른말 바라밀 1
수행으로 가는 길 외도선과 정법선
수행인께 듣습니다 진각종 유가심인당 혜정정사
나의 수행담 천지가 무너져도 천지는 여여부동

표지인물 불광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장 현재씨
직장불교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
포교의 현장 일산 신도시 원각사
포교당 일기 '오라 오라' 농장의 텃밭 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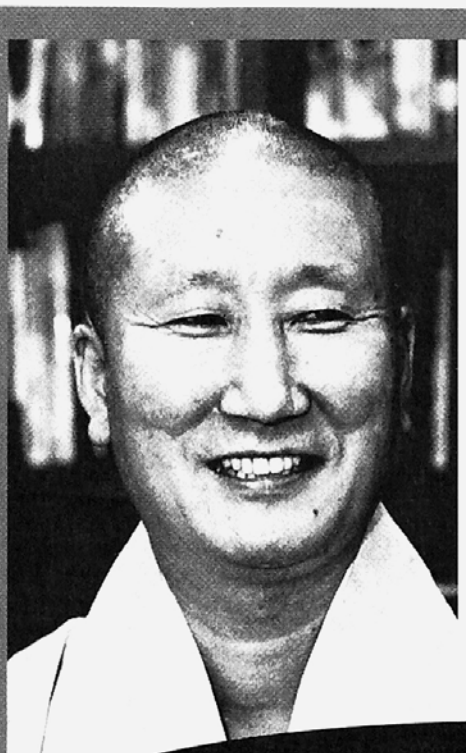
수행길의 이런 도반 해맑은 심성의 혜담 스님
봉주우르, 길상입니다 왕골 돗자리
환상의 땅, 티벳 티벳에 와 보셨나요?

불교교리 산책 업의 인과
에세이 보살불교 평화의 미륵, 구원의 미륵
법당 이야기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폐사지를 찾아서 경주 사천왕사지

권말부록 · 불교방송 교재 '교리강좌'

불교 정론지
월간 대중 불 교
6월호
(재)대원정사 월간 대중불교
값 3,500원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614
월간 대중불교



제·원·스·님·에·세·이

고적한 산사(山寺)에서 우리가 사는 도심(都心)까지 배달되어 온 마음의 소포,

그것은 제원스님의 흙빛 언어, 파란 감동 에세이집!

우리는 가끔 염라대왕이 보내는 엽서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은 그 녹슨 우체통을 열어본다.

누군가, 저 멀리서 독각의 언어를 내뿜고 있다.

▶ 산길을 닮은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행복찾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큰 정치를 위해 군살을 빼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무소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 절망과 희망의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 혼자 사는 이의 조촐한 멋이 있습니다.
▶ 맑은 영혼을 가진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이 책은 BBS불교방송 〈불국토의 아침〉을 진행했던 제원스님이 수행자라는 입장에서 쏟아놓은 언어들이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한번쯤 체에 걸른 것처럼, 영혼을 내뿜은 진한 감동의 에세이집이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값6,000원 TEL(02)711-8948,1868/FAX(02)711-1869 이목

스스로 진리에 가닿는 정진 40년

산문밖의 선禪

화가 이 만 익 씨



"사람은 누구나 그가 바친 시간을 그리워 한다."

살아 온 시간에 대한 그리움. 그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그리움보다 훨씬 간절하다. '그립다'는 관념마저 뛰어 넘은 그리움. 그 원초적 그리움으로 자신의 그림세월 40년을 결산하는 전시회를 갖고 있는 중견화가 이만익씨(57).

'말하는 그림, 소리없는 시'란 주제로 지난달 27일부터 한가람미술관에서 「이만익 그림 40년 회고전」을 갖고 있는 그는 지나 온 세월에 대한 그리움을 마치 자신의 살을 헤쳐 보이듯 드러내고 있다.

남은 여백 찾는 회고전

"시간은 많은 것을 남겨주기도 하지만 소중한 것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씨는 이 전시회에 자신의 부끄러운 작품들, 즉 고교시절의 그림이나 대학 시절의 습작품까지 과감하게 내놓았다. 지나온 시간이 자신에게서 무엇을 가져갔으며 또 무엇을 남겨주었는가를 가늠해 보자는 속셈이다. 일기장을 펼쳐 보이는듯한 이 전시를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로까지 승화시키려는 이씨에게서는 '익은 사람'의 그윽한 향취마저 느껴진다.

강산이 네번 변하는 동안 이씨도 부단히 변화해 왔다. 스스로 정체되어 있을 수 없는 혈기를 다스려 온 그 세월 속에서 더러는 날카롭고 더러는 부드럽고 또 더러는 절망스럽기도 한 표정으로 화판에 세상을 담아왔던 것이다. 수로부인의 치맛자락에 신라의 하늘을 매달기도 하고 어촌 마을의 비린내를 화관 가득 담기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그 답은 의외로 그림이 아닌 글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회고전에 때맞춰 내놓은 수필집의 제목 '그립다 보고 싶다 그리고 싶다'가 바로 그것이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원형질 그리고 그 원형질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욕구와 마침내 나의 존재를 나 스스로 깨닫고자 하는 뜻에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림은 그리움에서 시작되어 감성을 동원한 표현으로 드러나 자족(自足)의 예술품으로 완성되는 단계를 거치는 일련의 삶인 것이다. 그는 굳이 자신의 작업에 대한 이같은 생각을 불교와 대비시켜 설명하자면 "스스로 정진해 진리에 가 닿는 것"이라고 말했다.

순백의 화관은 그에게 있어 드넓은 법당이다. 불보살도 없고 냉수 떠 바칠 그릇하나 없는 법당. 오로지 텅 비어있는 그 법당에 가장 먼저 얹어놓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자신이다. 자신의 모습을 얹어놓고 "너는 지금 무엇을 그리려 하느냐"고 묻는 것이 작업의 첫 순서라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무엇을 그려라하는 답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물음을 던져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언제나 완성된 그림 그 자체일 뿐이니까요."

다 그려진 작품에 대한 절대적인 만족도 절대적인 낭패감도 갖지않게 되는 것이 바로 그의 '익은 모습'이다. '애초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왔구나'하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된 것이니까.

'무엇을 그릴 것인가' 답은 완성된 그림…모두 내 자화상



◇관음도

완전에 대한 도전 그 자체는 또다른 작품을 위한 여백일 뿐이다. 40년 회고전도 이씨에게는 남은 삶의 여백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전시회 팜플렛에서 "나도 이제 한걸음 멈추어 서서 지나온 나를 돌아다보고 맞이할 시간을 다시 준비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는 초보자 시절부터 자화상을 그렸다. 세월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화상을 부단히 그리는 것은 '너는 지금 무엇을 그리려 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순간의 자기 존재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작업이기도 하다. 다시말하면 '너는 지금 너를 그려봐라'라는 욕구가 마침내 '너는 지금 이런 모습이다'라고 답을 화판에 올려놓는 것이다.

존재에 대한 확인작업

60년 68년 74년의 자화상은 모두가 그당시 자신의 모습이다. 자화상이니까. 그러나 그 자화상은 외형적인 이만익만이 아님을 누구나 알아챌 수 있다. 인간으로서, 화가로서 익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나의 자화상은 나의 그리움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이고 내가 갖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자화상은 내 모습이 아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과 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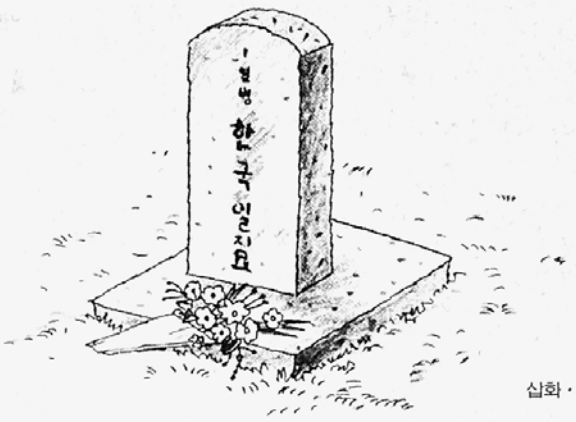
사실 이씨는 그의 모든 작품을 자화상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그리워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결론은 자신의 것이고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그린다는 욕심을 저버린 곳에서 「비천도」를, 그릴때면 자신이 구름 위를 날아가고 「관음도」를 그릴때면 이미 자신도 관음의 몸이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려나가는 그림과 손끝의 붓 그리고 화판 앞에 앉은 자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만익씨는 "아이구, 나는 아직 그런 경지에 못갔어요. 어림없지요"라며 화실 한 켠에 걸린 「비천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젠가는 저렇게 끝모르게 부드러운 비상의 몸짓을 해야하는 모든 인간들. 그 인간들이 살아있는 동안의 이야기야말로 가장 멋진 그림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며 새로 갈 길을 찾고있는 이만익씨는 이번 40년 회고전을 마치고 나면 또 어떤 자화상을 그릴까.

임연태 기자



십화 · 이기선

호국영령 천도위해 합장을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㉘ **천도**

6월 하늘아래 보리밭 넘어로 뻐꾸기 울음소리가 익어간다. 민족의 애잔함이 서려있는 울음으로 익어간다. 조국 산하에서 산화된 호국 영령들은 저 두견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직 통일은 영원한데. 영령은 긴긴 세월동안 역사의 주름살 앞에 비목으로 서 있다.

역사여, 조국이여,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가 아니라 국군은 역사를 가로질러 가는 통일의 함성이라고 노래하여 다오.

현충일. 향사르고 꽃꽂아 놓으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 구절을 가만히 되새김질 하여본다. 곧 오겠지 하면서도 50년의 공간에 비원의 이끼가 파랗게 자라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우리 모두 옷깃 여미고 선열과 호국의 영령에 합장하고 절하자. 그리고 불국토에서 열반미를 맛보게 하여 달라고 염원하자. 열반의 맛은 달고 쓰고 맵고 짜지 않는 하나의 맛이리라. 일미(一味)의 원음을 노래하면서 안양하리라 생각한다.

애도심 지극하면 업녹아

지장경 칭불명호품(稱佛名號品)에 보면 천도(薦度)에 관한 내용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업보에 의하여 나락에 떨어지는 망령이 있는가 하면 극락에 나려는 선령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죽어간 영령에 대하여 염불자가 열심히 염불천도하면 망자가 연화대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도 있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겁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그 이름이 무변신여래(無邊身如來)시라. 만약 어느 남녀가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면 곧 40겁동안의 생사계의 무거운 죄를 초월하옵거늘 어찌 하물며 그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탱화로 모시고 공양 찬탄함이오리까. 그 사람이 얻는 복은 한량없고 무변하리라. 또 과거 항하사겁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명호는 보승여래(寶勝如來)시라. 만약 어느 남녀가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손가락 한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귀의하는 마음을 내면 이 사람은 위없는 도에서 길이 퇴전하지 않으리라."

불국토서 왕생극락토록 염원

지장경에 있는 말씀은 긴요한 것이다. 살아 있었을 때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도 애도자의 염원에 의하여 왕생극락한다는 것이다.

무주고혼이 이 산 저 산, 이 하늘 저 하늘가에 홀로 외롭게 떠돌아 다닌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우리는 이 무주고혼을 달래는 씻김굿을 하여야 한다. 영혼에 외로운 때가 얼룩져 있으면 말끔히 씻어 주어야 한다. 오복을 점지할 수 있도록 환한 얼굴로 환원시켜 주어야 한다. 나라와 겨레를 위한 영령이 원한에 젖어 있다면 우리들의 정성이 미약한 것이다. 삼백예순날 쉴새없이 씻김의 향화를 올리고 일귀극락하는 염불을 하여야 한다.

흔히 망자에 드리는 기도가 무슨 영험이 있겠느냐고 회의하는 사람도 있다. 그저 한번 해 보는 의식이지 꼭 망자가 왕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다시 말하면 천도가 되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겨레위한 희생에 감사를

몸은 죽어가나 식령(識靈)은 죽지않는 것이다. 그 식령의 귀에다 염불을 극진하게 하면 전음이 되는 것이다. 이 허공계에는 식령들로 가득하다. 우리가 허공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식령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허공에는 세상의 소리가 충만해 있는 것이다. 음파를 잡는 기계가 있으면 온갖 소리를 다 듣는 것처럼. 이 허공은 소리의 장고(藏庫)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장경에서 말씀한 바와같이 여래의 명호를 염송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성불한다고 하지 아니 하였는가.

사람들은 믿어야 할 것은 의심하고 믿지 않아야 할 것은 발버둥치면서 소유하려고 하니 이것이 병고가 아닌가.

6월의 하늘을 푸르게 하자. 한국의 산하에 묻혀있는 식령을 위하여 또한 세계도처에 잠자고 있는 망자를 위하여 우리는 보살의 기도로서 염불하여 모든 영령이 천도되게 하여야 한다. 무주고혼이 원한을 품지 않게 하여야 하고 유주식령이 안락하게 하여야만 지금 살고있는 후손도 안영할 것이다.

6월에 우리 모두 천도의 칭불명호를 하는 한국인이 되어 보자.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지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부처님 말씀 친필 작품
보시하는 마음으로 써드립니다.
268-5702 남강서실

다 방
보증금 800(월세 45만원) 권리금(시설비) 3,800만원
새다방 하실 분 보증금 1,000만원에 85만원
(032)348-1716 341-1507

사찰터 임야 9천평
청주근교 보은방향 그린벨트 지역(사찰가능)
2천평은 사찰터로 시주
7천평은 1억 4천에 매매
연락처 : 0431-66-0958 이공례

노고당 733-8743
지방은 조각하여 우송하겠습니다.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 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풍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404-9521 팩스:(02)266-2679

역학 · 성명학에 관심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만을 모십니다
최여래심 합장
연락처 987-2721
주소:강북구 번2동 주공APT 408동 803호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02)795-4083, Fax: 02)792-9659

질병인을 건강하게 건강인은 더욱 건강하게
당뇨 위장 · 변비 · 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02)552-1470(대) / 팩스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B/D 2층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전화 (02)556-3076-7 ■팩스 (02)556-3078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대적광전 · 법상 · 경상
• 의왕시(대원사):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법당 수미단 육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대웅전 당부전 문짝
• 청남(법룡사):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상덕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대웅전 수미단 용각
• 포천(약천사):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보전사):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회관 불사, 그외 다수 시공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긍 정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 · 재수생 · 직장인 ·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친절한 1 : 1 「담임 관리제」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 ➡(영 · 수)「비디오가정교사」(대학지도위)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원(남, 27세)드림-
학사학위취득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황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씨비스 080-023-4600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14〉

孤山智圓法師 勉學(고산지원법사 면학) ④

中庸者 위然嘆曰吾 嘗見恥智不逮
중용자 위연탄왈오 상견치지불체
才之不敏而 輟於學者
재지불민이 철어학자
未見恥飮食 不如他人之多而輟飮食者
미견치음식 불여타인지다이철음식자
輟飮食則廢其命 何必恥於不多耶
철음식즉폐기명 하필치어불다야
輟學問則同夫禽獸土木 何必恥才智之
철학문즉동부금수토목 하필치재지지
不如他人耶
불여타인야

중용자(고산선사)가 탄식하며 이르기를, 너가 일찌기 지혜가 미치지 못하고 재주가 민첩하지 못해 배우기를 그만두는 사람은 보았으나

음식이 남과 같이 많지 않아(좋지 않아) 음식 먹기를 그만두는 사람은 보지 못했으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많지 않음을 부끄러워 하며

학문을 그만두면 무릇 금수·토목과 한가지 이거늘 어찌 재주가 남 같지 못함을 부끄러워 하랴.

苟恥才智 不如而不學則
구치재지 불여이불학즉
亦應恥飮食 不如他人 則廢飮食
역응치음식 불여타인 즉폐음식
以是觀之 豈不大誤乎
이시관지 기불대오호
吾亦至愚也 每攝才與智不逮他人者遠矣
오역지우야 매취재여지 불체타인자원의
由知飮食之不可輟而不敢怠於學也
유지음식지불가철이불감태어학야

진실로 재주와 지혜가 같지 못하다하여 배우지 아니하면

또한 응당 음식이 남 같지 않다하여 곧 음식을 폐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어찌 크게 그르친게 아니리오 나 또한 지극히 어리석은지라 매양 재주와 지혜가 남에 미치지 못한지 오래이나 음식을 거둘 수 없음을 아는 까닭에 감히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行年 四十有四矣 雖病且困
행년 사십유사의 수병차곤
而手未常釋卷 所以懼同於土木禽獸耳
이수미상석권 소이구동어토목금수이
非敢求聖聖域也 亦非求乎聰達也
비감구진성역야 역비구호문달야
雖或彷徉戶庭 夷猶原野 以暢頑疲
수혹방양호정 이유원야 이창이양
目觀心思 亦未嘗敢廢於學也
목관심사 역미상감폐어학야

내 나이 44세에 비록 병들고 괴로우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것은 초목·금수 같아질까 두려워한 때문이다.

(나는) 감히 성현자리에 나아감을 구하지 않고 또한 명성과 입신출세를 구하지도 않나니

비록 뜰을 배회하고 들판에 나가 거닐어도 잠시라도 정신을 기르고 북돋우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헤아려 또한 감히 배움을 폐하려 하지 않았다.

由是 登山則思學其高 臨水則思學其淸
유시 등산즉사학기고 임수즉사학기청
坐石則思學其堅 看松則思學其貞
좌석즉사학기견 간송즉사학기정
對月則思學其明 萬境森列 各有消長
대월즉사학기명 만경삼열 각유소장
吾悉得師而學之
오실득사이학지
萬境無言 而尙可學 況人之能言
만경무언 이상가학 황인지능언

"물에서 맑음을, 바위에서 견고함을 배우듯 만물은 말이 없으나 모두 스승삼을 수 있다"

함을 부끄러워 하랴.

苟恥才智 不如而不學則
구치재지 불여이불학즉
亦應恥飮食 不如他人 則廢飮食
역응치음식 불여타인 즉폐음식
以是觀之 豈不大誤乎
이시관지 기불대오호
吾亦至愚也 每攝才與智不逮他人者遠矣
오역지우야 매취재여지 불체타인자원의
由知飮食之不可輟而不敢怠於學也
유지음식지불가철이불감태어학야

진실로 재주와 지혜가 같지 못하다하여 배우지 아니하면

또한 응당 음식이 남 같지 않다하여 곧 음식을 폐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어찌 크게 그르친게 아니리오 나 또한 지극히 어리석은지라 매양 재주와 지혜가 남에 미치지 못한지 오래이나 음식을 거둘 수 없음을 아는 까닭에 감히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行年 四十有四矣 雖病且困
행년 사십유사의 수병차곤
而手未常釋卷 所以懼同於土木禽獸耳
이수미상석권 소이구동어토목금수이
非敢求聖聖域也 亦非求乎聰達也
비감구진성역야 역비구호문달야
雖或彷徉戶庭 夷猶原野 以暢頑疲
수혹방양호정 이유원야 이창이양
目觀心思 亦未嘗敢廢於學也
목관심사 역미상감폐어학야

내 나이 44세에 비록 병들고 괴로우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것은 초목·금수 같아질까 두려워한 때문이다.

(나는) 감히 성현자리에 나아감을 구하지 않고 또한 명성과 입신출세를 구하지도 않나니

비록 뜰을 배회하고 들판에 나가 거닐어도 잠시라도 정신을 기르고 북돋우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헤아려 또한 감히 배움을 폐하려 하지 않았다.

由是 登山則思學其高 臨水則思學其淸
유시 등산즉사학기고 임수즉사학기청
坐石則思學其堅 看松則思學其貞
좌석즉사학기견 간송즉사학기정
對月則思學其明 萬境森列 各有消長
대월즉사학기명 만경삼열 각유소장
吾悉得師而學之
오실득사이학지
萬境無言 而尙可學 況人之能言
만경무언 이상가학 황인지능언

중용자 이르되, 세상에 구해도 혹 얻지 못하는게 있고

세상에 구하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으니

구하여 혹 얻지 못하는 것은 이익이요 구하여 반드시 얻는 것은 도이다.

龍眼

雖萬惡 必有一善也
수만악 필유일선야
師一善而學之 其謂曰不然乎
사일선이학지 기수왈불연호

이러므로 산에 오르면 그 높음에서 배우고 물에 가면 그 맑음에서 배우고

바위에 앉으면 그 견고함에서 배우고 소나무를 살피면 그 곧음에서 배우고

달을 대하면 그 밝음에서 배우니 만가지 경계가 늘어선 게 각기 늘고 줄음이 있으매 내가 다 스승삼아 배웠노라

만물은 말이 없되 오히려 배울게 있으니 하물며 사람이 말함에 있어서랴.

비록 만악이라도 반드시 한가지 선이 있으니 한 선을 스승삼아 배우면 그 누가 그렇지 않다 하리오

中庸子, 曰世有求之而或不得者也
중용자, 왈세유구지이혹부득자야
世有求之而必得者也
세유구지이필득자야
求之而或不得者 利也
구지이혹부득자 리야
求之而必得者 道也
구지이필득자 도야

중용자 이르되, 세상에 구해도 혹 얻지 못하는게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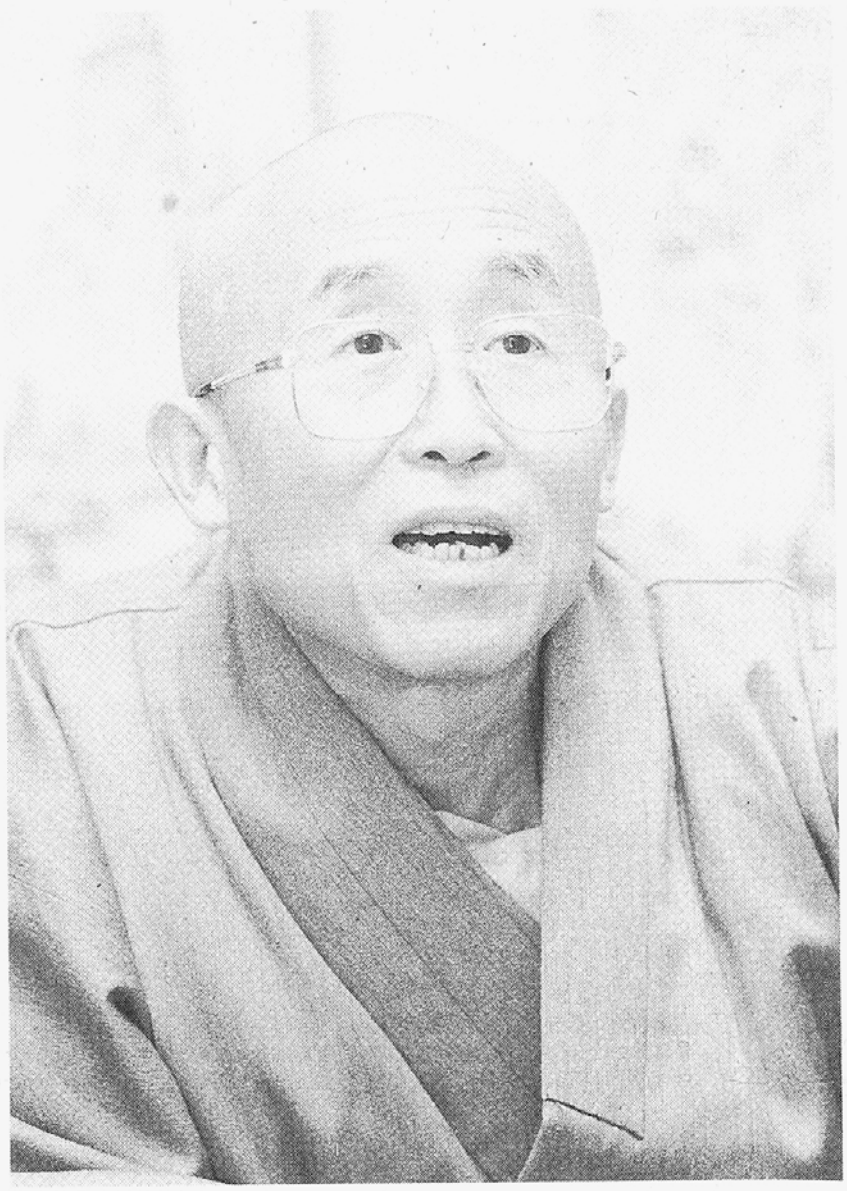
세상에 구하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으니

구하여 혹 얻지 못하는 것은 이익이요 구하여 반드시 얻는 것은 도이다.

龍眼

★ 지상법석

"믿는 마음 확실하면



부처님은 중생이 너와 나를 설정하고 생각을 시작하므로 그 약으로 20년간 인과 법문을 설하셨다

월운스님 〈동국대 역경원장〉

약력
- 1928년 11. 12 경기 生
- 57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졸
- 57~61년 통도사 강사
- 봉선사 주지
- 현 동국역경원장
- 저서 〈극봉탑〉 〈삼화행도집〉 〈달처럼 구름처럼〉 외 다수

부처님께서는 도(道)를 이루시고 너무 기뻐서 일주일(초칠일)동안을 속으로 혼자서 즐거움을 누리셨다고 합니다. 제 2칠일 동안에는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죄스러워서 드디어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개의 3천대천세계 딘진수품,〈상품화엄경〉이란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증득하신 그대로 얘기하시니(如證而說) 아무도 알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3칠일에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중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를 연구했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너와 나의 관계를 설정하고 나는 너보다 나이야 된다는 기본적인 바탕위에서 모든 생각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중생에게 적당한 약으로 인과응보를 말씀하시게됩니다. 아함부를 12년, 방등부를 8년(阿含十二方等八) 간 말씀 하셨던 것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는 내용들로, 20년 동안을 선업에는 선과가 오고 악업에는 악과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주 정직한 이웃집 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몹시도 가난했을 때 입니다. 하루는 밤 한 되를 형의 어머님이 사다가 삶아서 놓고 "너는 하나도 먹지 말고 동생을 다 먹여라"하고 나갔습니다. 이미 어머님은 형이 많이 먹고 동생을 조금 먹게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형은 하나도 안 먹고 동생에게 삶은 밤을 억지로 먹이고 안먹으려 할 때는 자빠뜨려 놓고 방망이로 밀어넣고 하는 것 이었습니다. 이렇듯 착한 것이 착한 것으로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악한 것보다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선을 닦아라 악을 물리쳐라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지나자 선이 일종의 형식적인 선이 되고, 악을 물리치는 것도 형식적으로 흘러 선을 얼마만큼 닦았다 악을 얼마만큼 물리쳤다는 집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집착을 없애기위해서 반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야'하면 우리는 마하반야, 금강반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중 금강반야라는 것은 금강의 견고하고 날카롭고 밝은 세가지 성품을 반야지혜에다 견주어 말한것 입니다. 마하반야는 모든것을 포용할때 진짜 큰 지혜로움이 나옵니다. 작은것보다 크다는 절대적인 지혜이지요.

불자님들도 부처님이 20년동안 설하신 인과법문을 통해 자신의 집착을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도를 깨달으신 부처님은 총명하고 상냥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지혜와 자비의 마음입니다. 지혜와 자비라 함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귀중한 것으로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항상 침착하고 조용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서는 조용히 사물을 관단할 수가 없습니다. 열반적정이라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이 안정되어 진정한 자신에 눈떳을 때에 얻어지는 경지이지요.

경지를 얻는 것만이 영원한 행복이며 진실된 자신에 눈뜨지 않는 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 자신에 눈뜨게 되면 이제까지 자신이라고 단정한 자신의 것이 얼마나 작고 이기적인 자기였던가를 알것입니다. 이런 작은 이기적인 자기가 타파되고 보다 큰 마음을 가진 자기에 눈뜨면 타인에 대하여도 착한 마음씨가 용솟음치게 됩니다.

높은 산봉우리에서 밑을 내려다 보면 밑에서 안보이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산봉우리에 올라서서보면 하계가 잘 보입니다. 밑을보면 어째서 작은일에 얽매였을까 하고 반성하게 될 것입니다.산위에서 내려다보면 작은 차별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평등하게 보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자기에 눈이 뜨이면 작은 차별은 없어지고 모두가 친밀하게 서로 돕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괴로움이 곧 자신의 괴로움으로 느껴지고 타인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상냥하고 연민의 정이 깊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소중한 일이며, 이 지혜와

발행 10일 만에 재판 돌입

下山

이홍주 장편소설

젊은 수행자의 고뇌와 파계,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이야기

한 스님의 월북 기도와 〈下山〉

1989년 유난히 키가 크고 마른 한 젊은 스님이 민통선 설해에서 싹슴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월북을 기도한 홍주 스님의 결망 속에는 〈下山〉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이 희두와 같은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채 〈下山〉은 그 후 금서가 되고 말았다

〈下山〉의 재출간, 또 다른 파문

'어떻게 스님이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
'현대의 불교 소설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젊은 날의 구도와 파계, 번민과 깨달음……
이제, 우리는 이 보석과 같은 소설을 더이상 금서로 만들 수 없다

화제작 〈下山〉에 주어진 문학적 평가

작가가 직면했던 신앙과 관능, 교단과 사회와의 모순과 갈등이 이실히 표현되어 대담하게 던져진 문제작'
— 1967년/시인 趙芝薰

젊은 수행자가 겪는 한국 불교의 고뇌상이 절절히 묘파된 본격적인 불교 전위 문학'
— 1967년/작가 金東里

우리 문학사에서 분단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휴전선에서의 희생자 작가가 쓴 현실과 역사 인식 소설'
— 1995년/문학평론가 임헌영

*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4, 6판 / 양장제본 / 248쪽 / 값 5, 500원

불지사 전화 / 편집부 (02) 277-2676, 영업부 (02) 263-1941

선으로 가는 길

어느 마음에 점을 찍을꼬?

글 · 김형균

禪의 세계를 비수처럼 파고드는 선 이야기 131 !!

달마 이래 동양의 선을 활짝 꽃피웠던 기라성 같은 선사들, 언어를 초월한 언어로써 깨달음의 실체에 접근했던 기상천외한 대화, 그 1,500년 전의 묘미를 정갈한 필치로 담아낸 131가지의 선 이야기.



이것은 핵심의 메아리이다.
일체의 군더더기나 너절한 사연들을
단칼에 잘라 버린 나머지,
그 칼에 맞은 단층에 박혀 있는
핵심만을 빼낸 것이 틀림없다.
— 시인 高 銀의 추천사 중에서 —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4, 6판 / 양장 제본 / 값 5, 000원

편집부 : 277-2676 동쪽나라 영업부 : 263-1941

대우자동차 전 차종 특별판매



대상차종
아카디아 · 브로엄 · 프린스 · 에스페로
씨에로 · 르망 · 티코 · 다마스 · 라보

· 리스 할부
· 인도금 없이 전액 자체 할부(국민차)
·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정판매)

자세한 문의사항은

• 전 화 : 718-0973~4 • 호출기 : (015) 305-3933 • 담당자 : 이 계 천

지상법석 ★

'영험' 신경 안써도 돼요"

어떤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나와 남의 구별도 없어지고 자유롭고 정결한 마음이 됩니다

자비를 완전하게 갖춘 분이 부처님이신 것입니다. 부처님은 현법열반(現法涅槃)을 얻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법열반이란 살아 생전에 터득하는 열반을 말하는 것이며 부처님은 현법열반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괭이가 돌고 있을 때에는 정지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는 대단히 빨리 도는것이죠. 시간이 지나 회전이 둔해지면 흔들흔들 동요되지만 회전이 빠를때에는 돌고 있는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정말로 어떤일에 몰두하고 있을때는 자타의 구별도 없어지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러한때 우리들은 조용하고 원지 즐겁고 자유롭고 정결한 심경이 됩니다.

그러한 경지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적정이라는 것인데,열반에는 네가지 덕이 있다고 합니다. 즉 깨달음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까 상(常), 고통이 없으니 낙(樂), 자유롭고 구속이 없으니 정(淨)이라 합니다. 이 상락아정의 넷을 열반이 갖고 있는 네가지 덕이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때 소승불교도나 인도의 다른 종교인들이 생각하였듯이 열반을 소극적, 허무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열반은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속에서 터득하여야 하는 것이지 육체의 사후에 도달하는 무여열반같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불교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자신을 도법속에 파묻어 버리니까 힘든 교리나 개념은 잊어도 문제가 안돼지요. 그것을 문제삼는것은 불법에 산다는 것을 잊은 사람이 하는 짓이고 진심으로 도에 살고 있을때 그런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것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도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도를 구하는 생활속에서라면 영원한 행복이 실감될 것 입니다. 체험에는 깊고 얕음이 있겠습니다만 도를 구하는 생활속에는 무엇이라고 형언키 어려운, 항상변치않는 마음으로 즐거운.그리고 자유롭고 정갈한 경지가 터득될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한 행복이라 할 것이고 옛사람들이 그것을 열반적정이라고 하였다 생각됩니다. 열반적정을 부처님 한 분의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잘못입니다. 불법은 만인의것, 모든사람에게 터득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할때 열반도 역시 모두의 것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저는 가끔 조용히 불법을 배우고 이를 믿고 이것을 체험해 가는 중에 무어라 형용키 어려운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기쁨이며 이거야말로 '영원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반적정도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들과는 연이 없는 고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과 가르침 통해 집착 털어 버리고 모든것 포용할 때 반야지혜 얻게돼"

상낙아정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가 그러한 것으로서 도를 구하고 불법을 실천해 가는 생활속에서 만나게 되는 영원히 변치않음과 즐거움과 자유로움과 정결함입니다. 상낙아정의 집합체인 열반적정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참된 불교신자는 상낙아정의 소극적 경지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이나 사회의 구원과 봉사를 위하여 힘차게 활동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불성(佛性)이라고 불리우는 진실된 자기이며 따라서 지혜와 자비의 주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를 대상으로 관찰함에 있어서 두가지 극단론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불멸하며 영원하다는 상견(常見)과, 반대로 존재를 무상(無常)으로 보는 단견(斷見)을 말합니다. 상견은 불질불변론이며 세상을 지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무상은 지나친 부정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물을 바로 눈 앞에 두고 모두가 허무한데 저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죽으면 그만인데 노력해서 무엇에 쓸 것인가 등의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덧없고 불행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다'라는 사실에 매달려 끝간데 없이 소유하려 하고 탐욕에 빠져버린다면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두가지 극단을 다 경계하셔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도 "너희들 비구는 나의 설법을 뗏목같이 여겨라"고 강조하시며 극단의 위험을 깨우치셨습니다. 중도는 모든 존재를 관찰함에 있어서 존재 자체가 무상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영원과 무상 사이의 올바른 것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보이지드 않으며, 나타나지도 않고, 인식될 수도 없으며, 무어라 이름붙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힌 중생들이 어두운 눈으로 그릇된 관단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극단이며 어느 한쪽에도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점은 어느 것이 양극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확고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이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는 마음이 바르게 서면 영험에 대하여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신론(起信論)〉에는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신앙의 본질적인 영험은 자신이 진여의 변현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서 삼보에 간절히 귀의하여 멀어졌던 진여에로 복귀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잃었던 진여에로 복귀하였을 때, 너와 나의 진여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고, 너와 나의 차별을 보지 않을 때 남의 괴로움과 나의 즐거움을 둘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 자신에 눈뜨게 되면 이제까지 자신이라고 단정한 모든 것이 작고 이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바로 알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았을때에 몸과 마음이 느긋함을 느끼니, 이것이 바로 해탈이며 법락(法樂)입니다. 다시 무슨 욕구가 있겠습니다. 이를 일러 불법의 영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객지의 거지 신세가 당장에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니, 그 아니 만족스러우며, 조금 전까지 욕심의 노예였던 범부가 당장에 진여불국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그 어찌 영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 무슨 욕망이 남았겠습니까.

봄볕은 만물이 피어나기만을 바라지만 거기에서 나름대로 큰 꽃, 작은 꽃을 피우는 것은 초목자신들의 능력이며 특징입니다. 확실히 믿고 성스러운 영험이 오늘의 이땅에 가득히 내려지도록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름달 밝은밤에 사방이 고요하거든, 조용히 내심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려봄이 좋을 듯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㉗

양 형 진

불거불래

'간다' '온다' 동작부정 불확정성 원리와 연관

운동속성·작용실체 직관에 의해 파악돼야

오늘은 팔불중도 중에 하나 남은 불거불래(不去不來)에 대하여 생각하여보자. 이를 中論 제2장 관거래품(觀去來品)의 첫번째 게송에서 살펴보겠다.

"이미 지나간 것에는 간다는 것이 없으며, 아직 지나가지 않은 것에도 간다는 것은 없다.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지나가지 않은 것을 떠나 지금 지나가는 것에도 또한 간다는 것은 없다."(已去有無去 未去亦無去 離已去未去 去時亦無去)이 게송은 과거와 미래, 현재에 대하여 간다는 작용이 불가득(不可得)임을 논증하고 있다.

과거에 이미 간 것에나 미래에 아직 간 일이 없는 것에는 간다는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그 동작이 실현된 일이 없기 때문에 간다는 작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재 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은 간다는 작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용수보살은 이마저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목 스님은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반은 가고 아직 반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작용마저도 이미 간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을 떠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주석을 하고 있다. 동작을 관찰하는 사람은 자신이 현재 지나가고 있는 작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미 방금 지나간 과거의 동작을 파악하고 사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불거불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과 가고 옴이라는 운동을 다루고 있다. 이를 물리학과 연관시켜 생각해 본다면 운동과 운동의 속성 혹은 자성이라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뉴턴의 고전 물리학의 내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현대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에서의 불확정성원리와 연관되는 내용이다. 양자역학이나 불확정성 원리의 기본적인 의미는 다음에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이의 운동과 관련된 부분만을 생각하여 보자.

고전 물리학은 거의 기본적으로 어떤 물체의 속성이라는 것을 상정한다. 그리고 그 속성은 물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언제고 우리가 측정하기만 하면 알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는 고전물리학에 불확정성의 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양자역학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물체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관념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확정성 원리를 직선 운동에 대하여 적용하면 삼차원 공간에서의 운동 속도의 세 성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속성은 원리상 완벽하게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을 양자역학은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역학적으로 불거불래의 의미를 살펴 본다면 물체의 운동 속성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운동하는 작용의 실체를 가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더 이상의 자세한 문제는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논의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불거불래와 관련하여 제논의 화살의 문제만을 생각하여 보도록 하자.

위의 게송은 "날아가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라는 제논의 운동 부정론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논의 논의는 베르그송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개념적인 사유에 의해 시간과 운동을 공간화시킴으로써 시간적인 운동을 정지 상태로 환원한 다음, 이 정지 상태라는 부분을 모아 시간과 운동을 재구성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에 제논의 역설이 갖는 모순이 존재한다. 따라서 진정한 운동이나 시간은 순수지속으로서 사유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직관에 의해서만 알려진다고 베르그송은 말하였다.

용수보살 또한 추상적 사유와 판별에 의해 성립되는 유자성론이 갖는 오류를 불거불래로 지적함으로써 분별과 집착을 떠난 철저한 공관에서 운동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무분별과 무심의 경지이다. 그래서 과거심과 현재심과 미래심이 불가득이라고 하였다. (金剛經 一體同觀分) 여래는 오지도 가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95 신·편입생 모집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2급 119명 자격취득
92. 8 본교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5년 6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511-2026-8, 511-1080) 주소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삼화불교대학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려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고향에 계신 어머님처럼 정성을 다하여 절구통으로 방아를 찧어서 먹던 쌀과 같이 원하는 분도로 즉석 정미한 저분도 쌀을 먹으면 됩니다.

절구통표 米壽米 — 현미저분도쌀

1. 현미의 문제점 : ① 먹기 어렵다.
② 영양섭취율이 떨어진다.
③ 묵은 현미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
2. 왜냐하면 상인들이 현미의 먹기 어려운점을 악용하여 묵은 벼로 현미를 만들어 시중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먹기어려운 현미를 그냥 먹으라는 것은 먹지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4. 먹기엔 백미처럼 부드럽게 먹고 영양은 현미처럼 풍부하게 먹을수 있다면 완전한 해답이 됩니다.

2분도 현미(주식으로)+미강가루(없음)=현미(먹기 어렵다.)
3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쉽다.)
4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더쉽다.)
5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조금 더쉽다.)
6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아주 더쉽다.)

5. 변비에 특효인 미강가루는 거치른 쌀겨가 아니고 밀가루처럼 곱고 부드러운 분말로 생산하여 쌀과 함께 드립니다.
6. 회원이 원하는 분도별 쌀을 주문받아 생산하여 배달하는 것이므로 신선도, 맛, 영양가에서 뛰어납니다.
7. 회원의 집까지 배달됩니다.(20kg이상) 대리점모집중
8. 원하는 분도별 쌀 kg단가는 1,950원 입니다.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 231-5421~2, 235-1846~7

正米食(쌀을 바르게 먹음)이면 米壽食(여든여덟살이 되는 해에 베푸는 잔치)이다.

地藏菩薩
중국구화산 신라승 肉身佛
지장보살

지장보살 신라승 김교각

중국 구화산 지장성지 현지 촬영 완성!
지장보살은 신라승 김교각이었습니다.
천이백년 동안 단 한번도 꺼지지 않은
김지장육신보전의 향불! 석가모니불로부터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 구제를
위해 삼생을 나투시는 무불시대의 메시아!
지장보살 신라승 김교각을 아십니까?

제1부 : 지장보살은 신라승 김교각
제2부 : 꺼지지 않는 김지장 깃발

비디오 구입문의 : 02-233-2830
우편판매 온라인 구좌번호 예금주
외환은행 : 139-13-05983-7 김행수
우 체 국 : 011213-0068986 김행수

전화로 주문하고 집까지 배달되는

가진 홈쇼핑 HOME SHOPPING

'95 현대불교신문 독자만을 위한 통신

영원한 생명의 상징 —호신불 목걸이—



올마니반대륨, 할마진언 호신불로
혼탁한 세계와
그로 인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안정과
평화를 찾으십시오.

- 실물의 1.5배
- 뒷면은 반야심경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 체인길이:42cm
- 상품코드:KJ 601
- 상품명:호신불 목걸이 (14k/6.75g)

~~₩116,000~~ → ₩ 110,200
(체인포함가격)

만사형통으로 이끄는 작은 호신불 —불자 목걸이—



맑고 고요한 마음 속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 상품코드:KJ 602
- 상품명:불자 목걸이

~~₩70,000~~ → ₩ 66,500
(체인포함가격)

이제 여러분 앞에 직접 섰습니다

당사의 공급 가격은
백화점 가격보다
평균 30%(최고 68%) 저렴합니다.
본판매 수익의 일정액은
현대불교신문에서 주관하는
불자가정 스티커 보급운동에 쓰입니다.

한국가진산업(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75-1(가진빌딩 2F)

거북이는 부귀와 장수, 행운의 상징입니다. 거북과 함께 건강장수를 누리시고 행운도 차지하세요.



- 상품코드:KJ 603
- 상품명:거북반지
(14K/11.17g, 24K/0.98g)
루비×2, Q×24

~~₩398,000~~ → ₩ 378,100



- 상품코드:KJ 604
- 상품명:거북목걸이
(14K/11.87g, 24K/0.98g)
루비×2, Q×24

~~₩400,000~~ → ₩ 380,000
(체인포함가격)

여름을 시원하게 —삼베 패드/이불/베개 카바 세트—

천연 고급 삼베로
꼼꼼하게 만들어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여른 자수 처리 꼼꼼한 끝마무리
—까실까실한 삼베의 촉감을 느껴보세요.

* 삼베 이불의 상단 부분은 두겁, 가슴 아래 부분은 홑겹입니다.



- 상품코드:KJ 608
- 상품명:삼베패드/이불/베개카바세트
- 소재:이불1, 패드1, 베개카바 2

~~₩105,000~~ → ₩ 75,000

수납량 많고 심플한 실속형 스텐레스 식기 건조대

심플하고 세련된 스텐레스 식기건조대.
공간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3단으로
세팅하였으며 각 단별 분리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각 칸마다 스텐레스 물받침대가 있습니다.
- 수저꽂이와 칼꽂이는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크기:27×41×38cm
- 무게:3.5kg
- 재질:18~8 스텐레스(2T증)
38.5(폭)×29(길이)×58(높이)cm
- 일본 Daiyu사와 기술제휴
- 상품코드:KJ 605
- 상품명:스텐레스 식기건조대

~~₩86,000~~ → ₩ 58,500

동양 핸드 믹서

신세대 주부의 필수품 도깨비 방망이!



- 스텐레스 칼날을 사용하여, 녹슬지 않고 견고함.
- 믹스날, 거품날, 혼합날, 컷트날, 분쇄기로 구성
- 세련된 디자인
- 안전하고 실용적인 제품
- 영양분 손실 방지
- 220V 전용



- 상품코드:KJ 609
- 상품명:동양 핸드믹서

~~₩120,000~~ → ₩ 43,000

패션의 고장 파리에서 온 알코팔의 품위!

유럽과 동남아에서 아니,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리의 귀족풍 알코팔을 아십니까?
우리의 식탁을 고전적이고 세련된 유럽식 스타일로
바꿔놓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 빨아져도 잘 깨지지 않음.
- 급, 온, 냉각시 강화제이기 때문에 파손이 안됨
- 전자렌지에도 사용 가능
-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적인 용기
- 원산지:프랑스

- 상품코드:KJ 606
- 상품명:알코팔 세트(30pcs)

~~₩210,000~~ → ₩ 99,000



유럽형 씽크대 정리기로 깔끔한 주변 연출

국자걸이가 포함된 후라이팬 정리기와 다용도 수납이
가능한 바구니 수납대로 구성된 '95 히트상품



- 후라이팬 정리대
- 규격:26.5×23×35cm(사이즈 조절가능)
- 재질:스텐레스 분체도장, 크롬도금
- 국자걸이 포함
- 바구니 수납대
- 규격:22.5×30×45cm
- 재질:PP, PE 분체도장

- 상품코드:KJ 607
- 상품명:씽크대 정리기

~~₩45,000~~ → ₩ 36,000

동양 더블



- 전골용, 구이용 2개의 팬:요리선택 폭이 증가
- 전골용 팬:각종 볶음 요리 및 전골 요리
- 구이용 팬:특수 기름받이가 있어, 확실한 기름 제거 및 고기의 감칠 맛을 살려줌
- KS마크 획득한 우수한 제품
- 110V/220V 겸용

- 상품코드:KJ 610
- 상품명:동양 더블 팬

~~₩150,000~~ → ₩ 57,000

주문 접수기간
95년 6월 20일까지

- 소비자 상담:02-529-7873
- 주문 접수 시간:평일-오전 10시~오후 7시
토요일-오전 10시~오후 3시
- 배달 기간:입금확인후 10일 이내

■주문시 유의 사항
· 주문접수:주문접수기간 외에는 제품 생산 및 배송 관계로 접수치 않습니다
· 추가 할인 혜택:20만원 이상 구매시 → 7%할인혜택
(보석류 제외) 10만원 이상 구매시 → 5%할인혜택
· 교환 및 반품:상품을 받으신 후 7일 이내 교환 및 반품 가능

판매 특별 가격 파괴전

지금 주문하십시오
무료전화 : 080-022-4900, 080-900-4901
대표전화 : 02-529-4900, FAX주문 : 02-529-4905

도 안락 의자

표정까지 단안한 안락 의자
거실, 사무실 등에서 편안한 휴식을 위한 안락 의자의 기능에서 완전히 눕히면 간이 침대가 되는 최신형
관침대 부분이 3단계 각도조절
크기 (눕혔을 때)62×154×50cm
(세웠을 때)62×98×89cm

- 스틸프레임, 분체도장
- 소재 : 우레탄 발포 스폰지
- 안락의자+보조대
- 상품코드 : KJ 611
- 상품명 : 다용도 안락 의자

~~₩ 70,000~~ → ₩ 55,000



"음양곽이라면 예로부터 중국에서도 북한산이 으뜸"

■ 문헌상의 음양곽의 효능
정력과 원기를 왕성하게 하며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킨다. 수족, 양명, 심초 등을 능히 고루 침투하여 신체 전반부를 보호한다.(신농본초경, 본초강목, 동의보감)

■ 왜 음양곽이 인기인가?
정력에 막강한 효력이 있다하여 이조 임가의 고관이 절대 외부에 비밀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 북한산 삼지 구엽초(음양곽)입니다.
건강당에서 북한산 야생의 삼지 구엽초만으로 전혀 가공없이 10g 단위로 부직포에 포장하였습니다.

- 포장 150포 1박스 : 하루에 1포씩 복용
- 본 제품은 북무산에 자생하고 있는 삼지구엽초로서 조금도 가공하지 않은 100% 순수 삼지구엽초입니다.
- 제조원 건민당
- 북한산이 아니면서 효능이 훨씬 떨어지는 유사품에 주의해 주십시오.



- 상품코드 : KJ 612
- 상품명 : 음양곽(삼지구엽초)

~~₩ 250,000~~ → ₩ 125,000

레저에서 캐주얼까지

—POLO TEAM 최고급 셔츠가 당신의 센스를 책임집니다.

- 최고급면 100%(40수) 실켓 가공
- 사이즈 : 95, 100, 105, 110
- 주문시 색상 및 사이즈를 선택해 주세요
- 단체복 주문시 특별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2번 색상은 한정수량 공급으로 조기품절 될 수 있습니다.



- 상품코드 : KJ 613
- 상품명 : POLO 셔츠(2장 1세트)

~~₩ 80,000~~ → ₩ 39,500

초면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집니다.

가족 야외놀이, 낚시, 해변에서 꼭 필요한 그늘막 텐트

가족 야외놀이, 낚시, 해변에서 꼭 필요한 그늘막텐트

소재 : 나일론 다우더(원단)
화이바 그라스(폴)
무게 2.3kg
8~10인용

- 상품코드 : KJ 614
- 상품명 : 그늘막텐트

~~₩ 125,000~~ → ₩ 45,000 • 매트는 제외



여행용 가방 세트 (3개 1세트)

여행갈 때마다 고민이었던 짐꾸리기
이젠 여행용가방 세트로 해결하세요!
모던한 디자인과 파격적인 가격!



- 크기 : 방수망 특수원단
  大 56×30×28cm
  中 47×25×24cm
  小 42×23×21cm
- 상품코드 : KJ 615
- 상품명 : 여행용 가방 세트 (3개 1세트)

~~₩ 58,000~~ → ₩ 39,000

바디라인을 살려주는 고탄력 거들 팬티

- 배가 나온 여성, 출산후 체형관리 중인 분들께 좋습니다.
- 허리부터 팬티까지 이음새봉선이 없습니다.
- 인체공학적 디자인
- 면 100%
- Free Size

- 상품코드 : KJ 616
- 상품명 : 거들팬티

~~₩ 35,000~~ → ₩ 28,000





레크라인 더블 야외용 가스 렌지

- 야외에서 사용시 바람막이로 불꺼짐을 방지
- 2개의 대형 그릇 받침대는 다양한 조리 기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압전식 원터치 점화 방식.
- 원터치 가스통가 결합 체택으로 조작이 간편함.
- 가스통기 잠금장치로 사용시 안전함.
- 2개의 화구로 조리시간 단축
- 색상 초록(GR)(가스통은 제외)
- 크기 485×125×240(H)mm
- 중량 2kg



- 상품코드 : KJ 617

~~₩ 38,000~~ → ₩ 31,000

접으면 소파, 펼치면 멋진 침대

낮에는 깔끔한 소파로,
밤에는 편안한 침대로…
팔걸이까지 있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체품
접었다 폈다 공간 효율은 최대!





- 상품코드 : KJ 618
- 상품명 : 데이베드(침대+소파)

~~₩ 120,000~~ → ₩ 96,000

오늘은 무슨 색 양말, 어떤속옷을 준비할까요?

—미니정리함!

■ 특징
- 여성의 팬티, 스타킹, 내의, 악세사리 등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음
- 벨트, 넥타이, 양말, 지갑 등 남성용 소품정리에도 사용
- 품목별 칸칸 칠리가 용이하므로 찾을 때도 손쉬움



- 상품코드 : KJ 6191
- 상품명 : 미니정리함 (5개 1세트)

~~₩ 45,000~~ → ₩ 40,500

- 상품코드 : KJ 6192
- 상품명 : 미니정리함 (3개 1세트)

~~₩ 28,000~~ → ₩ 25,200

중한 옷 보관에는 —홈센스 옷 카바



■ 제품특징
- 통기성이 좋은 부직포(PP) 사용(제일합섬 원단)
- 접착식은 하단에 벨크로(찍찍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크기 60×95cm(양복용)
  60×130cm(드레스 용)
- 구성 양복용15+드레스용5(공통)

- 상품코드 : KJ 6201
- 상품명 : 넝쿨무늬 옷카바A

~~₩ 37,000~~ → ₩ 29,000

- 상품코드 : KJ 6202
- 상품명 : 넝쿨무늬 옷카바B

~~₩ 48,000~~ → ₩ 38,000

집안 정리! —홈센스 이불보, 고자상 카바

■ 제품특징
- 통기성이 좋아, 좀, 곰팡이가 슬지 않음
- 지퍼식으로 수납이 용이하고 이불 4채까지 수납

크기 90×62×47cm(이불보)
84×84×8cm(정교자)
124×84×8cm(직교자)





- 상품코드 : KJ 6211
- 상품명 : 이불보세트(5개 1세트)

~~₩ 41,000~~ → ₩ 33,000

- 상품코드 : KJ 6212
- 상품명 : 직교자상카바(2개 1세트)

~~₩ 32,000~~ → ₩ 25,000

- 상품코드 : KJ 6213
- 상품명 : 정교자상카바(2개 1세트)

~~₩ 26,000~~ → ₩ 23,500

포장이 간편한 —홈센스 정리함

이사할 때에도 꼭 필요합니다.



- 재질 : 백색펄프지+마닐라지
- 사이즈
  37×57×19cm(뚜껑식)
  40×60×20cm(서랍식)

- 상품코드 : KJ 6221
- 상품명 : 파스텔정리함(서랍식 10개 세트)

~~₩ 57,000~~ → ₩ 45,200

- 상품코드 : KJ 6222
- 상품명 : 앙상블정리함(뚜껑식 10개 세트)

~~₩ 49,000~~ → ₩ 34,300

결부 방법 : 은행 등에 온라인 입금 또는 카드 결재가능
인 아래 계좌로 변자 입금하시면 확인 후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행 323-06-044800
협 023-25-0005-550
농 33808-0457309
상 203-115878-13-001
협 018-17-000091
국 01915-0082284

2. 카드 결제 업사에서 보내는 카드전표를 작성한 후 동봉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되돌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할부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카드 BC, 국민, 비자, 마스터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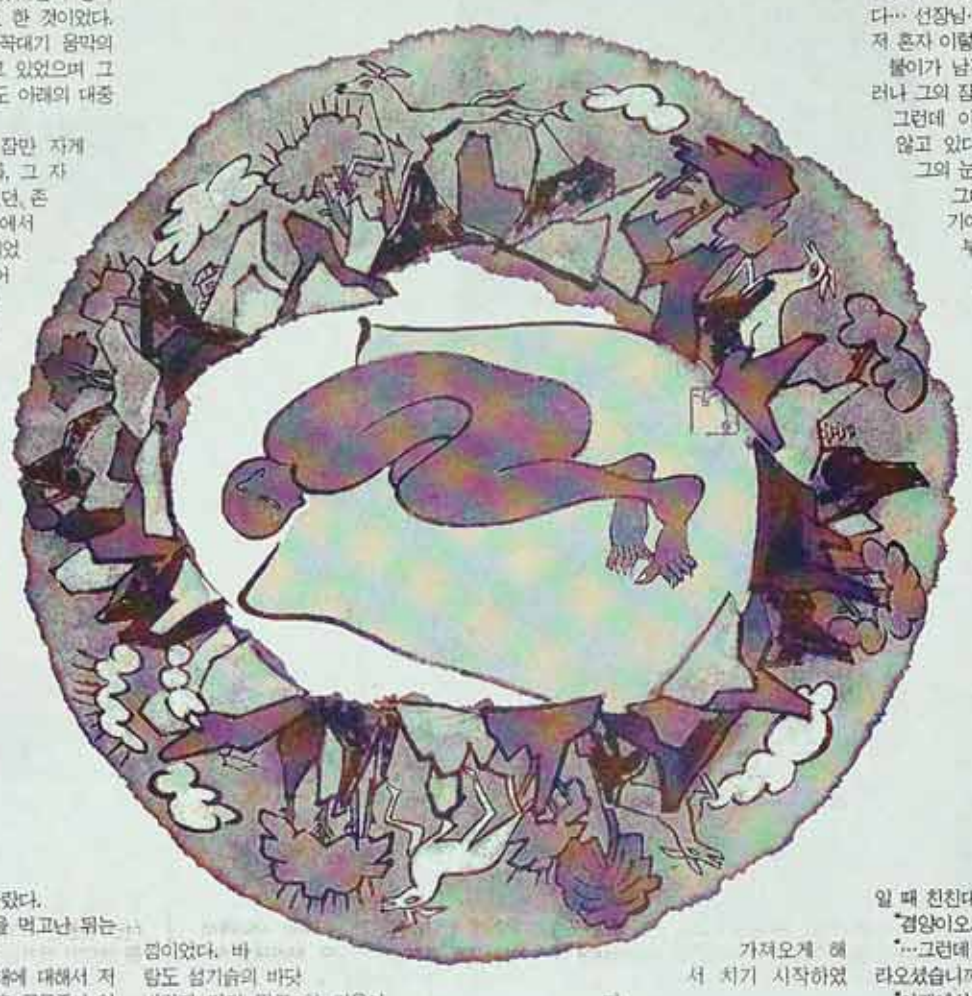
백화점 바겐세일 = 교통대란
결코 싸지도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편안한 가진 홈쇼핑과
함께 하십시오.

가진 홈쇼핑
HOME SHOPPING

고은 불교 대하소설

수미산

30



어느 날의 꿈

무진에 이어 만화까지 이 세상을 떠나버린 뒤 무욕도는 그들이 한 사람씩 없어질 때마다 마치 얼사람이 다 없어진 것 같은 적막감에 휩쌓여서 그곳의 과도소리 조차도 귀가 멍멍해지는 하나의 적막에 다름 아니게 되었다.

'사람'하나가 없어진 자리가 그토록 큰 것인가를 새삼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런 일을 연거푸 두번이나 당한 삼 사람들은 남아있는 그들 사이에도 마음 길이 공동(空洞)이 생겨서 쉽사리 입이 열리지 않게 되었다.

굳이 이런 경우를 이 세상의 인연을 다한 도반(道伴)에 대한 추모의 정서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특히 만화와의 오랜 삶을 함께한 남각은 숫제 먹는 일도 거르기 일쑤였고 방선의 한동안이나 작무(作務)의 노동을 쉬는 한동안을 넋을 놓아버리고 눈의 흰 참만으로 망연해지는 일이 심상치 않았다.

그는 우녀로부터 천상에 태어난 만화의 얘기를 들은 뒤 "우리 선장이 그런 곳에 태어날 까닭이 없지! 태어난다면 이 바다의 어디에 태어날 것이지!"라고 말하며 그와 함께 배를 타던 시절로 돌아가서 선창이라는 호칭으로 만화를 부르기를 서슴치 않았다.

인담이 그런 남각을 섬 꼭대기 움집으로 데려가서 푹 쉬게 하였다. 그에게 참선하라, 땔감을 해다가 쌓아두어라라는 일체의 역할을 맡기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밥도 움막에서 해먹도록 한 것이다.

인담으로서는 아직 이 섬에서 써보지 않은 방하착(放下着)을 그동안 만화에 의존해서 살아온 남각에게 적용함으로써 그의 깊은 상심을 치료해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방하착이 누구에게나 딱 들어맞는 치료법이 아니었다.

한 생각을 내려 놓는다는 것, 한 생각을 그만 잊어버린다는 것, 한 생각을 푹 쉰다는 것의 경지가 어찌 남각의 직정(直情)에 살 어울리는 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그런 남각이 바로 조주(趙州)와 대결한 엄양(嚴陽)은 아니었다.

엄양이 조주에게 가서 들이대며 말하기를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조주는 주저없이 "방하착 하라"라고 말하였다.

엄양이 다시 대들어 말하기를 "여태껏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놓아 버리라 하십니까?"

그러자 조주가 말하기를 "그러면 다시 가지고 가거라"라고 하였다.

이 말에 엄양이 가지고 간 것이 무엇인지, 그 무엇을 가지고 간 것인지를 이 방하착의 화두는 더이상 계속하지 않고 앞과 뒤를 동땅 생략해 버리고 말았다.

이런 화두의 세계에 남각을 둔다는 것은 인담으로서는 그것이 방하(放下)인지 방치(放置)인지 모를 노릇이기도 한 것이었다. 아무튼 며칠동안 인담은 산꼭대기 움막의 일을 일부러라도 잊어버리고 있었으며 그 움막에서도 남각은 어떤 일도 아래의 대중처소에 알려오지 않았다.

남각으로서는 오랜만에 잠만 자게 되었다. 그가 의존하던 만화, 그 자신이 때로는 벗어나고 싶었던, 존재가 먹물처럼 분명한 세상에서 영영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부재(不在)가 도리어 새로운 존재로 나타나서 남각 자신의 심상(心象)을 자꾸 건드리는 만화, 한마디로 그가 살아있을 때에나 죽은 뒤에나 그로부터 공짝달짝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실감시키는 만화에 대한 슬픔과 희망의 결과가 이런 몽롱한 잠의 세계로 바뀐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하루에 한 끼의 밥을 먹고난 뒤는 그렇게 잠만 자는 것이었다.

산꼭대기 움막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저 아래의 정사(精舍)에서도 차츰 궁금증이 일어났다. 그래서 시승(詩僧)이기도 한 불이가 슬쩍 산꼭대기의 숲길로 올라와 남각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동정을 살펴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동정 살피는 조심스러움이 겨의 필요 없을만치 남각의 잠은 예사로운 것이 아닌 깊은 잠이었다. 심부른 잠정들이나 왈짜들이 나타나서 그를 들고 가더라도 깨어날 줄 모르는 잠이었던 것이다.

불이가 문득 괴이하게 여겨져서 혹시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숨소리가 길고 컸다.

모든 과도소리를 차단해주는 해송의 숲으로 에워쌓인 그곳 움막은 차라리 어떤 사람의 자취도 없었던 것 같은 하나의 비경(秘境)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된 느낌이었다. 바람도 섬기슭의 바닷바람과 달리 맑고 찬 기운이 끼치는 그런 색다른 것이었다.

불이의 몸안에 소름이 돋는 것과 함께 찬 바람 한 자락이 그를 휘익 감아돌 때 그는 마치 당나라 현종(玄宗)이 치던 갈고(羯鼓) 북소리가 등등등 들리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사뭇 주위를 둘러다 보며 놀랐다.

당나라 현종시대는 서방 변경의 갈족(羯族)이 치는 북까지 황성 안으로 들여다가 잔치에 썼다. 현종의 풍류 가운데서 이 갈고 치는 솜씨도 이름이 나 있었다.

어느날 새로 작곡한 관현악을 연주하였는데 그 곡이 현종에게는 몹시 잘못된 것이어서 즉각 중지시키고 그 자신이 갈고를 가져오게 해서 치기 시작하였다.

"더러운 곡 들은 짐의 귀를 씻어내야지."

라고 화를 낸 뒤의 앞이었다. 그러자 아직 꽃이 피기에 이른 철기인데도 그 갈고 소리로 꽃이 활짝 피었던 것이다.

현종은 이에 큰 소리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나더러 하느님보다 못하다 하겠는가."

불이는 그가 출가하기 전의 김종무라는 선비시절에 바로 이러한 현종의 풍류를 본받아 도봉산 망월사의 요염한 여승으로부터 때은 번뇌 어두러지는 승무(僧舞) 북치기를 떠올리고 있었다. 바로 그런 북소리들이 이 무욕도 산꼭대기의 움막에서 깊이 잠든 남각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옛 당나라의 갈고 북소리에다가 차츰 그 자신이 치던 북소리까지 겹쳐서 환청(幻聽)으로 들리는 것이었다.

불이가 발을 떼어놓자 않고 서 있었다. 그 북소리의 착각에서 벗어난 뒤 남각의 당당한 잠꼬대를 들을 수 있었다.

'만화스님! …아니 선장님… 선장님이 천상에 태어나셨다면… 나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둘이 아니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제가 알아보아야 겠습니다… 선장님… 이제야 저는 선장님을 떠나 저 혼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이가 남각의 몸을 흔들어 보았다. 그러나 그의 잠은 끝 줄 모르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잠꼬대가 더이상 들리지 않고 있다가 남각의 입은 다물어지고 그의 눈이 슬그머니 떠졌다.

그때에야 불이는 어떤 공포감과 기이한 황홀경이 뒤섞인 상태로부터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남각!"하고 그가 나직하게 불렀다.

"아 제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주 긴 꿈을…"

"이제 만화스님을 떠나보낸 슬픔에서 좀 놓여나셨는지."

"내 슬픔이야 어디 그게 슬픔이겠습니까. 그저 어린 아이가 에미가 안보이가 발을 떼어놓자 않고 서 있었다. 그 북소리의 착각에서 벗어난 뒤 남각의 당당한 잠꼬대를 들을 수 있었다.

'만화스님! …아니 선장님… 선장님이 천상에 태어나셨다면… 나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둘이 아니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제가 알아보아야 겠습니다… 선장님… 이제야 저는 선장님을 떠나 저 혼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이가 남각의 몸을 흔들어 보았다. 그러나 그의 잠은 끝 줄 모르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잠꼬대가 더이상 들리지 않고 있다가 남각의 입은 다물어지고 그의 눈이 슬그머니 떠졌다.

그때에야 불이는 어떤 공포감과 기이한 황홀경이 뒤섞인 상태로부터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남각!"하고 그가 나직하게 불렀다.

"아 제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주 긴 꿈을…"

"이제 만화스님을 떠나보낸 슬픔에서 좀 놓여나셨는지."

"내 슬픔이야 어디 그게 슬픔이겠습니까. 그저 어린 아이가 에미가 안보님과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녕 꿈이란 현실의 여러 장애를 벗어나 자유자재이니까요."

"이렇게 깨어난 생시(生時)가 도리어 심심합니다. 꿈 속에서는 천상과 이 지상의 저 같은 사람이 서로 얘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데…"

"남각! 이제 아래로 내려갈까요?"

"저를 데리러 오셨다면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더 잠들어 있고 싶습니다. 잠 들어서 꿈 속에 노니는 것이 저에게는 수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생시의 수행은 영 맞지 않습니다. 저에게 결가부좌는 송장 염해서 꼭꼭 묶어져있는 꼴이고 저에게 반가부좌는 어거지로 만든 땡초중의 하릴 없는 놀이입니다!"

"…"

"저는 제 멋대로 놓아두어야 그대로 풀을 뜯어먹는 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푸줏간에 한 덩어리씩 메달려 있는 쇠고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로 불이는 남각의 이같은 발언들에 놀란 수 밖에 없었다. 언제 이 거칠기 짝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영롱하기까지 한 말들을 술술술 입안에서 나오게 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언(眞言)의 부도(浮屠)가 아니던가!'라고 불이는 마음 속에서 뇌까렸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뇌까리는 속마음의 말까지 다 읽어내고 있는 남각이었다.

"아닙니다. 저는 진언을 말하는 것이 아

남각은 오랫만에 잠만 자게 되었다. 만화에 대한 슬픔과 희망의 결과가 몽롱한 잠의 세계로 바뀐 것인지도 몰랐다. 남각의 잠은 예사로운 것이 아닌 깊은 잠이었다.

"이렇게 깨어난 생시가 도리어 심심합니다. 꿈속에서는 천상과 이 지상의 저같은 사람이 서로 얘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데… 꿈속에 노니는 것이 저에겐 수행인것 같습니다"

니라 오래된 해골바가지가 내는 빈 소리입니다."

불이는 다시 한번 남각이 이제까지의 남각이 아닌 것을 확인해야 하였다.

"?"

그는 남각에 대해서 한동안 생각해보았다. 만화가 세상을 떠난 뒤의 깊은 상심이 이런 경지를 만들어 주었다면 과연 그 상심의 뜻도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남각스님!"이라고 깎듯이, 경칭으로 불러서 그를 조심스럽게 데리고 숲길을 내려가는 일이 불이에게 남은 일이었다.

그는 더이상 남각을 다룰 처지가 아니었다.

우녀에게 맡겨보아야 한다. 인담에게 맡겨보아야 한다. 아니 무욕도에 남아있는 과현 수원 수월 합두 등에게도 맡겨 보아야 남각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기운은 바로 남각의 몸에 칭칭 감겨있는 것이었다.

성하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붓다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초조하며 말한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다녔고 당신과 함께 잠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피소 치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아땁 디포 브하바(appa deepo bhava) ——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본문 중에서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그대의 집은 또,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은행 잔고를, '나는 조약돌로 본다'고 붓다는 말한다.
그대는 삶의 바닷가에서 찾기지 조약돌을 모으며 놀고 있는 어린아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해변의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삶은 그대 손에서 빠져 나와 미끄러져 간다. 그대는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망쳐 버려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왕소에 그대가 재물을 탐하기 때문이고, 옷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경우 · 이경욱 옮김
신국판 · 전2권 / 각권 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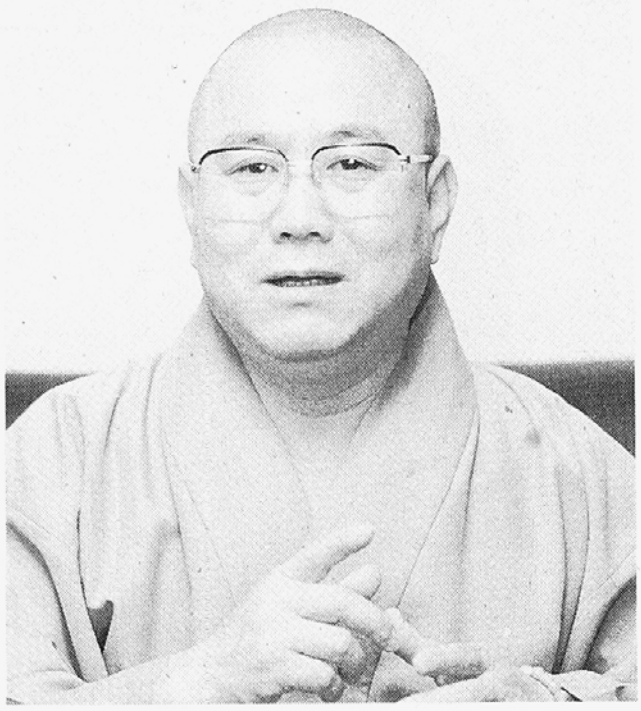
1.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해설을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오는 7월말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의 방북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분단이후 처음이 될 평양의 평화통일기원 남북공동법회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남북종교교류의 새 물꼬를 트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숨은 공로자라면 단연 법타스님(50, 평불협 상임부회장)을 꼽는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수요인터뷰

남북 불교교류 예비실무대표단장

법 타 스님



"남북불교 일불제자 인식 마음열고 교류해야죠"

92년 평불협 창립 "민족화합 가교역 통일의 그날까지"

-남북한 최고 불교지도자들의 공식 합의로 순수 종교교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추진한 이번 합의에 불교계는 물론 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러한 합의를 이끌어낸 단장으로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물론 보람이 큽니다. 올해는 해방 50년이면서 분단된 지도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천만 이산가족은 생 노 병 사 뿐 아니라 애별리고(愛別離苦)·구부득고(求不得苦)·원증회고(怨憎會苦)에다 세월이 많이 흘러 월남 1세대는 얼마 안 있으면 열반에 들 오음성고(五陰盛苦)의 8苦까지 겪고 있습니다. 통일은 그러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불교가 그동안은 현실감각이 둔해 타종교에 비해 사회적 문제에 대해 많이 외면해 왔지만 실은 어느 종교보다도 중생의 苦에 눈을 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이끌어 내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방 50년이 되는 8·15 직전에 평양에 가 남북한 불자들이 한자리에서 평화통일을 간절히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케 됐으니 불보살께서도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에 감응해 빠른시일내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해방 50년 '염원' 절실

-북측은 북경에서 5월23일 회의까지만 해도 판문점에서의 법회 아니면 응하지 않을듯 강경자세인 것으로 보였는데요.

▲사실 23일엔 북측에서 8·15판문점 법회를 강력히 주장했고 24일 월주스님이 참석한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으나 강경자세를 계속 견지했습니다. 그러나 월주스님께서는 '북에 가는 것을 구걸하지 않겠다. 통일을 염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방북하려는 것'이라며 합리적이고도 순수한 종교교류를 강조했습니다. 월주스님이 다른 약속으로 나가신 이후 실무회담이 계속됐는데 그자리에서 결론을 내자고 했지요. 체제는 달라도 같은 조계종이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것으로 오래 끌면 안된다는걸 역설했어요. 박태호 위원장이 남북간의 통로를 뚫고자 하는 책임감에서 이곳까지 나온 것 아니냐면서 우리측이 제안한 6가지 협의항목 자료를 주었지요. 그러자 심상련 서기장이 얘기하더군요. 지난번 서신에서는 첫번째 안이 8·15관문점공동법회 개최였는데 이번에 두번째로 바뀐 것은 근본적으로 안할 생각있는 게 아니냐는 질타였지요.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안하려는게 아니고 못하는 현실을 이해해 달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북측에서 서울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했어요. 그러자 박태호 위원장이 '결론을 내자'며 제안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논의를 해 7월말~8월초 월장스님 방북이라는 최종 합의를 보았지요.

-그럼 판문점에서의 법회는 북측에서도 포기한 겁니까.

▲아니지요. 8·15판문점법회는 시간이 아직 있으니 연구과제로 남긴 것이지요. 이번에 또 합의한 것이 매년 양력 4월 8일 서울과 평양을 왕복 방문 공동법회를 열자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언제부터 민족의 아픔인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요.

▲지난 1986년 미국에 유학가서 부터입니다. 북한 서적도 읽고 하면서 민족의 아픔인 분단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을 '적'으로 대해 왔는데 미국사람들에게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코리언'이더군요. 또 88년 한국승려론 최초로 백두산 천지에 올랐습니다. 천지물에 몸을 담고 통일을 위해 몸 바치기로 원력을 더욱 다졌지요.

-평불협(조국평화통일 불교인협의회)은 언제 만드셨습니까.

▲91년 10월23일부터 LA에서 남북 해외불교지도자가 참석한 「조국평화통일기원대법회」에 참석하고 오는 차속에서 월주스님에게 통일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 이듬해 2월 창립했습니다. 북한불교에 대해 무지상태인 불자들에게 북한불교에 대해 알려주고자 전문적 연구기관인 '북한불교연구소'도 평불협내에 개설했습니다. 이번에 남북 블교교류의 가교역할을 한 정산스님과 지현정사도 평불협 미주본부에 속해 있습니다.

매년 공동법회 합의

-북한불교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입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북한에는 현재 60여개 사찰에 3백여명의 승려가 있고, 조선불교도연맹에 가입된 신도수가 1만명인데 초파일 때 등켜는 것을 보면 1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도 초파일을 '불탄절'이라 했는데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89년 승려양성을 위한 불학원이 설립돼 있고,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비롯 성도절과 열반절에 각 사찰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23일 실무대표회의에서 박태호 조불련위원장의 '붉은 물을 들이려는데 잘 안된다'는 말에 '드는 것은 빠지는 것이고 빠지는 것은 드는 것, 들지도 빠지지도 않는 것이 민족이고, 통일이다'고 여유있게 답변하신 것이 기자들 사이에서 인상깊게 회자되었는데요. 북한불교계에서 신임이 퍽 두터우신 듯 싶습니다.

▲박태호 위원장과는 10번쯤 만났지요. 내가 보안법으로 옥살이를 해서인지 퍽 신뢰감을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상대가 우리 처지보다 못하다고 해서 은연중 무시한다거나 흑백논리로만 보면 불신만 쌓게 됩니다. 다 같은 일불제자로서 포용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정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박태호 위원장이 월주스님과 합석한 자리에서 '법타를 붉은 물 들이려고 하는데 잘 안된다'는 말을 또 합디다. 그래서 그랬어요. 30년 넘게 회색물 들였으면 됐지 알록달록 색깔 들여서 뭐 하느냐고….

이경숙 기자

약 력

- 1946. 5. 16 충북 청원 生
- 1965. 12. 8 법주사서 추담스님 은사로 득도
- 1976. 동국대 인도철학과 졸업
-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 미국 사우스베일로大 명예 철학박사
- 선원사, 기림사 주지 역임.
- 현 평불협 상임부회장, 불교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 〈중원에 서서〉〈북한불교답사기〉 등 저서.

나의 수행일기

정기웅 〈경찰대 법학과 교수〉



"바위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성철스님 가르침 삶의 지침…군법당 만들기도

학교 뒷산에는 오월이 되어 연초록의 나뭇잎들이 생명감을 자랑하고 약수터 가는 길목에는 영산홍이 붉게 피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대학이 산속에 자리잡고 있어 사시사철 자연의 변화를 느끼면서 지낼 수 있다.

불교와의 인연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절에 가면서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 법문을 듣게 된 것은 대학 3학년 때이다. 개헌반대를 외치는 학생들에 대하여 정부가 위수령을 내려 군인들이 장갑차를 동원하여 학교에 들어왔고 대학은 문을 닫았다. 대학문은 늦가을이 되어서야 다시 열리고, 며칠 뒤 청담스님이 대강당에 오셔서 법문을 하셨다. 스님께서는 맑고 밝은 모습으로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듣는 중에 나는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갖고 있던 '개인이 사회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그 뒤부터 청담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조계사에 토요일마다 나갔다. 당시 조계사에는 원각회에서 청담스님을 모시고 금강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 금강경을 매일 독송하고 법문을 매주 들으니 여러가지 의문이 생겨서 도선사로 큰스님을 찾아 뵙고 싶었으나 초보자라 미루고 있던 중에 청담스님께서 열반에 드셨다. 덕이 높은 스님이 계신다면 아무리 멀리 계셔도 찾아가 법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지 못해 후회되었다. 그후부터는 홀륭한 스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용기를 내어 친견하러 갔다.



1973년 대학원에 들어가 원각회의 회원들이 자주 가는 해인사 백련암을 찾았다. 성철스님께 인사드리고 칠일기도에 들어가 매일 삼천배를 하였다. 어느날 스님께서 '바위가 살았느냐 죽었느냐'고 물으셨다. '죽어 있는 것'이라 하자 원자와 중성자 이론을 말씀하시면서 살아 있는 것이라 하셨다. 전생에 관한 것도 최면술을 이용한 외국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이용해 설명해 주셨다. 기도를 마칠 때는 윤회에 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후부터 스님의 가르침은 나의 수행의 지침이며 일상생활의 과제가 되었다.

대학원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하여 탱크포를 백발백중으로 명중시키는 전방의 기갑부대에 근무하게 되었다. 부대에서 몇사람의 사병이 모여 군법당을 만들기로 했다. 빈막사를 개조하여 법당을 만들기로 하여 부대장님의 승락을 얻고, 군수과의 사병은 목재를 제공하고, 목공일은 경험있는 사병이 하였다. 부대앞 마을의 한의사가 불심이 깊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부족한 목재와 못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이야기하니 아무말 없이 내어 주셨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었다. 부처님은 원각회 신도님들이 모셔주시고, 절이름은 석주스님께서 충효사(忠孝寺)로 지어주시면서 현관도 손수 써 주셨다. 봉불식 때는 석주스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병들에게 수계를 주시고 법문도 하셨다. 그뒤부터 나는 불사에는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며, 불사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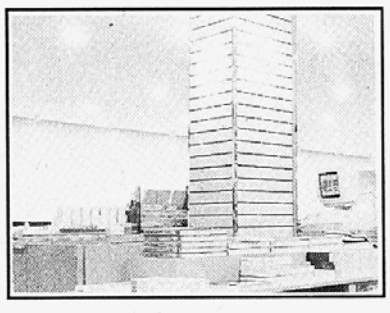
제대후 광덕스님께서 법문하시는 불광회에 나갔다. 스님께서는 원래 밝고 환한 마음 그 자체를 그대로 내어 쓰라고 가르쳐 주셔서 생활속에서 스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길에서나 전철에서나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였다.

1993년 대학교수가 되어 전주로 이사를 하였다. 대학교수가 될 때는 지금부터 정말 수행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점차 법회에 나가지 않게 되고 스님들께도 좀더 알면 물으러 간다는 핑계로 잘 가지 않았다. 이제 박사학위 논문도 끝나고 서울로 이사를 와서 한달에 한번 불광사의 철야정진 법회에 나가 좌선을 하며 일상생활 중에도 화두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가정과 직장을 갖고 생활을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값진 일일 것이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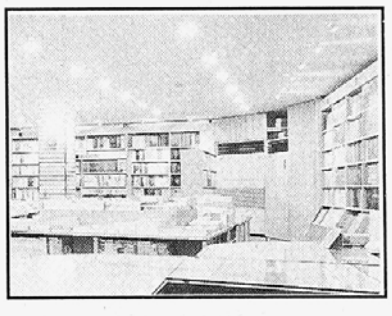
교수로서 좋은 논문 많이 쓰며 학생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스승이 되고, 가정에서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이며, 항시 밝고 환한 웃음을 짓는 자신되기를 부처님전에 기원드리며 이글을 맺는다.

불음가득 · 법향가득

책 방 여 시 아 문 으로 오십시오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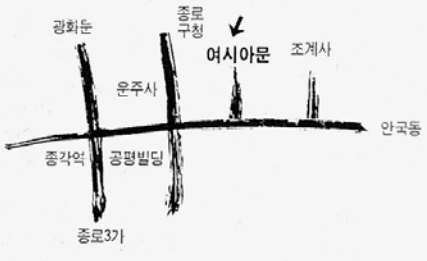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 4. 1.부터 시행)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 · 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

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점직통)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 :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 32, 59,84,159,331,588-2번

또다른 세월 기다리는 천년 성보

4월25일 아침, 지난밤 늦게 금강산에서 돌아온 탓에 평양 도착 이후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던 나는 어렴풋이 산꿩 우는 소리에 잠이 깨었다. 이 시대에 꿩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도시, 그곳이 바로 평양이었다.

식사를 마친 우리 일행은 건국이념으로 불교를 내세웠던 고려의 수도 개성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평양 서남쪽을 흐르는 대동강의 '충성의 다리'를 건너, 1866년 이 땅의 선조들이 불법으로 개국을 강요하며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온 '샤만호'를 격침시킨 양각도의 기념비를 곁어보면서 160여㎞를 달리니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이 한 눈에 들어왔다.

사람으로서의 솔직한 확신이라면 젊은 불자로서의 지나친 교만일까.

거꾸로 보는 판문점

이젠 만나게 해야한다. 판문점이든 평양이든, 누구든 공명심에서가 아닌 진정한 통일보살의 의지를 지닌 사람이라면… 정치인과 군인들의 만남은 서로를 덜 경직되게 할수 있으나 순수한 민간인들의 만남은 정말로 그들의 가슴을 쉽게 열 수 있다.

불교도연맹 인사들을 만났을 때 8·15법회에 관하여 미리 통일원 승인을 합의의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우리 불교 지도자들이 얼마만한 의지로 정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불가'에 대해 또 어떤 대책을 진지하게 숙의하였는지 들어보지 않을 수 없다.



◇개성에 있는 관음사 대웅전.

거꾸로 보는 관문점은 왜 아직 우리가 고장난 국토를 수리하지 못하는지 그 문제점을 비로소 앞뒤로 완벽하게 돌려보는 것 같아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평양에서 개성까지 온 거리의 절반도 못미쳐 당도할 서울. 그러나 아직 서울은 너무 멀리 있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과 손끝에서 나부끼는 유엔기와 태극기를 뒤로하고 느티나무숲 우거진 고려박물관에 들리니 전쟁으로 미아가 된 천년불교 보물들이 모두 그곳에 와 몸을 피하고 있었다. 전쟁에 몸을 소신 공양한 불일사, 헌화사, 흥국사 돌탑이 불구가 된 몸으로 남쪽에서 온 불자를 엉겁결에 맞이하고 있었다.

한때 안화사, 흥국사를 비롯 20여개나 되던 개성지방의 사암은 이제 관음사, 안화사, 대흥사등 서너곳 뿐이다. 박연폭포 옆 관음사만이라도 보고 갈려하니 택시까지 불러주기는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 가지 못한단다. 직지심경 활판등 우리 불교의 보배가 그래도 문화유적은 귀중하게 다루려는 저들의 본능적 불심에 의해 푸른 녹을 옷삼아 입고 또다른 세월을 기다리고 있었다.

개성에서 돌아온 이후는 조선불교도연맹 접촉관계로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소위 조직(?)에 성공하기 위해 정산스님과 나는 묘향산 백두산 관광도 포기하고 26일 하루종일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안내원에서부터 관광국 담당자들, 줄이란 줄은 모조리 붙잡고 다양한 방편을 강구하였다. 안개 속에 있던 조선불교도연맹 간부들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27일 아침. 심상련서기장과 류일진 책임지도원이 호텔로 찾아오면서 부터이다. 막상 그들을 만나니 입술이 마르던 조급함은 다 사라지고 그저 반가움에 잡은 두 손을 오래도록 놓치를 못했다. 불제자들도 일불의 자손인 형제들인 바에야 이또한 이산가족의 상봉이 아니고 무엇이랴.

심상련서기장은 이미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지만 류일진선사는 첫만남임에도 드물게 미남인데다 나보다도 더 앳되보여 이내 친근감이 더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조선불교도연맹 청사에 안내된 것은 오후 2시. 그들의 승용차를 타고 개선문을 지나 모란봉 공원 기슭에 이르니 문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던 젊은 형제들이 뜨겁게 우리를 맞아주었다. 1층 중앙 현관에 생전의 김일성주석이 굉



◇개성 판문점입구의 도로 표지판. 서울 70Km의 글씨가 너무도 뚜렷하다.

법사를 현지지도하는 모습의 대형 사진을 인상깊게 살펴보고 우리를 위해 축원해주겠다는 법당스님의 안내로 구내 법당에서 서기장과 함께 방문신고 예불을 올렸다. 예불중 정산스님은 감정에 북받치는등 목이 메이기도 했으나 나는 만가지 생각에 예불중 내내 번뇌에 사로잡혀 있었다.

일불 제자들의 상봉

북한의 스님들은 알려진 바와같이 예불시 법의 장삼을 수하기는 하나 절을 하지않고 모든 예를 합장으로 대신했으며, 평상시는 보통의 일상복 정장으로 삭발하지 않은 모습이어서 오히려 필자가 봉직하는 종단과는 유사한 점이 많이 느껴졌고 이들도 이점은 나와 같은 생각인듯 젊은 층일수록 나에게 많은 호감을 가지는 듯했다.

2층의 접견실로 인도되어 황병대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은 이날의 첫 회동은 약 3시간 반동안 정말 격의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처음으로 북한에 와서 편안한 시간을 가졌다.

지현정사가 본 북한불교

인삼의 고장 古都 개성 〈3〉

고려 불심 간직한 관음·안화사등 잘 보존
스님들 머리기르고 예불때만 장삼 입어

한때 짙은 고려인삼 냄새가 코를 찔렀고, 소나무와 바위가 많아 송악(松嶽)이라 불리기도 했던 고도 개성은 이제 어디선가 포연이 몰려오는듯 했고, 관목들은 기가 죽어 아직도 숲을 이루질 못한채 몸을 사리고 있었다.

이미 관문점 법회가 어렵게 되고 다른 방식의 남북 접촉이 이루어지는 듯하나 그 실무를 협의하고 돌아온 필자로서는 더없이 조급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좀더 일찍 적극적으로 대북 접촉의 상한선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데 대해 아쉽기 그지없고, 원칙없이 서두르는 불교의 교류방식 역시 불안하기 짝이없다. 남쪽불교 그 누가 상대를 해도 부족할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그들의 답 안에서 그들을 만나



◇안화사 대웅전 탱화.

상담통해 사바의 팔만사천 고통 알게 돼
'회향하는 마음으로 여생 보낼것' 원세워

주부신행담

세상의 손발 되어 ⑤·〈끝〉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어지간히 세상사를 겪어서 알만큼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상담전화를 받으면서부터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했다.

그것은 나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고 사바세계가 고통을 견뎌야 하는 세상이라 했지만 낱낱이 다른 얼굴 만큼이나 고통의 종류도 다양하고 팔만사천 번뇌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상담실이 알려지면서 불교방송에서 '피안을 향하여'에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 부끄러워서 여러번 사양을 했지만 한참 구룡사가 포교당 불사를 거의 끝내며 막 사회로 눈을 돌리고 포교에 힘쓰고 있었던 시기라 그런 이야기와 전화상담을 하며 느꼈던 어려움들과 극복하고 난 뒤의 굳어진 신심에 대해서 방송에 나가 이야기를 했다. 방송을 통해 상담실 전화번호가 알려지면서 상담전화도 늘어났다.



한번은 어느 월간지에 '불자가정 우리는 도반'이란 난에 기사가 나가고 주소가 함께 수록되었는데 어느날 교도소에서 집으로 편지가 줄줄이 오기 시작하자 깜짝 놀랐다. 잡지를 통해서 알게된것을 알고서야 안심이 되었다. 사연마다 절절하고 애절했다. 한결같이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지금은 불법에 귀의하여 참회의 날들을 지낸다는 이야기였다. 나의 근황을 묻기도 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불서가 없어 부탁한다고 하면 즉시 책을 사 보내주기도 하였다. 특히 인상적인 사람은 교도소에서 계를 받고 선혜라는 불명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느 일요일 스님이 오셔서 법회를 한다고해서 참석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계를 받고 불자가 되었다고 했다. 난생처음 들어보는 부처님 말씀은 구구절절 가슴에 와 닿았고 크게 깨달아 새사람 되고자 발심정진하여 요즘은 1백일 기도 중이라고 했다. 내가 편지 답장을 보내거나 말거나 선혜는 지금도 편지를 보내오고 있다. 책을 잘받아 보았다거나 소식 잘 읽었다거나 요즈음은 더욱 정진 기도하면서 사회로 다시 나가는 날 반드시 새사람 되어 이웃을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나는 한번 먹은 마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닐 것을 어머니처럼 타일러 주었다. 스스로도 괴로운 일이지만 남은 가족이나 특히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할 것인가. 답너머 먼 산과 푸른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부럽다고 자유에 대한 동경의 심정도 편지로 보내오기도 하지만 감상적인 이야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오는 편지도 가는 편지도 모두 검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전하고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는 써서는 안된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형량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했지만 물을 수가 없었다. 다만 반드시 새사람 되어 나와야 된다고 이를 뿐이었다. 교도소 같은 곳을 열심히 찾아와서 재소자를 순화하고 바른 마음자리 알려주어 불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좋은 스님을 만난 덕분에 참으로 마음 편해 졌고 불자가 되었노라고 하였다.

우리모두 자기의 위치에서 항상 실천하는 생활불교인이 되려고 노력할때 불교의 발전도, 복지사회도, 불국정토의 이상사회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세상의 '귀'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건들을 듣게 되고 부탁 또한 많이 받게 됐다. 불교인의 참여도가 적다며 일손을 뷰탁하는 복지시설에서의 자원봉사요구로 뜻있는 봉사자들과 함께 요즘에는 무료노인급식소에 나가고 있기도 하다.

금년 3월에는 불교텔레비전이 개국되었고 불교라디오 방송과 함께 불교포교를 활성화 하고 있다. 특히 불교텔레비전에 '불교상담실' 프로가 생기면서 우리상담실에서 촬영에 참여해 주고 상담도 하며 자료제공도 해주며 또 다른 포교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이사회 어두운 구석 구석에서 더많은 보현행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숨은 일꾼들에게 무량공덕을 발원하며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날을 이제는 한숨 돌리고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가지게 해준 부처님! 회향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도 보살도를 행하며 살게 되기를 서원해 본다. 같은 도반으로 살아가며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거사와 나를 도와 함께 일하는 여러 도반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동 여래성〈구룡사 진리의 전화 회장〉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기초교리 입문서 천수경강의
천개의 손과 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석우스님 지음



교리강좌 10년 강의의 총결산
완전한 기초교리입문서 완성

불교를 알고 싶은 사람은 이제 혼동하실 필요없습니다.
불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 책 속에서 찾으십시오.
불교의 기초에서 완성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루었습니다.
진작에 누군가 썼어야 할 책입니다.
이제 불교를 미신이라고,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불교는 진리이고, 과학입니다.
지성인과 미래인을 위한 종교입니다.

석우스님 지음 / 신국판 / 404쪽 / 값 6,500원

관음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0번지 전화 720-1147~8

九山禪師 上堂法語
九山禪門
九山門徒會 엮음



승보종찰 송광사 조계총림의 초대 방장이셨던 九山禪師의 상당법어를 엮은 『九山禪門』은 스님께서 총림의 수행대중을 위해 설하신 법어 중의 精髓요, 心地法門으로 한국불교의 우뚝한 봉우리인 九山禪師의 자상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 한국선의 도도한 흐름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 『九山禪門』은 수행납자를 비롯해 깨달음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에게 긴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624쪽 / 4×6배판, 양장본 / 값 20. 000원

불일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21-1 법련사 Tel. 736-4003/ Fax. 738-1592

부처님의 사상과 말씀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경전
법구경의 세계



이원섭풀이
신국판 / 398쪽 / 7,000원

법구경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만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다.
그 속에는 광활한 불법의 세계와 불교사상의 전반이 담겨져 있다.
불교학자이자 시인인 저자가 어려운 용어나 문구에 대한 설명을 비롯,
각각의 게송에 맞는 경전 속의 적절한 비유와 예화,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여러가지 경험을 들어 설명하고 있어
법구경의 진수를 읽으면서 체득할 수 있게 해 준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02) 720 - 9372 · 3 FAX (02) 723 - 0646

우리는 환경 가족



◇5일은 환경의 날. 상계동 선지혜보살은 수환·유정 두자녀와 가정의 재활용품을 함께 분리하는 환경가족이다.

별명 '쓰레기 감량꾼' 대명화 보살

아이들도 분리 수거 선지혜 보살

"물건을 살때에는 재활용이 힘든 플라스틱류 페트병에 든 제품은 사지 않아요.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에 들어있는 것만 사고, 마시고 난 우유 종이팩은 씻어 말려 모으고, 신문지와 광고지도 따로 모아 뒷면이 하얀 광고지는 묶어 절에서 다른 보살들과 공부할때 연습장으로 사용하지요" 부천 중동신도시 반달마을의 대명화보살(60세).

쓰레기 줄이는 일이 환경을 살리고 불법을 행하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실천해 온 보살은 동네에서 소문난 '쓰레기 감량꾼'으로 통한다.

그런 보살의 영향으로 남편 또한 부엌에서 사용한 물을 모았다가 화장실에 사용하는 등 물 한방을 아끼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환경을 살리는 노력이라 굳게 믿으며 남다른 실천으로 환경을 지켜나가는 환경가족이다.

시장을 볼때도 장바구니를 꼭 챙기는 대명화보살은 "10년전부터 인스탄트 식품은 거의 먹지 않았어요. 요즘은 석왕사 생협에서 무농약농산물을 사서 자연식을 주로 이용합니다"라고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철학'을 피력했다.

환경문제를 가정에서부터의 조용한 혁명을 통해 해결 하고자 하는 불자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작은 실천으로 이룰 수 있는 환경운동 실천행의 하나가 바로 가정의 쓰레기 분리수거다.

상계등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선지혜보살(37세)도 두자녀와 함께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이용 등 가정에서부터 환경교육을 자연스레 실천하고 있는 환경가족.

"다마신 캔과 야쿠르트 병은 세탁실 수집통에 신문지는 베란다로 각자가 사용한 것들은 스스로 분리해요 "라고 말하는 황수환(상경국 1)군은 엄마가 모아주는 천연색 신문광고지로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 유정이와 함께 종이접기도 한다.

"아이들과 함께 종이접기를 하며 왜 종이를 함부로 버리면 안되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큰 효과가 있어요"라고 엄마 선지혜보살은 말하기도.

이처럼 부처님의 생명존중과 연기의 가르침을 환경보호로 실천하는 불자가족의 환경가족화는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이은자 기자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 생활속에서 실천 확산

나와 이웃과 그리고 자연은 하나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는 창립 5주년을 맞아 자비의 전화 상담원의 상담활동에 대한 의식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올 3월현재까지 등록된 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상담원의 56.2%가 사회봉사를 하기위해 카운셀러 대학에 입학했다고 답했으며 39.1%가 월평균 2회의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후의 상담성과에 대해 43%가 대체로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자비의 전화 5년 기념 상담원 대상 설문조사

사회 봉사 '56%' 일에 만족 '43%'

28.4%가 자비의 전화 이외에 타 상담기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더불어 대다수의 상담원들이 실제상담 사례교육, 전화상담이론교육등의 보충을 지적한것으로 설문분석결과 드러났다.

장애인 수계법회 봉행

지난 28일 불교간병인회

불교간병인협회(회장 정진스님)는 지난달 28일 장애인 포교활성화의 일환으로 장애인 수계법회를 속리산 법주사에서 실시했다.

국립재활법당 직원불자회의 주최로 봉행된 이번 수계법회에는 재활원생, 재활병원환자, 직원불자와 불교간병인회 자원봉사자등 60여명이 월성스님을 계사로 수계를 받았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이진이의 장
고독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

이 향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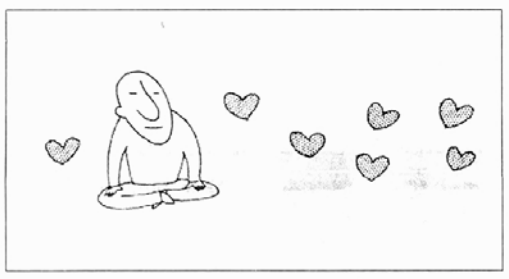
이런 후 건강칼럼

<25>

마음과 뇌의 기능 ②

뇌세포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자가증식 가능

지난번에 뇌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뇌는 더이상 분화할 수 없을 만큼 성숙되어 한번 손상을 입으면 재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적은 적이 있다. 한번 입은 손상부위의 뇌세포가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세포군이 관장을 하고 있던 뇌기능은 자연히 못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언어를 관장하는 뇌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말을 못하게 된다. 감정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뇌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희로애락의 감정변화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런 결과들은 이미 손상된 뇌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론화되어 있었다. 지난번 소개한 뇌기능에 관한 칼럼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깜짝 놀랄 외신 한가지가 소개 되었는데 그게 바로 성인의 뇌세포도 자란다는 실험의 결과이다. 외신에 전해진 사실의 내용은 이렇다.



사람의 뇌세포는 인체의 다른 세포와는 달리 한번 성장이 끝나면 더이상 생겨나지 않는다고 알려졌으나 일정한 조건 아래서는 자가증식을 한다는 것을 발견한 실험의 결과를 담고 있다. 미국의 코넬대학 교수인 스티븐 골드먼 박사의 연구결과인데 그는 어른의 뇌세포를 분리시켜 이를 실험실에서 성장시키는데 성공했다는 보도이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동물실험에서 암컷 카나리아에 남성호르몬을 주입하면 암컷이 울게 된다는 것에 착안하여(카나리아는 숫컷만 노래한다) 그런 실험을 했더니 남성화된 카나리아가 정말 노래를 부르는 것은 물론 암컷의 뇌세포 배열구조가 변화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이 결과는 다 자란 카나리아의 뇌세포가 일정한 조건(남성호르몬을 주사)아래에서 뇌세포의 성장이 계속한다는 증거를 얻게 된 셈이다. 말하자면 뇌의 세포가운데 일종의 선구세포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고 인간의 뇌에서도 어떤 부위의 뇌세포가 선구세포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규명만 된다면 뇌세포 재생을 위한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시실 나의 임상적인 경험으로 볼때도 아주 난폭한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환자를 선택적으로 뇌의 전두엽을 잘라낸 수술을 받은 환자를 몇사례 본적이 있다. 전두엽이 절제된 환자는 거의 감정을 잃은채 식물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수술을 받은지 10년또는 그이상 지난 환자를 보았더니 점차 옛날의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듯한 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신경원이 새롭게 자란다는 실험의 결과가 아주 그럴 듯하다. 뇌의 기능이상으로 생기는 많은 질병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佛教美術大典

우리 민족과 한국미술의 자존심을 이 책으로 살렸다!!



대한민국 제38회 출판문화상에 빛나는 「한국불교미술대전」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및 일본 경도대학 부설 불교미술 연구소에서 우리문화의 역량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 한국 불교미술 집대성.
■ 팔만대장경 이래 한국불교문화사 최대의 불사.
■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불교미술
■ 국문판에 이어 일어판, 영문판도 곧 이어 발간.
■ 한국출판사상 보기드문 대기획에 최고급 인쇄.

○ 8절판(26.5×36㎝)의 초대형크기
○ 각권 312~376페이지의 올컬러 인쇄
○ 본문 180g의 스노우화이트지 사용
○ 호화양장제본에 낱권케이스, 금박 포클로스
○ 정가 630,000원(전7권)

韓國佛教美術大典 중요내용

① 佛教彫刻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조각사와 함께 컬러도판을 싣고 도판해설을 하였다.
② 佛教繪畵	한국불교회화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컬러도판과 함께 도판해설을 실어 이해를 도왔다.
③ 佛教建築	사찰의 건축과 함께 불탑, 부도, 불비등 불교건축을 논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④ 佛教工藝	불교의 공양구, 의식구, 사리기, 기와등의 불교공예품을 서술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⑤ 現代佛教美術	오늘날에 제작된 대표적 불교미술품을 게재하고 대표적인 불교미술가를 작품과 함께 소개하였다.
⑥ 世界의 佛教美術	우리나라와 함께 불교미술이 발달된 인도, 중국, 일본, 몽고, 동남아 제국의 불교미술의 컬러도판으로 소개하였다.
⑦ 佛教美術資料集	불교미술에 필수적인 불교미술용어사전과 함께 불교미술품의 실측도와 각종 문양을 실었다.

현대불교 구독자 사은행사로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전권 630,000원을 490,000원에 현금 및 할인 분할해 드립니다.
법보시용으로 최적입니다.

주문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부
TEL:(02)737-0695
FAX:(02)737-0696

공급처
(주)한국색채문화사
TEL:(02) 333-0051
FAX:(02) 338-7781

'화두와 실천' 창간호 21세기와 불교 특집



무크지 〈화두와 실천〉(발행인 효림) 창간호가 도서출판 행원에서 나왔다.

창간호의 주요내용은 「창간특집」 21세기와 불교, 그 화두를 찾아서 △21세기와 불교의 역할(박성배) △21세기 문경사의 전환과 전망(김용운) △21세기와 정신주의(이정복) 「실천논단」 변화하는 세계, 전환기의 삶 △불교의 자주사상과 통일의 길(지선) △다매체 다채널시대와 대중문화(최창섭) △교육의 위기와 교육개혁의 방향(이명주) △지방자치시대와 불교(심익섭) 「특별대담」 종교와 문학 그리고 불교문학 – 청화 최순열 유한근 박찬두 「창간시선」 오현스님 외 12인 「평론」 문학 – 한의 내연과 생명사상(장영우) 영화 – 동아시아 영화와 현실비관의식(송희복) 등이다.

성철스님 법문집 인기 서울도서전 불서 판매

'95서울국제도서전에서 판매된 불서 베스트10 가운데 성철스님의 법문집이 2종이나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스트10는 다음과 같다.

△불자예절과 의식(김길원 · 불광) △금강경 강의(무비 · 불광) △자기를 바로 봅시다(성철 · 장경각) △죽는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을 어찌 알랴(오현 · 장승) △영원한 자유의 길(성철 · 장경각) △십우도(이기영 · 한국불교연구원) △버리고 떠나기(법정 · 샘터)

21세기 여는 불서 '눈길'

인류 위기 극복위한 불교적 해답제시
서구 사상보다 월등…분야별 작업 필요



20세기는 이미 끝났다. 지난 시기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전쟁이 할퀴고간 시기였다면, 새로운 21세기는 분명 대립과 갈등을 넘어선 조화의 원리가 큰흐름을 이루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

'불교를 알면 21세기 보인다' 등 미래 준비서적 나와

은 그 지향점과 방법을 불교에서 찾으려 한다.

그 대표적인 책으로는 세계적인 석학 토인비와 일본창가학회 인터내셔널회장 이케다 다이사꾸와의 대담을 묶은 〈21세기를 여는 대화〉(일조각)를 꼽을 수 있다.

탈유럽 · 탈기독교적 입장의 토인비와 법화경의 정신으로 시종일관하는 이케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못 긴장을 유지하면서 인간과 사회 정치 철학과 종교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며 새로운 시대를 전망하고 있다.

토인비는 "문명의 성쇠는 그 민족이 가지는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문명은 종교의 질에 의하여 결정난다"고 밝히고 "불교에 의한 생명활동의 분석은 현대서구의 어떤 분석보다도 상세하고 정밀한 것"이라고 말한다. 즉, 새로운 사상체계의 중심은 불교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트인비는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고 그것을 지탱하여 갈 종교는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여러 악과 대결하여 그것들을 극복하는 힘을 인류에게 주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충고를 잊지 않는다.

〈불교를 알면 21세기가 보인다〉〈21세기를 여는 일곱가지 이야기〉도 눈여겨볼만 하다. 두 책 모두 한국불교사회연구소가 지난해 개설한 '21세기 불교아카데미'와 '모색 아카데미' 강좌내용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불교의 보편성과 미래의 비전'(이남곡 · 전불교사회연구소장) '새로운 문명관, 인간상을 찾아'(법륜 · 불교환경교육원장) 등 7편의 글로 구성한 〈…21세기가 보인다〉(정토출판사)는 불교사상이 현대문명의 위기와 이의 극복을 위한 대안의 세계관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필자들은 이 책에서 현대사회의 근본모순은 "인간의 가공할 행위능력과 변치 않는 가치이념체계와의 괴리"이며, 이를 원인으로 전쟁과 굶주림 환경파괴가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대립의 세계관과 힘을 추구하는 가치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상 창출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법륜스님은 새로운 인간상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실천에 책임을 지는 사람, 나아가 실천의 삶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 즉 '작은 보살'"이라고 규정한다.

〈21세기를 여는 일곱가지 이야기〉(모색 펴냄)는 세기말적 징후와 변화의 소용돌이로부터 헤쳐나올 수 있는 나침판을 제공하고 인류미래의 지평을 그려내고 있어 '불교미래학'으로 읽힌다. '인간 자연 사회 문명관의 대전환'(김찬호 · 연세대강사,문화인류학) '연대의 철학, 진보의 비전'(송희식 · 불교사회연구소장) 등의 글로 구성했다.

이밖에 정병조교수가 최근 펀낸〈한국불교철학의 어제와 오늘〉(대원정사)도 주목된다. 이 책에서 정교수는 새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철학적 기초의 제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그 방향은 불교철학과 현대사상과의 만남이며, 이 만남을 통한 불교철학의 현대적 구축이라고 강조한다.

이밖에 불교밖의 책으로 〈21세기를 여는 상상력의 창조자들〉(이동욱 편, 여성신문사) 〈21세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배영사) 〈21세기를 바라보며〉(라이샤워) 등이 새로운 문명을 전망하는 미래서로 읽을 만 하다.

정성운 기자

양주동박사 학문세계 '한 눈에'

동대출판부 전집 묶어…전 12권중 5권 나와



'인간국보' 무애(無涯) 양주동 선생의 전집 전12권 가운데 1차분 5권이 '양주동기념사업회'(회장 김영배)에 의해 발간됐다. 동국대출판부 펴냄.

전집발간에는 이등림(동대명예교수) 이병도(〃) 김영배(동대교수) 이종찬(〃) 임기중(〃) 등 후학들이 참여했다. 간행위원장 임기중교수는 "무애선생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석학이면서도 시인이요, 수필가요, 비평가며, 번역문학자이면서 문장가요 뛰어난 논객이었다"고 기리고 "선생의 진면목을 살피고 국학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전집을 펴내게 됐다"고 밝혔다.

1차분은 '고가(古歌)연구' '여요전주(麗謠箋注)' '국학연구논고' '문주반생기(文酒半生記) · 인생잡기' '지성의 광장' 등 5권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고가연구'는 일본인학자 小倉進平의 역저를 단번에 휴지조각으로 만든 향가연구의 집대성이다. 이 책은 우리 문화 · 사상의 원류인 신라가요 사뇌가등 향가를 어휘 · 어법 · 음운고증의 꼼꼼함을 거쳐 해설한 것으로, 小倉의 '향가 및 이두의 연구'에 나타난 오류를 일일이 거론해 반박하고 있다.

'고가연구'를 집필한 때는 무애가 재직하던 숭실전문이 폐교되던 시기였다. 무애는 수필 '연북록(硏北錄)'에서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고가 전수(全首)를 사벽에, 심지어 뒷간에도 붙여두고 자나 깨나, 앉으나 누우나, 그 풀이에 온 정신과 힘을 기울였다. 어떤 것은 밥먹다가 문득 깨쳐 일어나 한바탕 춤을 추어 집사람에게 미친 양 오해된 적도 있었다."

양주동기념사업회는 계속해서 '조선의 맥박/무애시문선/지나 명시선/영시 백선' '국문학정화/상주 국문학독본/문장독본' '민족문화독본(상 · 하)/T · S엘리어트 전집' '평론/번역본' '수필/시' '논문' 등 2차분(6~12권)을 올해안에 완간할 예정이다.

한편 기념사업회는 1차분 출판기념회를 지난달 27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송석구 동국대 총장, 무애선생의 장남 양인환 박사, 현평효 전제주대총장, 김종길 고려대교수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인간탐구 동양사상서 찾자"

옥타비오 파스 작품 '인도의 빛' 등 2권 김홍근씨 곧 번역출간



◇옥타비오 파스

지난 90년 중남미 작가로는 다섯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멕시코의 시인 옥타비오 파스가 불교등 인도사상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조건을 탐구한 저서 〈두개의 불꽃:사랑과 에로티시즘〉과 〈인도의 빛〉이 문학평론가 김홍근씨에 의해 번역 출판된다.

파스의 두 저서는 지난 52년 그가 駐인도 멕시코대사로 인도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인도와 동양이 그에게 던져왔던 물음에 대한 나름의 답을 간추린 것.

파스가 인도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낀 것은 탄트라 불교에서처럼 우주의 진리가 남녀의 포옹같은 육체적 상징으로 보여진다는 점이다. 즉 만다라가 보여주는 것처럼 가장 추상적인 진리가 가장 구체적인 형상과 색깔로 육화(肉化)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씨는 "시인 파스에게 만다라는 우주를 담고 있는 최고의 시"라며, "파스는 만다라에서 영감을 받아 시각시(視覺詩), 혹은 공간시(空間詩)의 이론을 정립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인간이 자연 · 초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인도에서 파스는 진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관이 탄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한다.

두 저서의 번역을 거의 완료하고 출판사와의 계약을 남겨놓고 있는 김씨는, 지난 7일 백화점화랑에서 서구문명을 동양사상으로 바라보는 또다른 이방인이자 포스트모더니즘의 스승이라 불리우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소설가 보르 헤스에 대한 강연을 갖기도 했다.

명사추천 불서 100선

부모은중경



권 경 술
〈수필가〉

예로부터 범죄 · 질병 · 전쟁 · 빈곤 등은 인간의 복된 삶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아직껏 그 해결은 커녕 공해와 인간성 상실과 같은 새로운 과제만 더 추가되었을 뿐 해결의 실마리마저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근간에는 어버이를 살해하는 패륜사건도 잦아지고 있어 인류의 내일이 암담한 상황이다.

그런데 석존께서 2천5백여년 전에 설하신 '부모은중경'의 일깨움이 인류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득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부처님께서 '부모은중경'을 통해 일깨워 주신 부모님의 열가지 큰 은혜는 첫째, 잉태하여 지켜주신 은혜 둘째, 낳을 때 고통을 받으신 은혜 셋째, 자식을 낳고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는 은혜 넷째, 쓴것은 삼키시고 단 것을 뱉아서 먹여주신 은혜 다섯째, 아이는 마른 자리에 누이시고 자기는 젖은 자리로 나아가신 은혜 여섯째,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일곱째, 깨끗하지 않은 것을 씻어주신 은혜 여덟째, 자식이 멀리 떠나가면 생각하고 염려하시는 은혜 아홉째,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쁜 일도 마다 아니하시는 은혜 열째, 끝없이 자식을 사랑하시는 은혜 등이다.

오늘날 효도교육은 부모님께 무조건 효도하라는 주입식 강요 아니면 좀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권선징악적 사례의 나열에 급급하다. 이는 자못 자녀들의 반발심을 유발하여 오히려 역효과의 소지가 없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의 지중한 은혜를 먼저 일깨워 줌으로써 효도하여야 하는 까닭을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 효도교육 방법의 일대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착안사항인 셈이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데서 비롯될 수 있고, 그 실천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구체화되므로 굳이 남의 사례를 나열하여 비교 우열을 촉발시키는 어리석은 짓은 삼가야 할 것이다. '부모은중경'에서는 구체적 개별적 효행방법의 나열을 지양하고 효행의 가장 수승한 방법으로 '부모은중경'을 읽고 또 거듭 펴낼 것을 강조하신다.

그리고 '부모은중경'은 불효에 이르는 과정과 그 유형 및 불효에 따른 지옥의 고통을 일깨움으로써 근기 하열한 중생으로 하여금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도의 길로 나아가도록 간곡히 이끄시는 내용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육도집경'에서 석존께서는 '나는 세세에 모든 부처님네의 지극한 효행을 본받아 행했으므로 덕이 높아지고 복이 왕성해져서 마침내 부처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신 바로 미루어 효도의 길이 곧 부처를 이루는 수행의 방편이 됨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 효행을 실천한다는 것은 곧 인륜을 깨달아 인간성을 회복함을 뜻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면 소아적 이기심이 순치되어 범죄 · 질병 · 전쟁 · 빈곤 · 공해 등등 인류위기를 잠재울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부모은중경'의 현대적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효 실천은 수행정진 기본 폐륜등 인류위기에 경종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알기쉬운 불교	편성부	불교방송
2	삶에서 깨어나기	틱낙한	장경각
3	불교성전	편찬회	동국역경원
4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5	어린이 불교	능관 외	역경진흥원
6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일타	효림
7	42장경	라즈니쉬	성하
8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권영한	전원문화사
9	선 100문 100답	진제	파란나라
10	하산	홍주	불지사

구입문의:(02)737-0695

동의보감에도
차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있는
중요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햇·차

"지리산 야생 작설차로
심신을 투명하게,
갓 볶은 햇차로 더욱 깊고
신선한 맛을 느껴보십시오"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작설차의 시배지인 지리산 청정지역의 맑은 이슬을 머금고 자란 야생 차잎을 정성껏 채취하여 전통 제다법 그대로 가마솥에 덖고 멍석에 비비는 과정을 수회 반복하여 자연건조 시킨 후, 참나무 숯불이 전해주는 은근한 온도에서 오랜 경험과 육감으로 두세 시간 정도의 열처리를 거쳐 탄생한 작설차는 은은한 향과 깊은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 수제 작설차 제다법 3대째 전승 ▮농림수산부지원 한국전통식품 개발사업체 선정
▮청학제다원 설립 ▮KBS 6시 내고향 출연상품 ▮智異山 茶天地로 상호변경

으로지 전통 수제차만을 저희 **지리산 차천지**에서는 보다 자렴한 가격에 작설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하고 그객 여러분들과의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품의 주문과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茶天地

지리산 茶天地

본사: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250
전화 : (0595) 83-9665, 83-3478 / 팩스 : (0595) 83-9665
서울사무소 (02)934-9923 / 부산사무소 (051) 241-5051

인터뷰 | 데뷔 10년 맞은 불교소설가 백금남씨

"마음의 눈 뜨지 못한 상태서 감히 '구도소설' 내놓습니다"

올해로 데뷔 10년을 맞은 불교소설작가 백금남씨가 그간의 작품을 주제별로 정리 두권의 책으로 낸다.

85년 〈십우도〉로 삼성도의문화저작상을 받으며 본격적인 불교소설만 써 온 백씨는 '염주' '화두' '삭발' '죽비' '금어' '심우'등을 주제로 발표한 중단편을 묶어낼 계획이다. 책의 제목은 〈화두에서 심우까지〉. "이 작업은 10년의 결산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온 과정이기도 하다"는 백씨는 "보다 깊이있는 작품쓰기에 매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껏 써온 작품 정리
'화두에서 심우까지' 펴내

순탄치 않은 유년기와 청년기를 거치고 승려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막노동판의 일꾼으로 살아왔던 백씨는 〈십우도〉에 아직도 많은 미련을 갖고 있다. 스스로 풀어내야 할 '화두'를 소설을 통해 던져 놓았지만 정작 자신은 마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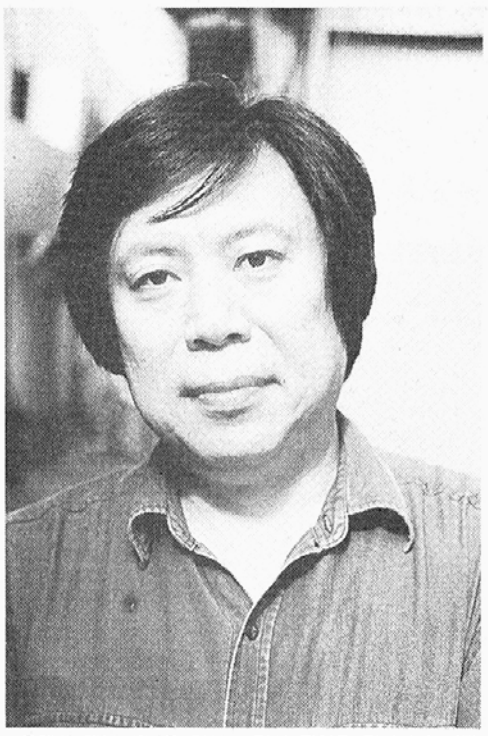
지난해 〈칼의 어록〉을 발표해 구도소설의 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던 백씨는 최근 〈칼의 어록〉을 원래 제목이었던 〈돈오돈수 돈오점수〉로 표지를 갈아 내놓기도 했다.(민족사) 자신이 전문 불교소설 작가로 한 계단 더 올라 서고자 하는 의욕의 차원에서 제목갈이를 했다는 것이다.

윤회를 소재로
6천매분량 장편 탈고단계

10년 묵은 그릇의 깊이를 토대로 백씨는 요즘 6천매 분량으로 두개의 장편을 쓰고 있다. 이미 탈고 단계에 있는 한 작품은 윤회에 관한 것. "두 가족의 비극적인 인연 속에서 그 아말로 쳇바퀴처럼 돌고도는 윤회의 실제성을 보여주기 위해 썼다"는 이 소설은 윤회가 인간의 삶 그 자체의 연속성임을 절실하게 제시한다.

또 한 편의 이야기는 밀교와 현교에서 바라보는 부처님에 대한 관점을 다루고 있다.

임연태 기자



◇올해로 데뷔 10년을 맞아 그간의 작업을 정리하며 신작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백금남씨.

불심시심 〈21〉

청산유수가 바로 음악

風塵湖海十年笻 (풍진호해십년공)	풍진의 바다 십여년의 지팡이
來打蓬來第一峯 (래타봉래제일봉)	봉래산 제일봉을 이제야 두드립니다
獅子聲中無別曲 (사자성중무별곡)	사자의 울음소리도 특별한 곡조없고
靑山流水自琴工 (청산유수자금공)	푸른산 흐르는 물 절로 교문한 거문고

이 시는 중관(中觀)대사가 서산대사를 뵙고 지은 시이다. 중관대사는 서산대사의 문하에서 한 유파를 형성한 큰 스님이다. 기록에 의하면 중관대사는 그의 외숙이 되는 뇌묵(雷默)대사와 함께 서산의 법맥을 이은 분이다. 임진왜란때 있어서 뇌묵대사는 의병을 일으켜 조헌(趙憲)선생과 함께 금산에서 순절하였고, 중관대사도 영남에서 의병을 일으켰었다. 이런 기록으로 본다면 위의 시는 전란이 지난 뒤에 금강산 향토암으로 스승이신 서산대사를 찾아 뵙고 지은 것으로 이해된다.

서산대사도 전란때 직접 참여하여 승병을 이끌고 국가의 위난을 구제하셨으니, 이 만남은 더더욱 감회어린 만남이었으리라. 여기서 말한 풍진이란 산가에서 보는 속가의 어수선한 살이가 아니라 전란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모진 풍상의 풍전이다. 10여년의 세월을 이러한 어수선함으로 지내고 만나뵙는 스승과 제자의 자리이니 그 감회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는 그저 담담하게 만남의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 풍진 속의 10년이라는 시간 거리만을 말하여 그 동안의 막혔던 심회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여 거기에 비례되는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승구에서도 금강산의 제일봉을 찾아왔습니다 하여 스승이 계시는 곳을 꾸밈없이 말하였지만, 이 제1봉이라 함이 가장 크신 스승이라는 사모의 정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듯하다. 이렇듯 큰 스님의 가르침, 황금사자의 외치심으로 비유되지만, 그렇다하여 특별한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스승님 그 자체가 가르침이요, 배움이다. 마치 저 푸른 산의 흐르는 물이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 있을 수 없는 자연의 음악임과 같다.

10여년만에 만나는 스승에 대한 예경이 이렇듯이 담담하다. 정감이나 언어의 노출이 없다. 그렇지만 무궁한 말씀이나 끊임없는 정감이 흐르는 한편의 시이다. 역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전국 지상 문화유적 CD롬에 담는다

문화재 연구소 제작
3만여 정보 수록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소장 장경호)는 최근 2개년계획(95년 5월~96년말)으로 〈전국문화유적총람〉 제작을 위해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작업과 함께 유적현황 전산입력작업에 착수했다.

문화유적총람은 유적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로 인한 유적의 훼손을 사전에 막기 위해 동산문화재와 소장문화재를 뺀 지상문화유적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유적목록. 이 목록에는 국가·지방지정문화재는 물론 비지정문화재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훼손 위험이 높은 향토유적과 발굴중인 유적이 모두 담겨 문화재보존및 정비, 학술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연구소가 2장의 CD롬 타이틀에 담게될 유적총람에는 77년 발간된 문화유적총람 전 4권에 담긴 1만1천6백70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조사된 1만7백84건, 조사를 통해 새롭게 파악된 1만여권의 유적 등 3만여건 이상의 유적정보가 실릴 예정.

9월말까지 자료보완을 마치고 올해말쯤 CD롬 1장에 담겨지는 유적총람에는 유적별로 명칭, 소재지, 내용, 관리자(소유자) 등의 일반 정보 와 함께 참고문헌 등이 컬러사진과 곁들여 상세하게 소개된다. 2차년도인 내년에는 각도 아래 시·군·읍단위의 유적까지도 조사를 마쳐 CD롬에 담을 예정이다. 연구소측은 이 총람이 완성되면 유적지도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문화재연구소 장경호소장은 "문화재보존이 주로 지정문화재에 국한돼 많은 문화유적이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총람이 유적보호와 보존에 지침서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적 사유 체험 시어로

소설가 한승원씨 '사랑은 늘…' 내놔

소설가 한승원씨의 두번째 시집 〈사랑은 늘 혼자 깨어있게 하고〉가 나왔다.(문학과지성사)

첫번째 시집 〈열애일기〉와는 달리 철저하게 불교적 사유의 체험들을 시어로 승화시킨 작품들로 묶여져 있다. 한씨의 두번째 시집에는 '촛불연가' 시리즈 53편과 '도선사 가는 길' 시리즈 29편, '산해경(山海經)' 시리즈 5편등이 실렸다.

'촛불연가' 시리즈에서는 깊은 사유와 명상의 체험을 통한 사물의 성찰이 드러나고 있다.

또 '도선사 가는 길' 시리즈에는 인간의 일상적 삶에 표출되는 감정과 행위들에 대한 분석적 검증이 예리하게 시도되고 있다.

오세영 교수 시집
'무명연시' 재출간

지난 86년에 출간됐다가 절판된 오세영교수(서울대 국문과)의 시집 〈무명연시(無明戀詩)〉가 재출간됐다.(현대문학)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까지 연작으로 썼던 작품들이다. 불교사상적 안목으로 세상을 읽은 오교수의 작품은 한결같이 삶의 아름다움과 죽음의 공허함을 맥박처럼 지니고 있다.

이대원씨 수필집
'만남의인연' 출간

20여년의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충남 대천으로 내려가 수필쓰기에 몰두했던 이대원씨가 그간 써 온 작품들을 모은 수필집 〈만남의 인연〉을 냈다.(자유지성사)



◇금강산 표훈사의 부도群.

북한문화재 사진전 열린다

8월말까지 통일연수원

통일원은 광복 50주년을 즈음해 북한에 산재해 있는 조선시대의 사원건축등 문화재와 유물등의 사진전을 정리, 지난 1일부터 8월30일까지 서울 수유리 통일연수원 북한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황해남도 구월산의 안악 월정사등 사원건축과 일반건축, 성곽건축, 유물·유적 등의 사진이 분류되어 전시되고 있다. 불교문화재로는 묘향산 보현사, 강원도 금강군의 표훈사 등 20여개 사찰의 전경과 내부건물을 찍은 사진을 비롯, 개심사 금동9면관음보살입상등 불상 5점과 기타 불교유물 수십점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다.

경주경마장 유적 발굴
이달 중순경 본격 착수

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주영)는 경주경마장 건설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관리국의 유적발굴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경주시와 협의를 거쳐 6월중순부터 본격적인 발굴에 착수키로 했다.

경주경마장 건설은 지난해 6월 문체부에 의해 사업계획이 허가되어 그동안 지표조사에 이어 도시계획변경 및 진입로 확충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4월에 경마장 건설사업단을 발족한후, 현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 및 지장물건을 조사하고 있다. 착수일로부터 2백43일간 작업 예정인 발굴조사는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전담하고 5억여원의 발굴경비는 한국마사회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문화유적발굴허가를 계기로 유적보존과 개발을 놓고 팽팽히 대립해온 고고학계와 개발을 원하는 시민측은 시굴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유적 발굴 사진전
부여문화재연구소

문화재관리국 부여문화재연구소는 개소 5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6월24일까지 연구소 2층 전시실에서 광복 이후의 중요 문화유적 발굴과정과 성과를 사진으로 모은 발굴 전시전을 개최한다.

백제문화권 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사지, 경주 황룡사지 유적발굴 사진 등 80여점의 관넬과 부여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출토유물 40여점을 전시한다.
(0463)33-5901.

황룡사지등 정비로
경주시 재정난 가중

문체부와 경북도가 경주지역의 많은 문화유적을 문화재로 지정만 해놓고 보수비일부를 경주시 지방재정에 떠맡겨 지자체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경주시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황룡사지 정비와 월성 사적지 정비등 19개소에 52억원을 투자하면서 이중 30%인 17억원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존자암터 문화재 지정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서귀포시 하원동 소재 존자암지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했다.

존자암지는 석가의 6번째 제자인 발타라존자가 불법을 전파했던 곳으로 전해지는 절터. 도문화재위원회는 존자암지가 한국 불교의 기원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보고, 보호구역을 정하기로 했다.

광복50년 연변공연
우담바라 어린이합창단

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단장 정우스님)이 광복 50주년을 기념, 오는 7월27일부터 8월1일까지 중국 연변에서 공연을 갖는다.

중국 연변 태평소학교 '꽃봉오리 예술단' 초청으로 중국 나들이를 떠나는 40여명의 합창단은 "음성공양등을 통해 제주의 아름다움은 물론 한국불교를 알리는 사절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각오가 대단.

천진불어린이무용단
제주서 정기공연 성료

5세부터 11살 어린이 26명으로 구성된 천진불어린이무용단(단장 제용스님)이 지난달 28일 제주 문예회관에서 두번째 정기공연을 가졌다. 이날 공연에서는 길소정외 3명의 어린이들이 출연, 바라춤을 선보였다.

또 '봄맞이' '연등의 환희' '선녀들의 합창' '장고와 우리가락의 향연' 등도 펼쳤다.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부설 인생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효림의 책에는 깨달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쉬운 불교책



읽기 쉽습니다. 배우고 행하기 쉽습니다.
일타 큰스님의 가르침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불교 초심자들이 배워야 할 수행생활의 기본정신 『초발심자경문』. 일타 큰스님의 해설로 세 권이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죽음 뒤의 세상……,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인생……,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저절로 얻게 된다.
I. 큰스님 주변 이야기
II.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III.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 윤회담
IV.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V.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신국판 / 242면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 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이 책을 펼쳐들면 누구나 알기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작하는 마음≫과 함께
진리를 향한 첫걸음을 옮겨 보자.
자유롭고 깨어 있는
나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신국판 / 342면 / 값 5,000원

신간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후회없는 구도자의 삶으로 이끄는 열가지 보배경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 큰스님께서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은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불교신행의 나침반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바로 이 속에 복된 삶과 성불의 비결이 있다.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환희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잡이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이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공양문
신간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
72년 초판 발행 이후 끊임없이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수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져 읽혀온 책.
불서가 귀하던 시절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렵사리 구해다 놓고
두고두고 읽었던 책.
이제 그 책을 효림에서 새롭게 증보
발간하여 불자님들 앞에 선보입니다.
시원시원한 편집, 읽기 쉬운 가로씨기,
한글 번역문과 함께 실린 원문으로
초심자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발심·수행·구경(究竟)의 길을
법공양문 과 함께 여행하며
참다운 법공양의 기쁨을 느껴 보십시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02)587~6612·6613 팩스:(02)586~9078

북녘에 부처님 말씀 띄운다

국방부, 대북방송 '자유의 소리'에 종교프로 검토

8월초부터 북녘 동포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군승단(단장 강남석법사)은 국방부 민사심리전 참모부와 '자유의 소리' 방송에 종교 프로그램을 삽입시키는 문제를 매우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자유의 소리' 시간에 각 종교의 진리를 담은 프로를 삽입시키는데 동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

대북방송에 종교 프로그램을 삽입시키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은 일반 뉴스시간에 각 종교계의 소식을 전하거나 초파일, 크리스마스등에 관련 특집프로를 방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북경에서 열린 한·중·일 불교대표자 회의가 방송됐으며 지난 4월 28일 중부전선 모사단에서 봉행된 부처님 오신날 점등식 소식도 북녘에 전해졌다.

국방부가 본격적인 종교내용을 담기로 한 것은 종교적 교감을 통해 민족동일성을 확인하고 인성의 순화를 위한 것이란게 군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종교방송은 주1개 프로를 하루에 4번 반복해서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방송시간은 20분 미만이 될 것이란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종교대북방송을 검토해 왔으며 불교와 천주교가 적극적인 협조의 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종교는 대북방송에 프로그램이 삽입될 경우 프로그램과 인력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승단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북녘동포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청소년포교 활성화논의 포교토론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은 지난달 30일 제5차 월례 포교토론회를 개최, 청소년 포교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조달현국장(청소년교화연합회)은 청소년 법회에 전문성 있는 청소년 지도자 배치, 청소년 지도교안 개발, 수련시설 확충 등을 주장했다. 이어 현파거사와 박영동 교법사(동대부고)는 불교와 기독교 학원의 포교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재범스님(동쪽나라 주간), 원명스님(금강정사), 황학현원장(불교교육원)등 10여명이 토론에 나서 청소년 포교대책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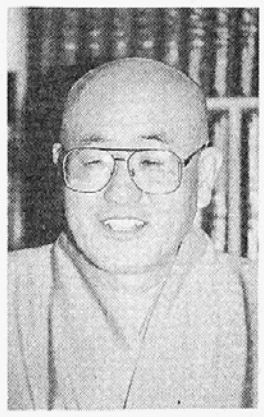
문체부 장관상 수상

동대부중, 청소년 등반대회

(사)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소속 동대부중팀이 지난 5월28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청소년 등반대회'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청교련 소속 동대부중은 불암산(서울 노원구 소재)을 5개의 포스트로 나누고, 10명이 1개조가 되어 각 포스트 간에 주어진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면서 진행된 이번 등반대회에서 문체부 장관상인 국토사랑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게됐다.

구독신청:737-8881



인·터·뷰

LA 불교방송 이사장 정산스님

미국 전역과 카나다까지 방송

"미국 전역과 카나다 지역에까지 미주불교방송이 전파를 탑니다. 교포들의 호응또한 좋고요."

지난달 1일까지 8박9일간 북한을 방문하고 25일 귀국한 정산스님(LA 수도사 주지)은 올해 1월에 2대 미주불교방송이사장에 취임하여 부처님의 불음전파에 여념이 없다.

미주불교방송은 94년 2월부터 라디오코리아와 FM서울방송을 임대하여 매주 토요일 아침 7시~8시까지 1시간동안 불교계소식과 자비의 소리(스님설법, 권기종 교수 교리강좌)를 방송한다.

1백만 교포들이 거주하는 LA지역은 라디오 청취율이 유난히 높아 시간을 늘려달라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정산스님은 오는 7월말경 동대 송석구총장의 초청강연과 가을쯤에는 불자연예인을 초청하여 공연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미주 불교방송은 각 사찰의 주지스님 및 포교사회법사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을 맡고있다. 〈김원우 기자〉

북경 한국홍법원 개설한다

교민들 모여 신도회 결성…조계종 중국불교협 협조 얻어

북경에 한국홍법원이 개설된다.

북경 거주 상사주재원, 국영기업체 및 대사관 직원, 교민등 80여명의 한국불자들은 지난달 25일 오주호텔 오주청에서 '재 북경한국홍법원불교신도회'를 결성하고 조계종의 행정적 지원하에 향후 홍법원을 개설키로 했으며 이날 모임의 증명법주인 월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종단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三自정책에 의해 외국인에 의한 포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조계종은 중국불교협회(회장 조박초)의 협조를 얻어 적당한 장소를 물색 신도들의 법회봉행 및 각종 교민행사장소로 사용케 할 예정이다. 홍법원 불교신도회 지도법사에는 호묵스님(북경대 사회과학원 연구원) 초대회장에는 김춘성씨(한국통신공사 북경사무소장), 부회장에는 김장환씨(주중 한국대사관 일등서기관) 민경회씨(선경 북경지사 김영춘 부장부인) 등이 선출됐다.

김춘성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불자들의 불심을 심화시키고 불교모임을 보다 정례화 하게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재 북경 한국홍법원 불교신도회는 지난해 3월부터 광제사에서 매월 1회 법회를 봉행해 오다 이번에 정식으로 신도회를 결성케 됐으며 북경에는 이외에도 유학생들이 주축이 된 '북경한국인불자회'가 있어 정암스님을 지도법사로 격주로 법회를 열고 있다.

〈이경숙 기자〉

대구가스사고 희생자 49재

태고종 경북종무원 오는 14일

태고종 경북종무원(원장 박관허 스님)은 오는 14일 오전11시 대구 두류공원내 시민광장에서 '국가재난 소멸 기원 및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희생자 위령 49재'를 봉행한다.

박서봉 총무원장을 비롯 희생자 유족이 참석할 이번 위령재는 영산재보존회원들의 불교전통의식으로 봉행할 예정이다.

용인 세계불교대전 3만8천여명 관람

지난달 3일 용인자연농원에서 개막한 세계불교문화대전이 불자 및 일반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자연농원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관람객은 총 3만8천1백83명이 입장했으며 불교신자는 주로 50대 여성불자와 단체관람객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전시중인 문화유물은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성철스님관, 중국유물관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귀띔이다.

창종 50년 기념법회

법화종, 총무원장 취임식도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김대호스님)은 7일 오전 12시 타워호텔 랙스홀에서 제50주년 창종기념법회를 거행한다.

또한 4월3일 제54회 중앙종회에서 제15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김대호스님의 취임식도 함께 봉행할 예정이다.

불은가득 법향가득
책방 여시아문



◇ 군자봉 영각사 지장성지 조감도.

영각사 납골당 건립

11일 극락영묘전 기공…5백평 규모 97년 준공

매장위주의 장묘제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납골사찰이 건립된다.

경기 시흥 영각사(주지 현 님)는 지난달 27일 납골당 시설운영 소개 및 사업계획 설명회를 갖고 오는 11일 극락 영묘전 건립 기공식을 봉행한다고 밝혔다.

영각사가 건립하는 영묘전은 교계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납골법당으로 4백68평 규모에 1만1백8기의 납골을 안치할 수 있다. 특히 영묘전에는 항온항습 탈취등 초현대식 첨단시설을 갖추게 되며 49재를 비롯 영가들을 위한 기도공간으로 지장전도 함께 마련된다.

영각사 주지 현법스님은 "묘지로 인한 자연훼손을 막고 불교장례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영묘전을 건립하게 됐다"며 "수도권 내의 무연고 묘지를 수용하는 등 사회복지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각사는 영묘전을 비롯 무량수전 등 전각불사를 진행, 오는 97년 6월경 준공할 예정이다.

목탁소리

불교와 교육개혁

임 연 태
〈취재2부 차장대우〉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되자 많은 국민들이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매년 입시때마다 '이대로 좋은가'라는 의구심이 대두됐던 우리의 교육제도가 이로써 해방후 열두번째의 새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환영' '만시지탄'이라는 용어들이 동원되고 있는 이번 개혁방안은 과거 열한번의 탈바꿈에 비해 매우 획기적인 게 사실이다. 그것은 방법의 수정이 아니라 기본틀을 바꿔 놓겠다는 원칙이 강하게 포함됐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나 대학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와 교육의 참의미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낳았다는 '교육개혁방안'. 새롭게 제시된 이 방안을 놓고 불교계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불교 각 종단 산하에 적지 않은 종립 학교가 있고 청소년 단체 또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종교와 교육의 유기적인 관계를 두고 그간 불교계가 고민해 왔던 점은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실제로 학교 교육에 끼워 맞춘 교화사업이 간헐적으로 전개돼 왔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판이 바뀌고 있다.

교육 현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획기적인 불교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자비의 실천은 곧 전인교육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불교를 바탕으로 한 특별활동으로 개인 인격형성에 큰 기여를 할 수도 있다. 각 대학이 '성적순'이 아닌 '인간됨됨이 순'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했을 때 교육현장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각 종립학교와 종단이 앞장서서 새 교육 풍토에 알맞는 신선한 교화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개혁방안'을 앞서가는 '교화개혁방안'이 불교계에서 속히 제시되길 기대한다.

해외통신

불서 CD롬에 수록 '육조단경' 등 70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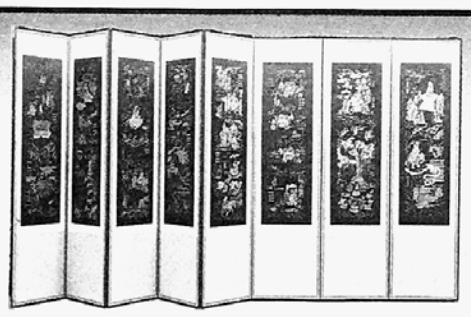
일본 화원(花園)대학의 '국제선학원연구소에서 '임제록' '육조단경'등의 선서적 70여종을 CD-ROM 한장으로 정리한 'Zen-Base CD'가 곧 발행된다. 총4만8천자의 한자 데이타베이스, 선용어 한자변환 소프트웨어, 선불교관계의 문헌목록 등의 계획도 포함해서 제작되는 이번 CD-ROM은 플로피디스켓 2, 3백장의 정보를 한장에 수록, 실용화시킨 것으로 단순한 전자북 형태에서 벗어나 전자검색과 전자색인 동시고속검색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6월부터는 컴퓨터 국제정보망인 인터넷에 연구소의 사이트를 마련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무료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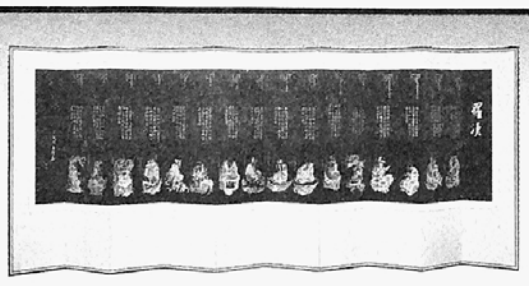
이번 작업을 담당한 윌리스 부소장은 학문의 기회균등, 정보의 지역격차해소를 통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가능하기를 바란다고 작업의 취지를 이야기했다.

불기 2539년 부처님오신날 특별기획 불자보시품 대할인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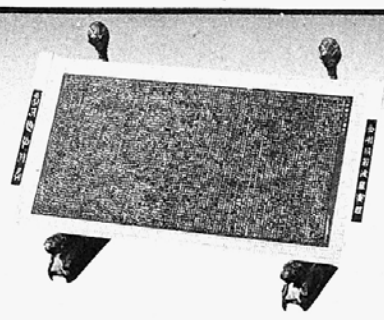
■ 구입 문의 三田佛事 (02)732-6095 732-6096
• 클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수신자부담)



선착순 20점
• 정 가 : 298,000
행사보급가 : 298,000
• 석가세존부처님일대기병풍
장엄하신 세존부처님의 일대기를 금화로 조성한 살아있는 병풍입니다.
■ 8폭 높이 : 5자5치(167㎝) 폭 : 12자(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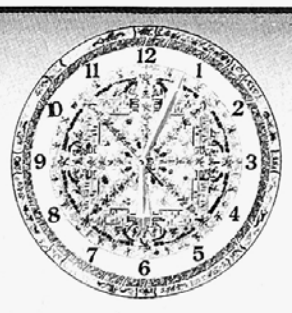
선착순 38점
• 정 가 :
행사특가 : 300,000
• 16나한 수행상 탱화병풍
중국최고의 화사 계문대사의 원작을 공단에 금화로 조성한 영험높은 병풍
■ 10폭 높이 : 5자6ㅊ (169.7㎝) 폭 : 15자(약 454,500㎝)



선착순 48점
• 정 가 :
행사특가 : 340,000
• 비경 천불금강경 경판
부처님 전분을 양각하여 모시고 가운데 금강경을 입체사경한 비경
■ 재질 주석 99%(순금개금) ■ 규격 505×255×8(㎜)



선착순 108점
• 정 가 :
행사특가 : 68,000
• 국보제32호(고려팔만대장경 정밀축소)
금동반야심경
■ 재질 : 순동 24K개금
재질 : 가로260×세로99(㎜)



선착순 7점
• 정 가 :
• 행사특가 : 90,000
■ 만다라호신 벽시계
불법의 원력을 바로 느끼게 하는 신비의 영성세계-만다라
• 완전입체만다라 • 규격 41(㎜)



■ 염주메달
영롱한진주로 빚어진 부처님상 18K(9.375g 천연루비 22개
• 정 가 :
행사특가 : 288,000



■ 팔 정 도
(앞)관세음보살상(뒤)반야심경 순은 99.9% 18.75g(체인포함)
• 정 가 :
행사특가 : 32,000



선착순 108점
• 정 가 :
행사특가 : 98,000
■ 24K 순금
황금반야심경백자
• 경봉대선사 친필
• 크기 : 3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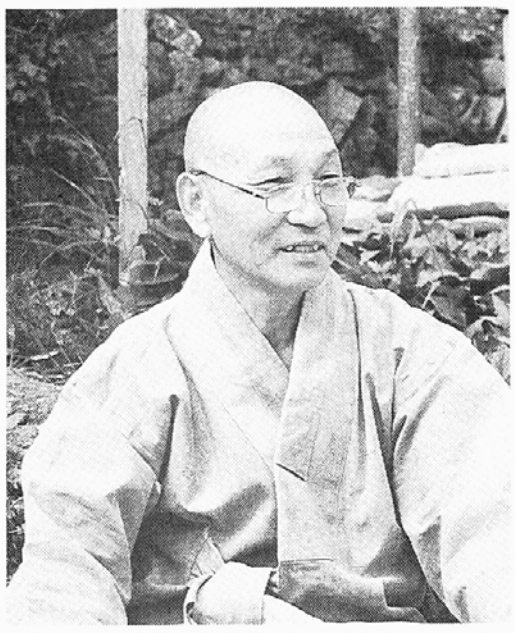


선착순 118점
• 정 가 :
행사특가 : 85,000
■ 국보 제29호
황금에밀레종(성덕대왕신종)
• 재질 : 순청동·순금개금
• 크기 : 235×185×270(㎜)

"전쟁없는 정토세상 기원합니다"

보훈의 달 6월에 만난 무공 스님

6·25 참전서 '살생' 참회…군포교 원력 다해



◇군포교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무공스님은 살생업보를 씻으며 참회수행을 하고있다.

6·25전쟁의 참담한 소용돌이속에서 질긴 목숨을 이어 45년이라는 세월의 질곡을 건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군인들 앞에 선 무공스님(가평 청오사주지).

세수 70의 나이에도 아랑곳 없이 몸소 군부대를 다니며 일주일내내 장병들의 정신강화를 위해 애쓰는 스님은 보훈의 달 6월이면 더욱 바쁘게 움직인다.

부산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중이던 1950년, 스님은 6·25가 발발하자 무작정 군번도 없이 포항 3사단 수색대에 학도병으로 가담했다. 부상으로 후송돼 부산 동래 육군종합학교 육군보병학교를 거치는 우여곡절끝에 보병 제 6사단 2연대 2대대 5중대 소대장으로 부임, 강원도 화천 북한강 도하작전·용문산전투등 휴전때까지 최전방 전투에 참여했다.

치열한 전투가 끝난 아침이면 수많은 젊은 꽃봉오리들의 주검을 보며 살생의 참회를 수도 없이 많이 했다는 스님은 "전쟁중에 어쩔수 없이 살생을 하고 부상도 대여섯번 당했지만 업보가 많아서 그런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며 잠시 눈을 감고 지난날을 회상하기도.

휴전후 결혼을 했으나 갑작스런 부인의 죽음으로 또다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스님은 범어사 고암스님을 만나 " 제행무상"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출가를 단행했다. 스님은 송광사 구산스님이 자신에게 던진 물음 "옳은 중이 뭘꼬?"를 화두로 삼아 참선공부를 하고 만행을 하면서 전쟁중의 살생 업보를 씻으려 참회수행을 계속해 왔다.

20여년전 지금의 가평 청오사에 자리를 잡고 은둔의 삶을 시작하려 했던 스님은 80년 초 우연히 인근 부대 호국연호사의 정원찬 군법사를 만나 군포교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전생에 과연 무슨 귀한 인연이 있었을까. 총을 맨 군인의 모습이 아닌 그 군인들의 애환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스님은 군인들곁에 다가섰다.

군법사들과 함께 미개척지나 다름없었던 군포교를 위해 무공스님은 외부지원법당인 청평 국군병원, 66사단, 제 3야수교 그리고 예하부대법당인 26예단, 기갑여단, 포병여단등의 법당설립과 법회 진행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군대 선배로, 군인들의 정신적인 아버지로 수행자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포교에 대해 잘 모르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군법당을 방문해 군인들과 함께 법회를 보며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것은 인간방생의 중요한 포교라는 것을 불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라 말하는 스님.

지난날 핏빛으로 물들었던 아픈 기억들을 무공스님은 어느새 불법의 따스한 푸르름으로 다시 피어내고 있었다.

가평=이은자 기자

가야산 골프장반대 산중회의

해인사 총림 신도등 6백여명 건설저지대회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건설을 반대하는 산중회의가 해인사에서 열렸다.

법보종찰 해인총림(방장 혜암)은 지난달 28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혜암스님을 비롯 스님과 신도등 6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가야산골프장건설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혜암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자연파괴는 인간성을 상실하게 한다"며 "가야산을 파괴하는 골프장건설 저지에 불자들이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어 해인총림은 성명서에서 민족문화유산과 환경보전을 생각지 않는 졸속적인 개발행정을 신랄히 비난하고 건설 승인 철회, 피해주민의 생존권 보장, 당국의 공개사과등을 요구했다.

한편 해인총림은 지방자치제에 대비해 사찰주변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설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중앙승가대 모금행사

9일, 부산·경남후원회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위원장 월주스님)는 오는 9일 오후 6시 부산 허심청(종합문화센터)에서 '한국불교 중흥과 중앙승가대학 발전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중앙승가대학 부산·경남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법회는 학사이전에 따른 기금마련과 부산·경남지역의 불자들에게 중앙승가대 발전안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쌍계사 학생회 창립

쌍계사(주지 고산스님)는 지난달 13일 쌍계사 불교학생회를 창립했다. 이날 창립법회는 중학생불자 45명이 참석했다. 쌍계사학생회는 월호스님을 지도법사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법회를 갖는다.

조계종·선학원 관계개선 모색

13일 간담회 열기로…원로스님 회동

조계종 선학원대책특별위(위원장 법등스님)는 지난 1일 회의를 갖고 종단과 선학원과의 관계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오는 13일(장소와 시간 추후 확정) 열릴 간담회에는 조계종 원로스님을 비롯 총무원장, 종회의장, 대책특위위원 집행부 각 부장스님과 선학원 원로 및 이사스님등이 참석해 조계종과 선학원의 현안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특위는 조계종 종법개정심의위원회에 「법인관리법 제정」을 공식으로 요청키로 했다.

'불자역할' 대토론회 연다

범불교재가연대회의, 10일 조계사서

범 불교재가연대회의는 재가불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오는 10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재가연대회의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통일과 지자제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불교가 해야할 일을 찾고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전국적인 재가조직 건설을 위한 공개토론을 전개해 시대에 맞는 재가조직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문옥 재가연합공동의장(불교종단 개혁, 그 평가와 전망)과 전재성 한국불교대 교수(새로운 시대 바람직한 전국재가조직 모색)가 주제 발표를 하며 재홍스님(태고종 보현도량회장), 김종찬(불교신문 편집국장), 손안식(전전국신도회 사무총장), 박희택(진각종 대밀청년회장)씨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실상선원 개원…불교학교 개강

철원 심원사 서울 포교당인 실상선원(원장 정현스님)이 광진구 중곡 1동에 법당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 개원했다.

3백여명의 지역불자가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주지 정현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는 도시민에게 부처님말씀을 전하기 위해 포교당을 개원했다"며 "신행은 물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실상선원은 1백평규모의 법당을 비롯 요사채 강의실을 갖춘 도심포교당으로 서울 동부지역 포교를 담당하게 된다.

실상선원은 개원과 함께 제1기 불교학교를 개설, 오는 7일 개강한다. 어린이 포교를 위해 한문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비구니회장 13일 이·취임식

비구니회장직을 고사하던 광우스님(목동청소년회관 관장)이 주위의 강력한 권고로 비구니 회장직을 수락했다. 이에 따라 비구니회는 전임회장과 신임회장의 이·취임식을 오는 13일 목동 청소년회관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중앙회장단·운영위원·지회장 연석회의에서 부회장에 진관 명성 경순 상륜 묘엄 법준 태경스님을 확정지었다.

칠연회 제1회 전국모임 열어

하이텔불동 칠연회(회장 임종욱)는 지난 3,4일 경기도 시흥 법륭사에서 제1회 전국모임을 열었다. 5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모임은 대화의 시간과 정진스님 초청법회로 진행됐다.

칠연회는 지난 1월 컴퓨터로 장애인을 포교한다는 목적으로 결성, 현문스님의 지도로 매주 컴퓨터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치문등 7권 통일교재 편찬

교육원 역경위원회와 교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치문, 초발심자경문, 사미(니)율의, 사집 등 승가대 교재 7권을 현토·주석·교감해서 올해부터 통일된 교재를 편찬키로 했다. 한편 내년부터 실시되는 비교종교학 강좌는 자체적으로 교재를 선정 개설키로 했으며 불학연구소가 교재를 추천한다.

용국사, 호국영령 합동위령재

대한불교 선교종 용국사(주지 학운)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경남 의령읍 체육공원에서 '제3회 호국영령 합동위령재 및 경로위안대잔치'를 개최한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몰군경장병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1부 추도발원문 낭독 및 미망인회 회장의 원앙 발원문등과 2부 왕생극락천도재 및 경로위안잔치를 궐칠 예정이다.

한편 용국사는 본행사에 앞서 의령국민학교까지 2천6백여명이 참가하는 시가행진을 계획하고 있어 6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가 될 전망이다.

불방특위 BBS사장 방문

조계종 불교방송대책위 명진, 법진스님은 지난달 30일 불교방송 강한필 사장을 방문, 특위에서 요청한 김재진, 이정, 이태호국장의 해임과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 달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한필 사장은 "함께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보자"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승가대회 11월8일 개최

말聯 페낭 극락사서

세계불교승가회(회장 오명스님, 본부 대만) 주최 제6차 세계불교승가대회가 오는 11월8일부터 1주일간 말레이지아 페낭 극락사에서 개최된다.

세계불교승가회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홍콩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세계 40여국 불교지도자 승려들로 구성된 세계불교승가대회는 4년에 1번씩 개최된다.

여름 어린이불교학교 전국지도자 연수 개최

'제19차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스님) 주최로 지난 3, 4일 양일간에 걸쳐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여름불교학교의 실제교육을 중점으로 △지도자들의 사명감 고취 △여러가지 도구를 이용한 부처님 모습 제작 △놀이를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해 △우리소리 전수 △여름불교학교의 실제교육 등 여름불교학교에 필요한 전반적인 일정으로 진행됐다.

종립학교 자료집 발간

조계종, 운영실태등 파악

종립학교 운영실태파악을 위한 자료집이 발간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설조스님)는 지난 1일 회의를 갖고 자료집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과 정리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8월 발간 예정인 자료집에는 24개 종립학교(대학 2, 중·고교 22)의 연혁, 정관, 학칙, 이사진 및 교직원 명단, 학교현황, 포교현황, 재산목록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과로사 태국인 장례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지난달 28일 태국·네팔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질병과 로로 인해 사망한 태국인 위나위의 장례를 치뤘다.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산재 노동자를 위해 쓰여지는 롯데복지재단의 6백만원을 지급받아 위나위의 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불교 일번지 조계사에 건립되는 통일기원 만불보전 건립기원법회가 5월31일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7백여 참석자들은 불사가 원만 성취되기를 발원했다.

7백여불자 통일주역 발원

조계사 만불보전 건립기원법회…현근스님 출판기념회도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 건립되는 '통일기원 만불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통일기원만불보전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명윤)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신라호텔에서 '만불보전기원법회 및 〈중생의 삶 깨달음의 길〉 출판기념회'를 봉행했다.〈29호 15면 참조〉

1부 기원법회에 이어 2부 현근스님(조계사 주지) 법어집 출판기념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녹원 지광 설정 종하 태응 홍파스님등 교계 중진스님과 서돈각(진흥원 이사장), 송석구(동국대 총장), 박찬종(국회의원), 권익현(정각회장)의원, 최재구(정각동우회원), 강한필(불교방송 사장)등 7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월주스님은 법어를 통해 "민족의 통일염원이 담긴 보궁이 서울 중심가에 세워진다니 기쁘기 그지없다"며 "통일을 염원하는 대작불사가 원만성취되어 통일이 앞당겨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사에 건립되는 만불보전은 전통건축양식과 현대건축기법이 어우러진 국내 최대규모의 5층 탑 법당으로 오는 8월에 기공, 97년 말 준공된다.



불교 성지 순례

백 두산·연길·북경 5일
·출 발 : 6월 25일
·동참금 : 100만원
·일 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스리랑카 6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출 발 : 6월 20일
·동참금 : 118만원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보로부두르 사원－
·출 발 : 6월 18일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불광사·화련·타이페이－
·출 발 : 6월 20일
·동참금 : 65만원

중 국불교유적지 13일
·출 발 : 6월 20일
·동참금 : 195만원
·일 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십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출 발 : 6월 23일
·동참금 : 188만원
·일 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 벳·네팔 10일
·출 발 : 7월 20일
·동참금 : 230만원
·일 정 :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경력 및 신입사원 모집
사세 확장으로 의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정원식 씨


◇조 순 씨


◇박찬종 씨

편견없는 종교정책 등 피력

BBS, 서울시장 후보 '빅3' 초청대담

6·27선거를 앞두고 가장관심을 모으고있는 서울시장후보 3명은 '종교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불교방송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에 걸쳐 정원식(민자)·조순(민주)·박찬종(무소속)씨등 서울시장 후보 3인을 '불국토의 아침'에 초청 각 후보 특별대담을 벌였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정원식(민자당)후보는 "내가 믿는 종교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종교도 소중하다"고 전제하고 서울시정 기본 방향으로는 "어떤종교에도 의지할수있는 종교풍토를 만들어 내일을 위한 대비에 힘쓰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 조순후보는 초청되어 "다종교사회인 만큼 종교정책은 편중이 없는 견지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귀의토록 하겠다"며 불자임을 밝혔다. 또 "전통문화를 일깨우는 문화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힘써 서울을 문화의 도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박찬종후보는 "범어사 내원암에서 고시공부했다"며 "서울을 세계의 중심도시로 비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으며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종교관련내용은 언급이 없었으나 그는 카톨릭 신자로 알려졌다.

3일간 열린 불교방송 정책대담에서 세명의 시장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치안, 교통, 환경, 시설안전, 문화를 우선순위로 내세웠으며 종교정책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7승 퀴즈왕 2명 탄생

BBS '퀴즈대장경'

불교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인 퀴즈대장경에서 영예의 7승을 한 퀴즈왕이 탄생했다. 지난달 24일 불교방송국에서 7승을 한 나명숙(34세)씨와 김재철(27세)씨에게 특별상금을 전달한 포교위원장 제원스님은 "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불법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 했다.

나명숙씨는 주부로서 매일 불교방송을 청취하며 공부를 해왔으며 다른 퀴즈왕인 김재철씨는 동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시를 준비하며 경전도 읽고있다며 고시에 합격하면 불교공부에 심취해 볼 계획이라고.

신행·정보화 주력 청취자 '붙들기'

BBS 프로 개편 1개월

'도반을 찾습니다' 신선미로 인기 끌어

지난달 1일 단행된 불교방송이 프로개편과 함께 새롭게 선보인 11개의 프로들이 방송 1개월을 넘기며 점차 청취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들 신설프로는 전국화방송 원년과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화 신행실천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청취자의 입맛맞추기에 전념하고 있다.

목요일에 이성훈씨가 진행하는 '생방송 도반을 찾습니다'(14:10~15:00)는 이번 개편이후 가장 호응을 받는 프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불교복지분야에 매진하고 있는 숨은 자원봉사자의 활약상을 소개하며 뜻을 같이하는 도반을 찾아 인연지어주는 것이 이프로의 핵심.즉석 전화 괙스도 받고 1분 광고도 마련하여 청취자들과 가까이 가고 있다.


◇연기영교수


◇김광석씨


◇법현스님


◇유정길씨


◇최영준씨

월화 다큐멘타리 '바로 보는 불교역사'(14:10~15:00)는 김태영법사의 진행으로 왜곡된 불교역사를 올바르게 조명하며 고정관념을 뒤짚고 불교를 바로세우는 프로로 학계에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괴승, 요승으로 왜곡된 신돈 묘청스님의 진실을 재정립하는 등 역사의 오해를 풀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진단과 풍부한 자료제시등이 언제나 숙제로 남기도 한다.

또 초·중·고·대학·청년회를 찾아 나서는 젊은 불교의 현장 '언제나 푸른불교'(14:10~15:00)도 현장성으로 청취자들에게 인기를 보태고 있다. 이밖에 정보와 음악, 환경 프로도 갈수록 신선도를 더해가고 있다.

'생방송 BBS 정보시대 1부, 2부'(오후6시~10시)는 타고난 여리꾼 최영준씨의 진행과 감초 김명학 개그맨의 호흡으로 교통상황 문화정보, 지방소식 등을 전하며 '환경패트롤'(토 14:10~15:00)은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불교 환경운동의 파수꾼으로 나서고 있다. '밤의 창가에서'(24:20~01:55)는 다시 돌아온 김광석씨와 장필순씨의 진행으로 늦은밤 청취자와 만나며 '일요초대석'(일 14:00~15:00)은 박덕규(평론가, 시인)씨의 진행으로 사회문화 현실 등을 좌담으로 풀어간다.

기존프로의 새진행자는 '살며 생각하며'의 원각사주지 법현스님, '경전공부'의 성열스님, '불국토의 아침'의 연기영교수, '자비의 전화'의 한국새종교연구원 이경우원장, 안산 유마정사 정명스님, 한국불교교화원 한정섭법사도 '방송의 맛'살리기에 여념이 없다.

김원우 기자

불교방송 3%선 그쳐 저조

갤럽·MBC 라디오 청취율 조사

일반인 대상 프로개발 시급

불교방송의 청취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청취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된다.

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MBC가 공동으로 라디오 청취율을 조사한 결과 불교방송은 3%의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불교방송의 인기프로로는 '차한잔의 선율(거룩한 만남)'이 0.4%, '자비의 전화'와 '살며 생각하며'가 각각 0.3%를 차지했다. 반면 인기수위는 문화방송으로 여성시대,싱글벙글쇼,별이빛나는 밤에등이 가장높은 청취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청취자들이 최소한 1시간 이상 라디오를 듣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습관적으로 매일 2~3시간정도 듣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강화가 요망되고 있다.

불교방송의 일반청취자 확보를 위해서는 포교의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하는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불교라는 차원에 머무를 것인가. 중생제도차원에서 일반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불교로 끌어들이느냐의 명확한 규정이 없이는 불교방송의 편성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방송가 안팎의 전반적인 지적이다.

16여명의 보도국기자와 14명의 편성제작부의 PD로는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PD들이 3~4개의 프로에 매달리는 현실에서 혹사만을 강요할 뿐이라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불법홍포를 내세우며 설립된 불교방송인만큼 지원이 안정화돼고 일반인들까지도 함께할 수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폭넓은 층을 확보할때 불교방송의 인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

초고속 정보통신 사업 참여

불교TV 기자간담회, "정상화 추세"

불교텔레비전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8일 개국 1백일을 맞아 현재의 추진현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호 경영관리국장은 현재 케이블TV 가입자는 총 32만6천6백46명이라고 밝히고 컨버터의 공급물량 확보로 6월말까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안정세에 들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5월부터 유료방송화되면서 컨버터 1개당 btn 분배액은 252원7전이 배당되고 CATV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의 참여로 경제적인 부분도 조기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btn 현황에 있어서는 현재 광고 5천만원, 영상사업부 6천만원, 수신료 2천만원 등의 고정수입이 있으며 월지출은 7억5천만원으로 월6억2천만원의 경영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제2차 불자주식공모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고 있다.

CD비전 제작 유니버셜사와 계약

불교텔레비전 영상사업부는 지난달 27일 유니버셜레코드사와 클래식 CD비전 제작 촬영 계약을 체결했다.

방송 하이라이트

btn ch32

학도병출신 육순노인 애기

자비의 천수천안 (6일 11:10~12:00) 19살에 학도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이후로 19년간 군에서 보낸 청춘뒤에 남은 윤수정 할아버지의 비틀어진 육체, 절망으로 가득한 예순 셋의 인생이야기를 소개한다.

김청모녀 신행생활 소개

김병조의 스타쇼 (7일 11:10~12:00) 강한 성격의 역으로 널리 알려진 김청과 어머니를 초대한다. 김청모녀의 삶의 애환과 따뜻한 사랑이야기 그리고 부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게 지내는 모습을 소개한다.

국군장병들의 고민거리

특집TV 신행상담 (8일 11:10~12:00)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조국수호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들을 만나 그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민주정치와 불교사상

오늘을 이끄는 불교 (5일 11:05~11:20) 불교와 정치 특히 민주정치와 불교사상적 배경에 대해 민병천교수(동국대 정치학과)를 초대해 듣는다.

'제행무상' 알기쉽게 풀이

교리강좌 (7일 06:40~07:00) '모든 것은 바뀐다' 삼법인의 하나인 '제행무상'에 관해 알아본다. 이평래교수(충남대학교 철학과)가 진행한다.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제품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트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리스 사용 —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배로 견딜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경기도 고양시 향동동 267-18
• 전화:(02)308-1818~9, 303-7376, 372-7941

품질보증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에리사 그레이,
그레햄 벨보다 한 시간 늦게
전화 발명에 성공—
하지만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사진은 전화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햄 벨(원내 에리사 그레이)

세계일류
삼성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알렉산더 그레햄 벨이 전화에 관한
특허를 신청한 지 한시간 후—
에리사 그레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발명품으로 특허를 신청.
하지만 에리사 그레이란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2등이었습니다.

기업간의 국제경쟁은 전쟁—
전쟁에서 2등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일.
반드시 세계일류기업이 되겠습니다.
품질과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공익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일류—삼성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SAMSUNG 삼성